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모자란 것은 소리내지만
가득찬 것은 소리내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가득판 연못과 같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6월 1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05호 2016년 7월 13일 수요일

佛心 대신 '票心' 불자 의원 어디에

20대 국회 정각회 13일 출범… 입회 36명 불과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정각회 인원이 매회 줄고 있어 불교계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정각회는 7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서 20대 집행부 구성을 위한 정기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20대 국회에는 36명의 국회의원이 입회했다. **〈7월 7일 집계 결과〉**

정각회 회원이 40명 아래로 내려온 것은 14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정각회는 1981년 11대 국회 정각회 출범 당시가 69명 · 12대 7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3대 56명 · 14대 33명 · 15대 43명 · 17대 40명 · 18대 59명 · 19대 42명이었다. 16대에는 정각회장 자리를 두고 여야갈등이 빚어져 구성되지 못했다.

정각회 회원 감소 이유는

20대 정각회장으로는 주호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내정된 상태며 유승민, 김정훈, 백승주 의원 등 새누리당 26명, 추미애, 신경민, 정춘숙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모두 36명이 이름을 올렸다. 18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대 정각회 관계자에 따르면 재선에 성공한 정각회 소속 의원은 19명에 불과하다. 총선 당시 19대 정각회 소속 의원이 대거 공천에 탈락한 여파다. 하지만 20대 국회의원 중 불자의원 수는 18대와 19대를 넘어선 62명이다. 정각회 회원이 줄어든 이유는 초선의원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대 정각회장으로 내정된 주호영 의원은 "새로이 당선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상황에 불자임을 밝히길 꺼려하는 이들이 많다. 입회원서를 낸 36명 외에 의원 3명이 가입의사를 밝힌 상황으로 출범 이후 회원 가입이 이뤄지기에 40명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지역구 상황이란 무엇일까. 19대 정각회장을 맡은 강창일 의원실 관계자는 "기독교계를 비롯한 지역 유권자들과의 관계 때문"이라며 "정각회 가입은 불자임을 공표를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지역구가 교회세가 강하면 전면에 나서기 꺼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자의원들이 주저하는 동안 이웃종교계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개신교계인 국회조찬기도회는 110명, 가톨릭신도회는 56명으로 정각회 회원 수를 넘어섰다. 국회 내 종교에서 불교는 사실상 3순위로 전락했다.

불교계 관계 모호…지원 줄어

국회의원 종교모임은 종교계와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정각회의 경우 불교 관련 각종 법안 발의에도 앞장섰다. 하지만 자율적인 신행단체인 까닭에 종단에서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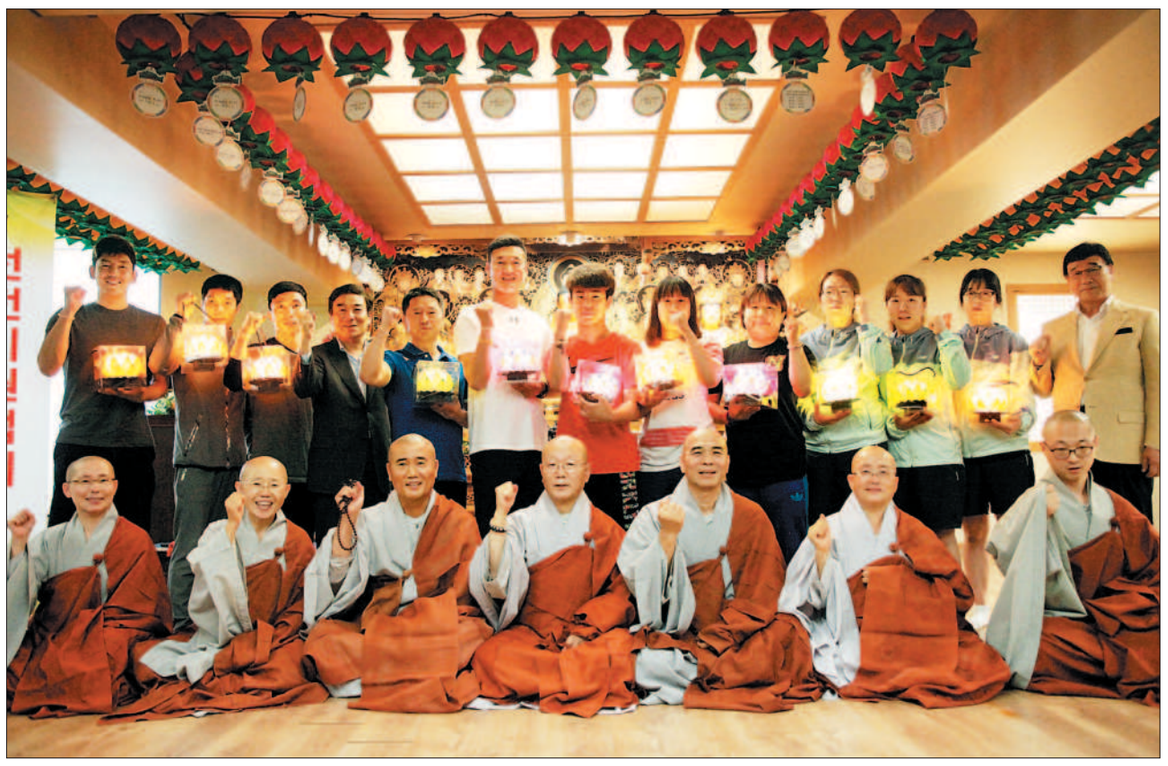
최윤영 조계종 포교원 주임은 "정 · 관계 신도단체는 종교편향 문제로 단체 측에서 오히려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정각회의 경우 특수성으로 조계종

10년 내 최저치, 초선 가입 저조
개신교 · 가톨릭 이어 3순위 전락
"지역서 불교색 드러내기 힘들어"
종교편향 논란에 단체 지원 난색
불자 네트워크 모임 등 관심 촉구

대외협력실에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관계 설정 자체가 모호하다. 이런 가운데 신도회 차원의 후원도 최근 줄어 든 상황이다. 18대 정각회 당시에는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당선인 축하법회를 비롯해 고문 · 부회장 위촉해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최근에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찬영 중앙신도회 사회공헌팀장은 "공식적으로 의원들이나 정각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불자 국회의원들이 정각회 가입을 해야지만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초선의원들을 비롯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련 조계종 종책특보는 "불교포럼 등 불자 네트워크 모임에 불자 국회의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며 "정각회는 개원 이후에도 접수하는 국회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각회와 불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불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 가피가 메달로 이어지길"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메달 부담감은 크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불자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스님들이 선수촌을 찾았다. 사진은 조계종 체육인전법단이 7월 6일 봉행한 올림픽 선전 기원법회서 스님과 선수들이 주먹을 불끈 쥐며 파이팅 구호를 외치는 모습. **글 · 사진= 윤호섭 기자**

로터스월드 · 청수나눔회 만해평화대상 수상

동국대, 만해대상 수상자 발표
마리안느 · 마가렛 수녀 실천대상
이미자 · 이승훈, 공동 문예대상
오는 8월 12일 시상식 개최

올해로 20회를 맞는 만해대상 평화부문에 불교계 국제개발 NGO단체인 로터스월드와 원불교단체인 청수나눔실천회가 수상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제20회 만해대상' 수상자 6명을 선정했다"고 7월 8일 밝혔다.

평화대상은 국제개발 NGO단체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청수나눔실천회(이사장 박청수)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국제개발 NGO 단체 로터스월드와 청수나눔실천회는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등 동남아에서 교육 및 보육시설 등을 건립해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실천대상은 푸른 눈의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스퇴거 · 마가렛 피사레크 수녀가 받게 됐다. '할매 수녀'로 불리던 마리안느 수녀와 마가렛 수녀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소록도에 들어와 한센인들을 돌보는 데 평생을 바쳤다. 대한민국 명예국민이 된 이들은 만해축전의 주제인 '생명과 화해'를 솔선해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예대상은 '엘레지의 여왕' 가수 이미자, 아방가르드 시인 이승훈 씨에게 돌아갔다. 이미자, 이승훈 씨는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아름다운 노래와 시로 많은 사람들을 웃고 울리면서 문화발전에 이바지했던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의 유지를 기리는 만해축전은 올해로 18회째를 맞는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와 동국대, 강원도, 인제군, 조선일보,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유심작품상 시상을 비롯해 만해 72주기 추모행사, 학술행사, 문화예술 행사 및 경연대회, 지역대동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만해축전의 백미인 만해대상 시상식은 오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하늘내린센터서 개최된다. **신성민 기자**

창종 70년 맞는 진각종 '금강원 무진서원불사' 종단·국가 발전 기원

7월 25~27일 회당문화축제서 독도아리랑 콘서트 등 공연도

올해는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이 진각 70년을 맞은 의미있는 해이다. 그래서 해마다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서 열리는 2016 회당문화축제에서도 '진각 70년 종단과 국가발전을 위한 금강원 무진서원불사'라는 특별한 행사도 함께 봉행된다.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리며, 울릉도 일대서 펼쳐진다.

진각종이 주최하고 회당문화축제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의 일정을 살펴보면 특별문화체험마당과 공연마당, 금강원 무진서원불사 등으로 진행된다.

우선 첫 선을 보이는 '금강원 무진서원불사'는 7월 26일 오후 7시 30분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지인 금강원서 열린다. 진각 70년을 맞아 종단과 국가발전을 서원하는 대중동참 불사로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를 비롯해 전국 신교도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될 예정이다.

이날 불사에서는 △진각종 70년사 영상 상영 △통리원장 법어 △진각 70년사 봉정 △서심결정식 △음성공양 △종단 발전과 진호국가 서원을 담은 풍등 비상식 등이 열린다.

둘째날 열리는 '무진서원불사'가 한국 밀교 정신을 구현하고 그동안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종교행사의 성격을 띠었다면 셋째날 열리는 '독도 아리랑 콘서트'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마당이다.

27일 오후 7시 30분 도동항 가설무대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최근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주목받는 그룹 장미여관과 가수 한영애, 동덕여대 DDAM밴드 등 호화 출연진이 무대에 오른다.

이외에도 특별문화 체험마당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도동항 소공원서 진행된다.

회당문화축제 준비위원회는 "올해는 진각 70년을 맞아 금강원 무진서원불사가 회당문화축제의 한 축을 이뤄 장엄하게 봉행할 예정"면서 "역대 최고 인원이 참가하는 만큼 이에 걸맞게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진각복지재단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도 5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석가를 품은 53見 본문 중에서



제 25見 천도(遷度)란?

마음은 살아 있는 자에게만
있는것도 아니고
죽은 자(영가)에게는
없는 것도 아니기에

몸 안에도
몸 밖에도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다만
업(業)의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신령스럽고 부사의(不思議)한
무설설(無說說)의 존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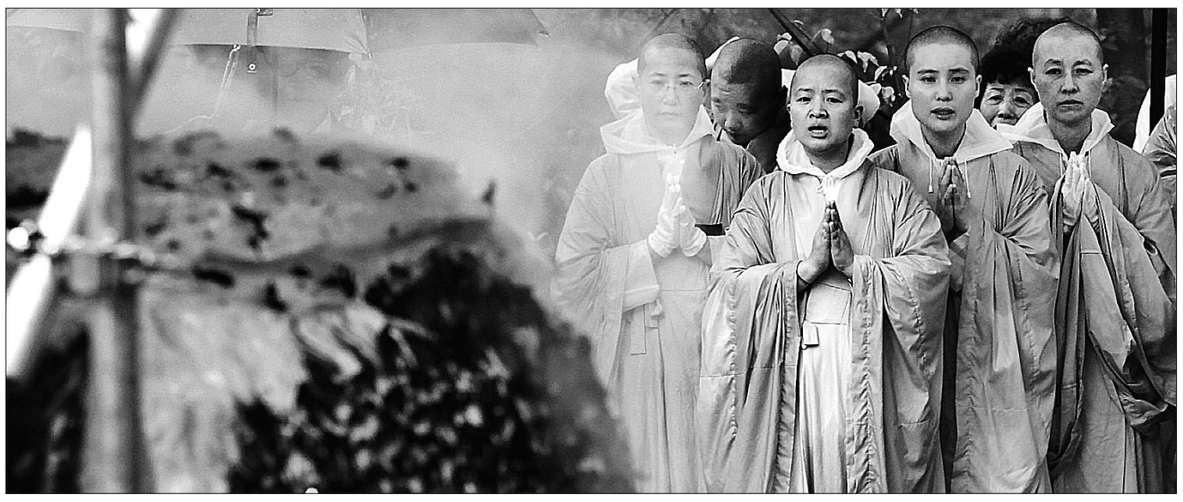
그래서 천도(遷度)란?
삼세(과거 · 현재 · 미래)가 평등히
짓는
이 무설설(無說說)의 업(業)의 경계를
바뀌게 하는것이요
깨닫게 하는것이며
법열(法悅)의 한 맛을 장엄하는 것이요
무생법인의 근본지혜를 일깨우는 것이다.

평온센터 부설-
화엄경 강원
방장 진귀

삼각산 큰 별 지니, 하늘도 울었다

무위당 진관 스님 3일 원적 5일 다비식 1000여 불자 눈물

우중에도 연화대 불자 운집
설정 스님 "산하대지가 기억"
명성 스님은 특별한 인연 소개
"맑고 검소한 삶, 후학 사표"


진관 스님 다비식서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후학들이 배웅하고 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후학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서울 삼각산 진관사 중창불사의 주역인 진관사 회주 진관 스님이 7월 3일 법납 68년, 세납 89세로 원적에 들었다. 법기문중장으로 봉행된 5일 영결식과 다비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1000여 대중이 운집해 수행과 전법의 사표였던 진관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했다.

다비식에 앞서 100여 만장을 앞세운 법구 이운부터 진관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불자들의 모습은 부모를 잃은 듯 했다. 빗속에서 가사장삼이 젖어도 스님들은 만장과 운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침내 연화대에 운구행렬이 도착하고 이날 증명법사인 설정 스님과 혜거 스님 등 스님들이 거화했다. 진관 스님의 상좌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의 "스님 불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세요"라는 선창 아래 착화가 진행됐다.

다비식에 함께 한 사부대중은 스님이 육신의 옷을 벗어던지는 순간을 함께하면서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에 앞서 열린 영결식은 명종 5타를 시작으로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영결법요, 헌다 및 헌향, 행장소개, 추모입정, 영결사 및 법어, 조사 등으로 이어졌다.

영결법요는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스님과 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어장 동희 스님이 집전했으며 행장 소개는 법기문중 회장 본각 스님이 맡았다.

본각 스님은 "스님은 한국불교의 미래가 전법포교에 있음을 예견하시고 유치원 건립을 비롯해 군법당 불사 등에 앞장섰다. 부처님 자비와 구제중생의 원력으로 소외된 노인과 아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스님의 맑고 검소한 삶은 제자와 신도들이 옷깃을 여미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소개했다.

영결사를 맡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스님은 "묵묵히 수행정진하신 청정한 설법으로 제자들을 배출하고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신 이 도량에서 저희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스님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다"며 "따스한 봄 햇살이 창문을 두드릴 때 전법교화의 원력을 세워 홀연히 다시 돌아오시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처처가 스님이 돌아갈 길이요 두두물물이 머물 고향이다"며 "현전한 산하대지가 스님의 자성을 떠나지 않았고, 삼라만상이 스님의 본분을 떠나지 않았다"고 법어를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스님을 사표로 후학들은 공덕 짓는 일에 기뻐하며 모든 공덕을 일체중생에 남김없이 회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며 "아무도 모르게 금세 오셔서 불자들의 아름다운 행원에 미소로 화답해주소서"라고 추도사를 전했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조사에서 진관 스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다. 명성 스님은 "스님께서 저의 학창시절 마치 학부형처럼 저를 아껴주시고 후원해 주셨다. 그 은혜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보낸다"며 "1984년 전국비구니회 출범에서 큰 역할을 하시고 오늘날 비구니 위상을 만드는데 족적을 남기셨다. 그 걸어오신 길과 적정열반의 큰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한편, 진관 스님의 49재는 7월 9일 초재에 이어 16일 2시, 23일 12시, 30일 10시, 8월 6일 10시, 13일 10시, 20일 11시 49재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시대 선지식 · 보현보살, 진관 스님



89세 평생 보현행원 수행
삼각산 진관사 불사 일궈내
경찰법당 건립 등 전법교화

무위당 진관 스님은 평생을 보현보살의 행원을 수행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간 이 시대의 선지식이었다.

무위당 진관 스님은 1928년 9월 20일 경기도 평택에서 부친 최웅순과 자모 박태순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다. 1948년 21세에 오대산 월정사에서 한암 스님을 친견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출가를 결심했다.

원허당 인홍 스님을 은사로 출가사문의 행해를 익힌 진관 스님은 1948년 탄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탄허 스님에게 〈초발심자경문〉과 경학을 배우고, 한암 스님으로부터는 참선법을 직접 지도받았다. 1950년 23세에는 쌍계사 국사암에서 정진을 시작해 대성암 · 견성암 등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1960년 33세에 범어사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진관 스님의 가장 큰 업적은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중흥시킨 것이다. 1963년 36세에 진관사 주지로 부임한 진관 스님은 한국전쟁으로 전소된 도량을 1965년 대웅전 낙성을 필두로 1980년까지 15년 간 중창해 현재의 모습으로 회복시켰다. 진관 스님의 원력이 상응해 1977년부터 다시 봉행되기 시작한 '진관사국행수륙재'는 2014년에 이르러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6호로 지정받게 됐다.

진관 스님은 전법 포교와 불교 인재 육성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1996년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진관사 부설 코끼리 유치원을 건립했으며, 어린이 · 청소년법회 · 군법당 건립 및 경찰법당의 불사 등에 앞장섰다.

또한 부처님의 자비와 구제중생의 원력으로 2010년 사회복지법인 진관 무위원을 설립하고 소외된 노인과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84년부터 조계종 8대, 9대, 10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고,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소임을 2003년까지 맡으면서 전국비구니회관건립과 비구니의 위상 정립에 진력했다. 진관 스님은 평생 〈보현행원품〉을 독송하며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부처로 섬기는 보현보살의 행원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았다. 신성민 기자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3선



재단법인 선학원 제19대 이사장에 법진 스님〈사진〉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법진 스님의 이사장 선출은 선학원 사상 최초인 3선으로 스님은 제17대부터 이사장을 맡아왔다.선학원은 7월 7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19대 이사장으로 만장일치로 법진 스님을 추대했다.

법진 스님은 "선학원의 100년 역사와 미래 100년의 틀을 다진다는 각오로 임원 스님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추대를 받아들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기 만료를 앞둔 총무이사 송운, 재무이사 정덕, 교육이사 철오 스님 등 7인에 대한 연임도 결정됐다. 노덕현 기자

"직선제 실현, 미래지향 승가 만든다"

조계종 교육위원 허정 스님
7일 교육원 세미나서 주장



"'함께 바른 견해를 갖는 일'도 '함께 균등하게 나누는 일' 없이는 승가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균등하게 나누는 일의 우선 과제는 종단 지도자를 뽑는 선거법을 대중이 원하는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다."

미래지향적 승가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선제가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교육위원 허정 스님〈사진〉은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와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가 7월 7일 공동개최한 '현대사회와 승가상'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허정 스님은 '미래지향적 승가상'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바른 견해를 갖는 일'과 '이익을 균등하게 나누는 일'이 미래지향적 승가상을 완성시키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허정 스님은 "바른 견해는 교육을 통해, 이익의 균등배분은 사찰운영과 승려복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조계종은 2009년 혁명이라고 할 만큼 교육체계를 혁신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 승가상은 교육체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선제로 치러지는 현행 총무원장 선거는 소수 기득권끼리 돌아가면서 종권을 나눠 가져 다수의 대중은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 대중은 직선제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능력있는 사람이 대중의 지지를 받아 지도자가 돼야 종단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역사 속의 승가상'을 발표한 이자랑 동국대 HK연구교수는 "현대 승가는 분명 과거와 다른 환경에 놓여있지만, 승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 않다"면서 "이상적인 승가상의 확립은 구성원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행도 교화도 승가가 자정능력을 잃지 않을 때 제대로 이뤄질 수 있고 일반인들에게 존경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며 "현대사회에 부응하고 존경받는 승가상은 기본이 바로 서고, 승가 차원에서 실현된다면 절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비구니계 갈등, 다시 촉발되나

비구니회, 7일 비구니종회의원 제명… 의원들 "반목 아닌 화합을"

전국비구니회가 16대 중앙종회 비구니 의원 스님 전원을 회원 제명했다. 11대 비구니회 집행부 출범으로 봉합될 것으로 예상했던 갈등이 다시 촉발되는 양상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7월 7일 제2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0대 운영위원장 계환스님과 제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을 회원 제명키로 결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총회에서 결의한 △제10대 운영위원장과 제16대 비구니 종회의원의 전원제명 △제16대 비구니 종회의원 전원사퇴 △전국비구니회 결의사항 에 대한 종단의 수용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실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첫 공식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7월 6일 발표하고 갈등과 반목이 아닌 비구니 승가의 원융화합을 요청했다.

비구니종회의원 스님들은 "이 같은 모습이 현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한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 셋째도 화합의 모습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10대 집행부는 8억2000만원의 운영기금을 마련하고 제11대 회장선거를 원만하게 치러냄 △중앙종회의원 자격기준은 종헌종법에 어긋나지 않음 △중앙종회의원 선출의 적법성이 중앙선관위를 통해 확인됨 △중앙종회의원 전국비구니회 제명 결의는 위법함 등을 주장했다.

이어 "지리한 비판과 비난의 한계를 긋고 비구니스님들의 목전에 닥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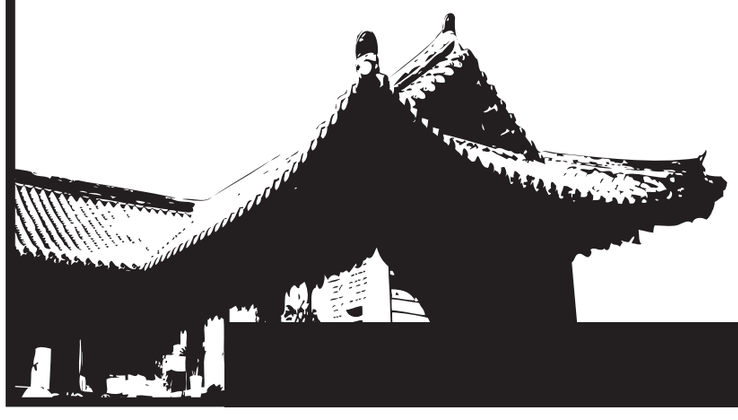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팔만대장경 일부, 김천서 판각됐다”


해인사 장경각 내부모습.

최영호 동아대 교수, 7월 7일 한국학대회서 주장

국보 제32호 재조(再造) 고려대장경(이하 팔만대장경) 일부가 경북 김천 개령면에서도 판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호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7월 7일 직지사 설법전서 열린 ‘2016 한국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13세기 중엽 개령분사대장도감의 활동 인력과 조성 경판’을 통해 김천 개령면 일대에 분사도감이 설치돼 팔만대장경 일부가 판각됐음을 논증했다.

그간 학계는 팔만대장경 조성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대표적인 학설이 남해 지역에서 전부 판각됐다는 ‘남해 전담 판각설’과 강화와 남해 지역에서 나눠 판각됐다는 ‘강화도 · 남해 분담 판각설’이다. 이 같은 학설은 한국중세사, 서지학, 고고학에서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 교수는 두 학설에 맹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2000년대부터는 기존의 분사도감이나 산하에 설치된 별도의 조성공간 위치가 새롭게 진단되고 있으며, 경주와 가야산 등 삼남지역에서 판각공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최 교수는 “두 학설의 견해는 원처자료의 분석 방식과 해석 과정에서 객관성이 제한된 측면도 있다”면서 “강화경판에 담긴 의미를 최씨 무인정권이라는 정권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오해와 강화 · 남해라는 특정 지역 중심의 전유 기록유산으로 제한하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화경판의 조성 주체, 참여 각수의 출신성분, 조성 기구의 운영형태와 조성 배경 등에 대한 연구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작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개령분사대장도감 조성경판 주목
고려 고종 시기 〈당현시범〉 판각
개령분사도감 활동한 각수들 다수
분사 경판 조성… 개령 판각 논증

최 교수가 주목한 것은 해인사 소장 ‘당현시범(唐賢詩範)’이다. ‘당현시범’ 권하 11복(卜)에는 “고종 33년(1246) 개령분사대장도감에서 ‘당현시범’ 목판을 개판했다”는 간기가 새겨져 있다.

최 교수는 “‘당현시범’의 간기에 따라 현재 개령면 지역도 분사도감의 조성공간이 분산적으로 설치 ·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강화경판의 조성을 분담한 분사도감과 산하의 조성공간은 다양한 지역에 설치 ·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사도감에서 조성된 개별 경판의 외형적 형태가 다양한 점 △개별 경판의 조성기록 △분사도감 운영 당시 여러 지역에서 경판이 조성된 점을 들었다.

최 교수는 고종 38년 경주(옛 지명 동경) 지역에서 관리 박수가 주도해 〈불설아미타경〉을 새긴 것을 제시하며 “강화경판 조성사업이 일단락된 같은 9월보다 앞선 시기에 경주 지역에 〈불설아미타경〉 경판을 조성했다는 것은 이전부터 경판 조성에 필요한 인적 · 물적 기능이 갖춰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개령분사도감에서 판각된 ‘당현시범’에 참여한 각수들을 주목했다. 현재 확인된 각수는 감대 · 광려 · 천립 · 원간 · 손직 · 윤보 · 혜견 등 8명이다. 이들의 활동 상황을 분석한 최 교수는 “개령분사도감에서 제작된 경판은 ‘당현시범’만 확인돼지만 ‘당현시범’만을 위해 도감을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개령분사도감서 활동한 대부분의 각수들은 상호 교차적으로 연결돼 동일공간서 개별 경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미혼모 위한 한땀 한땀의 정성 서울 조계사는 7월 4일 대웅전서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와 ‘한부모가족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지현 스님은 협약식에 앞서 미혼모 가정 영아들에게 전달할 수면조끼를 직접 만들며 한 땀 한땀 정성스럽게 바느질 했다. 조계사와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1차로 수면조끼 300개를 제작, 이를 미혼모 시설 등으로 배포할 계획이며, 수면조끼 제작과 함께 5000원을 보시하면 전액 미혼모 돕기에 사용된다. (02)861-3020 노덕현 기자

세월호 인양 염원하는 ‘가장 간절한 기도’

5대 종교, 7월 4일 ‘인양 촉구 기자회견’ 개최

5월 말 예정됐던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이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지연된 가운데, 한국 5대종교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천도교한울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태고종 충북노동인권위원회(이하 사회노동위 등)는 7월 4일 광화문 세월호광장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종교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7월 11일 세월호 선수들기 3차 시도를 앞두고 정부에 대해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사회노동위 등은 “이미 선수와 선미가 들려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야 할 세월호 인양작업이 벌써 3차례 연기됐다. 이 과정서 선체가 훼손되기도 했다”며 “유가족과 온 국민이 바라는 국가적 과제인 세월호 인양을 하루빨리 마쳐 침몰 원인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사회노동위원 우담 스님은 종교인 대표발언을 통해 “전국의 모든 스님들이 마음을 모아 오는 금~일요일(7월 8~9일) 온전한 세월호 인양을 염원하는 72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연다”며 “종교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노동위는 7월 8일 저녁 7시부터 세월호 선수들기 3차 작업이 실시되는 11일 오후 7시까지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 앞에서 ‘72시간 릴레이 3만 배 기도회’를 봉행했다. 박아름 기자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 7월 21일 10돌 맞아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 이하 생명나눔)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사의 뜻을 전하는 법회를 봉행한다.

생명나눔은 7월 21일 오후 5시 30분 부산 코모도 호텔 1층 대연회장서 ‘우리가 걸어 온 길, 나아가야 할 10년을 위하여’란 주제로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일면 스님(생명나눔실천 이사장), 경선 스님(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하사 회주) 및 이사 스님들과 기증회원 및 후원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다.

법회는 △인사말 △격려사 △축사 △회고 영상 시청 △시상식 △생명나눔실천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생명나눔은 “생명나눔의 중요성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1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세계인의 법왕’ 달라이 라마, 한국으로”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 7월 2일 백범기념관서 발대식



이날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는 13개 불교 신행 · 수행단체에 대해 소속 단체로 위촉했다.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공동대표 금강 · 진옥 · 박광서, 이하 추진회)는 7월 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 공식 발대식을 거행했다. 2013년 12월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원회 발족 후 2년 만이다.

이날 자리엔 조계종 원로의회장 밀운 스님, 추진회 상임대표 금강 스님, 공동대표 진옥 스님 · 박광서, 공동집행위원장 월호 스님, 배우 선우용녀 · 김혜옥 씨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참석했다.

밀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왜 달라이라마 존자를 한국에 모시고 싶은가’를 물으며 “나는 달라이 라마가 이 세상에 현존하는 유일한 부처님이라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불성은 있지만 모두 부처님은 아니다”며 “달라이 라마를 꼭 한국에 모셔 이 자리에 있는 불제자들의 불성이 모두 깨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추진회 상임대표 금강 스님은 “‘준비위원회’로 발족 후 조계종 원로회의 20여명 스님들에게 지지서명을 받은 것으로 시작, 정식 추진회로 거듭나는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달라이 라마 가르침의 요체는 평화와 자비 등 인류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방한이 꼭 성사돼 많은 갈등과 고통이 산재한 이 한반도에 평화와 자비 가치가 널리 펼쳐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아울러 이날 불교계 신행 · 수행단체 13곳을 추진회 소속 단체로 위촉했다. 해당 단체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국교사불자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동산반야대학, 대전광역시 청소년교화협의회, 세젠코리아, 심쉼풀이, 우리는선우, 절오빠절언니, 울산불교여성회, 울산금가회, 국제포교사회, 중앙포교사단, 승만서원실천회 등이다.

한편 발대식에선 달라이 라마 장수 기원 법회와 혜민 스님의 마음치유 콘서트 등도 함께 진행됐다. 박아름 기자

“신행은 願 세우고 실천하는 일”

조성택 교수, ‘신행운동’ 주제 포교원 종책연찬회서

“절실한 마음, 정직한 실천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願)이다. 나 스스로를 비롯해서 한국 출재가자들 가운데 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불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불교를 믿고 실천하는 신행이란 곧 원을 세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7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현시대의 불교신행운동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조계종 포교원 제68차 포교종책연찬회서 신행의 올바른 의미를 이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현황과 지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원의 세 가지 의미로 △현실을 바라보는 투명한 눈 △결핍과 부재, 상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 마음 △스스로 주체가 되는 마음을 꼽았다.

끝으로 조 교수는 “원에는 소모적인 이분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불자들 각자의 원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며 “과제는 원을 중심으로 한 신행이 한국불교의 사회적 · 문명적 리더십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제50차 성인 명상 템플스테이로 행복한 마음챙기기

화성 신흥사 어린이 명상템플스테이

– 라훌라처럼 우리도 밀행제일 부처님 아들이 되자 –

■일 시 : 불기2560(2016)년 8월 20일 ~ 21일 (1박2일)
■대 상 : 고등학생 이상 일반인
■참가비 : 4만원
■준비물 : 세면도구, 흰티 등 ※템플복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성 신흥사만의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무료



▶일 시_ 7. 29.(금) ~ 31.(일)
▶대 상_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
▶준비물_ 세면도구, 여분의 옷, 편한 운동화, 물놀이 신발
▶기념품_ 부처님 교화공원 합장주, 교화공원 손수건, 교화공원 기념티, 신흥사 리플렛, 수료증, 불교신문
※템플복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화공원 조성의 계기가 된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합니다.

화성 신흥사는 40여년 전 어린이 포교를 시작으로 청소년, 성인들의 귀의처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쉽고 재미있게 전해 줄 수 있을까를 고심하다가 생각해 낸 것이 부처님교화공원입니다. 야생화 황톳길을 걸으며 명상을 통해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중생을 교화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며, 위대한 종교의 탄생과 교화공원에서의 장엄함 느낄 수 있습니다.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무료(사중에서 지원)로 하는 것은 이 교화공원 조성의 계기가 된 어린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 공덕을 회향 하고자 함입니다.

※주지 성일스님 및 모든 신흥사 자원봉사자는 어린이들이 곧 부처님이라는 마음으로 어린이 명상템플스테이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문의_ (031)357-2695, 3916
주소_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인터넷접수_ 템플스테이 검색 → 템플스테이 신청 → 화성 신흥사

일 주 문



여름 어린이 템플스테이

성우 김제 금산사 주지 스님은 8월 9~11일 경내서 2016 여름 어린이 템플스테이 '나도 쉬고 싶다'를 개최한다.



선남선녀 인연만들기

영관 구례 화엄사 주지 스님은 8월 13일 오후 2시 경내서 '제1차 싱글만남 템플스테이'를 연다.



초등부 여름 템플스테이

정도 보은 법주사 주지 스님은 7월 29~31일 경내서 초등부 템플스테이 '퐁당 여름에 빠지다'를 진행한다.



대불청 제4차 정기이사회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은 7월 16일 오후 3시 경북 예천 보문사서 '불기2560년 제4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



대불련 총동문회 전국동문대회

백효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은 8월 13~14일 구례 화엄사 일원서 '제14회 전국동문대회'를 마련한다.



교사불자회 여름수련회

배한욱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은 8월 5~7일 김천 직지사서 '2016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여름수련회'를 연다.

인사

조계종 총무원은 7월 5일자로 일반직 종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단행했다.

교육원 △박용규 차장 △김태현 주임
포교원 △김상기 포교차장 △고명석 포교종책팀장 △김병주 전법팀장 △이동선 교화팀장 △한달기 주임
총무부 △김영은 사찰교무팀 주임
기획실 △정유탁 홍보팀장 △공승관 감사국 팀장 △김소영 기획팀 행정관
재무부 △권지은 재무팀 주임
문화부 △윤효원 문화팀장 △이용윤 문화재팀장 △심주완 신도시TF팀장 △김추연 문화재팀 주임
사회부 △김단인 국제팀장
사업부 △양진수 사업팀장 △박형봉 사업팀 행정관
직할교구사무처 △이선화 팀장
한국문화연수원 △심원섭 총괄부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김영일 사무차장 △박성수 행정관 △박종찬 주임 △최윤영 주임
불교중앙박물관 △김재훈 박물관팀 주임
조계종출판사 △황철기 총괄국장
해인사 파견 △김영주

"가정상담소 7월 중 재운영"

Interview

서옥영 제9대 한국여성불교연합회장



2011년 문 닫은 부설 상담소
가정해체 예방코자 운영재개
경단녀 취업알선·성평등 운동도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한동안 문을 닫았던 이혼 예방을 위한 가정상담소를 다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불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 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제9대 한국여성불교연합회장에 서옥영(59) 씨가 7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공식 취임했다. 서 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연합회 부설 행복한가정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정해체를 예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이하 여불련)는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행복한가정상담소를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재정난을 비롯한 각종 어려움에 부딪혀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당시 종로구청에서도 이를 안타깝게 여겨 지속적인 운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게다가 상담소 문을 닫자 자연스레 여불련의 활동도 줄어들었다.

"근래 들어 연합회 활동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따라서 1500명 회원들과 소통하며 대사회적인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이달 안에 상담소 운영을 재개할 것입니다."

서 회장이 상담소 운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4년간 소년원에서 교화활동을 펼치며 아이들이 가정에서 겪는 아픔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부모가정은 물론이고 부모가 있더라도 기능적 결손에 처한 아이들이 방임과 가정폭력,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범죄와 가까워진다는 걸 느꼈다.

"아이들이 부모의 무관심 때문에 밖으로 떠돌면서 범죄에 많이 빠지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화목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가정상담소를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는 원활한 상담소 운영을 위해 현직에서 전문상담가로 활동하는 젊은 여성불자들을 이사진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사를 배출, 연합회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알선 사업과 양성평등 운동 등을 중점적으로 전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미는 연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불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원력이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옥영 회장은 (사)청년여성문화원 사무국장과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총무부장을 역임했고, 불교여성개발원 7차 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됐다. 동국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현재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국제포교로 불교 세계화 앞장"

7월 2일, 국제포교사회 창립 18주년 기념식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신외균)는 7월 2일 서울 견지동 라온비체에서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99년 1주년 첫 기념법회 이후 이번이 5번째 기념식이다. 국제포교사회는 이날 내부평가서 그동안 외국인 포교환경이 열악해 매년 기념식을 열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고, 앞으로 운영위원과 협의해 정기적으로 기념식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신외균 회장은 기념사서 "과거 한 차례 부도 위기를 맞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리의 사명은 확고하다"면서 "국내·외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려 불교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전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양장운 초대회장이 대독한 축사서 "그동안 국제포교사회 활동이 종단 내외에 활력이 됐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며 "국제포교사 자격증 제도를 확립하고 부설법인을 세우는 등 과거의 성과들이 이어져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희 수습기자

승려 진료비 감면 혜택 부여

보리수요양병원, 조계종 승려복지회와 협약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 보리수요양병원(대표 범우)이 조계종단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 스님들은 보리수요양병원서 외래 및 입원 진료비를 감면받고, 종단은 승려복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적용, 해당 병원서 입원 진료를 받은 스님들에게 입원진료비를 지원한다.

보리수요양병원과 조계종 승려복지회의 협약식은 7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총무부장실서 진행됐다. 이 자리엔 승려복지회장 지현 스님(총무부장), 보리수요양병원 대표 범우 스님·이사 성화 스님이 참석했다.

지현 스님은 "보리수요양병원은 접근성과 시설이 뛰어나다. 지병 수술 후 요양하고 싶은 불자 및 스님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라며 "동국대 일산병원 등 지역 의료시설과도 연계해 기반을 넓히면 좋겠다. 승가복지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제31회 불이상 시상식

불이회, 7월 5일 서울 신라호텔서 개최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7월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31회 불이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실천분야에 좋은벗풍경소리 회장 덕신 스님, 연구분야에 주경미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이 선정돼 상장과 상금 각 2천만원을 받았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선운사, 병신년 하안거 포살법회

강주 재연 스님 법사로 중생교화원력 다져



조계종 제24교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7월 3일 지장보궁에서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강주 재연 스님을 법사로 병신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 등 72명이 동참해 승가본연의 위상과 덕목에 맞는 행위를 점검하고 중생교화 원력을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젠 나도 사찰음식 전문가"

사찰음식 전문인력 양성교육 1기 수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7월 7일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서 '사찰음식 전문인력 양성교육 1기 수료식'을 실시했다. 이론 20주와 실습 4주 과정을 마친 스님 14명과 일반인 21명 등 총 35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7월 30일 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千年古都에 우뚝 선 新 랜드마크

〈천년고도〉

(재)중도, 경주 황룡원 '중도타워' 개원

천년고도 경주에 신라 황룡사 9층 목탑을 재현한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명상과 힐링을 위한 대규모 수행시설이 위용을 나타냈다.

(재)중도(이사장 장세희)는 7월 6일 경주 보문단지 내에 위치한 '황룡원 중도타워'를 언론에 공개하고 "전통문화의 계승 창탈과 한국사회의 정신문화 함양을 위해 명상과 인문학, 답사 등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故장경호 거사 유지 계승해

아들 장상건 회장 건립 발원

2011년 착공, 5년 대작불사

신라 황룡사 9층 목탑 재현

지상 9층 · 69m 위용 '자랑'

명상 · 경주 불교유적 답사 등

7월부터 상설 프로그램 운영

인문강좌 · 전시 등 확대 계획

장경호 거사 불법홍포 유지 이어

(재)중도가 운영하는 황룡원은 동국제강 그룹의 창업자이자 (재)대한불교진흥원의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대중불교 운동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한 장상건 동국산업 회장의 발원에서 비롯됐다. 장상건 회장은 故 장경호 거사의 다섯째 아들이다.

운영 주체인 (재)중도 역시 불법홍포와 한국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수련 시설 건립 · 운영을 목적으로 장상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기도 하다.

중도타워 건립 당시 자문 역할을 했던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교수는 "자문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장상건 회장은 '불교의 요체는 중도'라고 뚜렷이 밝혔다. 불교의 '중도'를 사회적 실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바람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이퇴은 황룡원 원장은 "장상건 회장은 10여 년 전부터 경주 황룡사지를 오가며, 그곳에 있던 9층 목탑을 재현해 현대적 수행공간으로 활용하기를 구상하고 발원했다"면서 "보문단지 내에 부지를 마련하고 2011년 착공에 들어갔고, 이제 일반 대중을 위해 중도타워를 공개하게 됐다. 무엇보다 5년의 공기(工期)동안 크고 작은 사고 한번 나지 않은 것은 모두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겠는가"라고 웃어보였다.

이 같은 발원을 근간으로 한 중도타워는 2011년 7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5년여 불사 끝에 개원하게 됐다. 신라 황룡사 9층 목탑을 재현한 중도타워는 현대식 철골로 구조를 세우고, 목재를 사용한 전통 목조 방식으로 외형을 완성했다.

그 규모 역시 주목할 만하다. 연건평 1,637평, 지하 1층, 지상 9층에 높이는 68m에 달하며, 옆에는 2,700평의 동국산업 연수원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중도타워 곳곳엔 불교문화가

중도타워는 불자와 명상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에게 최적의 장소이다. 1층은 로비와 전시공간, 2층 숙소, 3층 명상실, 4~5층 다목적 교육홀, 6~7층 VIP숙소, 8층 스카이라운지, 9층 법당(대원정사)으로 구성돼 있다.

김개천 국민대 교수가 담당한 내부 인테리어 역시 불교적 요소가 강하다. 당장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석굴암 입구를 연상시키는 조형물이 눈에 띈다. 천정 역시 불교를 상징하는 '卍'자로 디자인돼 있다.

타워 외부 의장에서도 파만자 난간이 사용됐다. 이는 안압지 출토 목부재 파만자 난간 ·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 난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3층 명상실은 현대적으로 만들어졌다. 남녀 출입구를 구분해 편안한 수행복으로 환복할 수 있게 했고, 층고를 낮춰 좀더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 같은 수행시설 건립에는 여러 불교계 인사들의 자문과 지도도 한 몫을 했다. 조계종 원로의원인 통도사 서운암 성파 스님이 대표적이다. 성파 스님은 황룡원의 요청으로 중도타워에 다녀갔고, 법당과 명상시설 건립에 조언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룡원의 현판 휘호를 직접 쓰기도 했다.

상설프로그램 운영… 힐링 명소로

개원 준비를 마친 중도타워는 7월부터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명상실을 활용한 '중도명상'이다.

전통 명상법을 생활인에 맞게 대중화한 '중도명상'은 생활인 과정과 CEO 과정으로 나눠 월 1회 운영된다. 생활 명상 코스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1기를 시작으로 10월 1일부터 3일(2기), 11월 11일부터 13일(3기)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매 기수마다 불국사 부주지 철산 스님, 윤성식 고려대 교수 등의 특강도 진행된다.

CEO 명상코스는 8월 13일부터 15일, 10월 28일부터 30일, 12월 9일부터 11일, 3차례 진행되며, 해인사 백련암 원택 스님,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 등이 특강 강사로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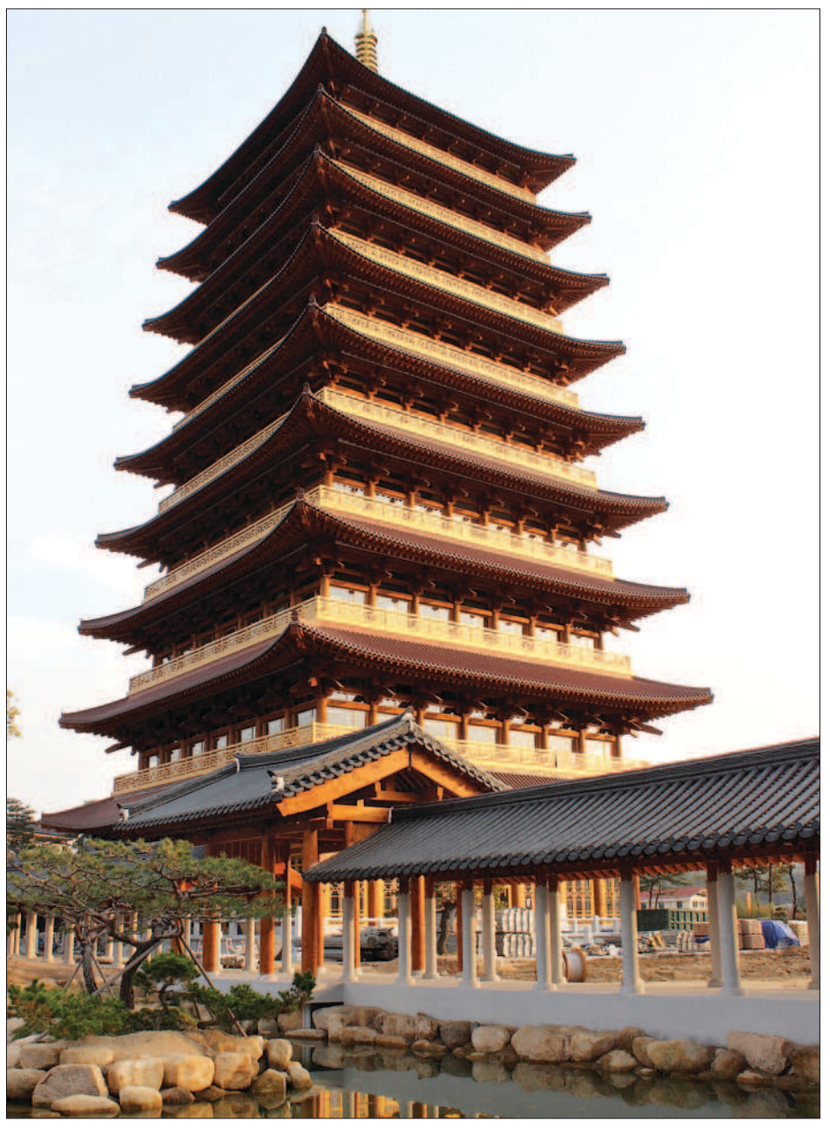
또한, 중도타워는 (사)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과 협력해 경주 남산불적 답사코스도 상설로 진행한다. 남산 불적 답사코스는 신라문화원이 20여 년 동안 운영해 호평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1박2일 코스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중도타워는 7월부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학교, 사찰, 신행단체, 그리고 일반단체에도 실비로 개방해 명상과 인문학 특강, 문화행사, 성지순례, 경주 유적지 답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타워에 대한 일반 관람은 오는 8월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매일 두 차례 개방한다. 신청은 황룡원 중도타워 홈페이지와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이퇴은 원장은 "중도타워는 불교 중도사상의 실천과 한국 정신문화 창달을 위해 건립된 수행시설"이라면서 "우선적으로는 처음 목적대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이후에는 인문 강의, 전시 대관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원을 맞아 처음 열리는 전시는 아직 논의 단계이지만, 현재 통도사 서운암 성파 스님의 작품 전시회를 기획 중"이라며 "대관도 이뤄지는 만큼 성지순례와 답사를 위해 경주를 찾는 많은 사찰과 불교단체 등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054)760-0500

경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주 황룡원 중도타워의 전경. 신라 황룡사 9층 목탑을 재현했다.



중도타워 건립에는 통도사 서운암 성파 스님의 지도가 있었다. 중도타워와 그룹 연수원을 통칭하는 황룡원의 현판은 성파 스님이 직접 휘호를 썼다.



중도타워 1층 로비. 석굴암 입구를 연상시키는 조형물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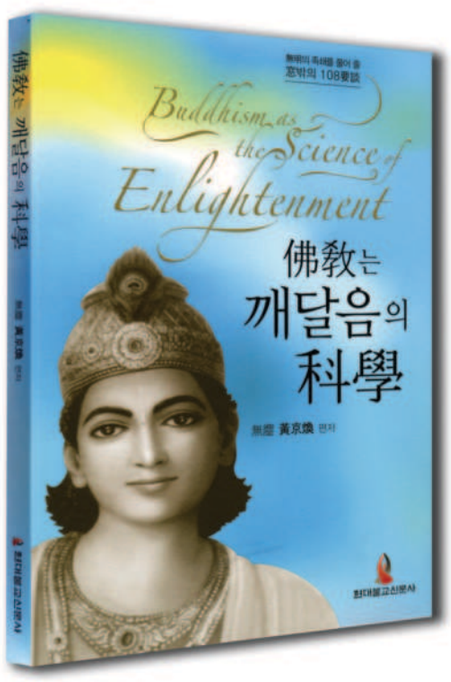


중도타워 3층 명상실. 층고를 낮춰 좀 더 편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중도타워 9층에 마련된 법당. 대원정사 경주분원으로도 활용된다.

근본불교의 마르지 않는 샘에서 길어올린 영원한 자유인의 길



* 무진 황경환 편저 | 신국판 | 280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3

無明의 족쇄를 풀어 줄 窓 밖의 108 要談

佛教는 깨달음의 科學

Buddhism as the Science of Enlightenment

황경환은 하늘이 손수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가 펴낸 수상집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의 원고를 읽어 보며 불교의 참뜻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나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가 원효나 의상 같은 고승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칸트나 헤겔 같은 논리를 가졌다는 말도 아니지만, 신라의 옛 서울에 터를 잡고 작은 사업을 하나 일으켜 최선을 다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본받으려는, 또 하나의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인간 황경환의 모습이 아름다워 이 글을 쓰는 바이다.

—김동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주문
054) 744-8211~2
팩스 054) 744-8213

무진 황경환 선생이 엄선한 주옥같은 108요담을 읽다보면, 많은 경전을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경전에 대한 깊은 통찰에도 새삼 옷깃을 여미게 된다.

—퇴현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

이 책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근본 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그가 인용한 불설은 주로 5부 니까야라는 문헌인데, 부처님의 초기 음성에 대한 가장 가까운 내용들이다. 둘째는 불교 사상의 현대적 해석이다. 과학적 지식이나 사회적 요청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풀어쓰려고 하는 노력이 값지다. 따라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겠고, 또 익숙하게 불교적 신행에 젖어 있는 분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鄭柄朝 (동국대학교 교수, 전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파(世波)가 그대 앞에 닥친다 해도 그것에 정복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오직 이 길을 꿋꿋이 걷고 또 걸어서 언젠가 그대가 의지하고 있는 오온의 쪽배가 가라앉기 전에 반드시 법을 보고 법을 알아 도(道)와 과(果)를 성취토록 하소서."

— 발원문 중에서

"웰다잉이 뭐냐고요? 우리가 알려드려요!"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 교육 재능기부 나눔 사업
15회 교육 후 100명 선발, 복지시설에 파견 예정

"불자라면 내생을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워야 할 텐데 대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좋은 마무리가 무엇인지 배워가겠습니다."

넓지 않은 강의실에 웰다잉(well-dying)을 향한 사람들의 각오가 담긴 육성이 울려 퍼졌다. 7월의 첫 월요일, 서울 불광사 불광교육원의 한 강의실이 웰다잉을 공부하기 위해 찾아온 중년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바로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박순)이 실시하는 '어르신과 함께 희망을 여는 웰다잉 교육 재능기부 나눔 활동' 서울지역 첫 만남이다.

이 사업은 약 한 달간 15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는데 수료자 중 100명을 웰다잉 교육 강사로 선발, 복지시설 · 호스피스 기관 · 요양시설 등에 재능기부 형태로 파견하게 된다. 서울 · 부산(7일 개강) · 대구(16일 개강) 3개 지역에서 교육이 이뤄지며 총 20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했다. 80% 이상 출석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수료증이 발급되지만 파견 강사 선발은 경쟁이다.

첫날 서울지역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80여 명의 참가자들은 한 달간 이어질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원활한 교육과 유대감 형성을 위해 조를 짰다. 이 중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유독 밝은 얼굴로 담소를 나누는 조가 눈에 띄었다. 모두 법명을 갖고 있는 불자들이 모인 3조였다.

"우리는 벌써 얼굴이랑 법명을 다 익혔어요.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 꼭 강사로 선발돼 같이 봉사하자고 약속했습니다!"

3조 조장은 도반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좋은 결실을 맺겠다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조원인 경민숙(66) 불자는 "이 나이에 공부해서 강사가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안 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웰다잉을 홍보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돕겠다"고 다짐했다.


웰다잉 교육 참가자들이 조별 대화에서 자기소개를 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쌓고 있다.

서울 · 부산 · 대구서 200여명 신청
의료 · 실습 등 전문 강의 마련
"웰다잉 문화 저변 확대 노력"

임동희(65) 불자는 "부모님을 다 잃고 보니 문득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100세 시대에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고민하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죽기 전에 남에게 줄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강의는 한국죽음학회 웰다잉 가이드라인 제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현채 서울대 의대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죽음준비교육 의미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2시간가량 강의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춤〉의 서문에 따르면 죽음을 꽉 막힌 벽으로 볼 것인지, 열린 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에 큰 차이가 있다"며 "죽음의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주어진 삶을 더욱 충만하게 향유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내수(60) 불자는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평소 생각지 않았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어질 강의들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은 노인 이해 · 의료 · 실습 · 교수법 등으로 강의를 구성, 전문가 양성을 통해 웰다잉 문화 저변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불교여성개발원 관계자는 "2008년부터 웰다잉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지만 재능기부를 위한 교육은 처음이다. 새로운 형태의 시도를 통해 내로라 할 수 있는 웰다잉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소리 · 색채 · 향기로 하는 이색 심신치유

힐리언스 선마을, 7월 27~31일
'힐링 차크라' 과정

인간 힘의 중심점인 7개의 차크라(Chakra; 바퀴)를 정화시킴으로써 몸 에너지의 조화와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심신 치유법이 개발돼 눈길을 끈다. 이 프로그램은 차크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리 · 색채 · 향기를 이용한다.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촌장 이시형)은 7월 27~31일 '힐링 차크라' 스페셜 과정을 진행한다. 강사진은 이정은 음악심리치유연구소장, 조윤경 윤색채심리연구소장, 김윤탁 한국향기명상센터 대표, 조미현 힐리언스 요가 명상 강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힐리언스 선마을 측은 "이번 프로그램은 각 분야서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희망자들을 위해 한국상담학회 인증 수련시간 30시간을 부여한다"며 "집단 · 개인상담 등 통합적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몸과 마음의 에너지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힐리언스 선마을이 실시하는 '힐링 차크라' 과정서 색깔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컬러테라피'가 진행된다.

먼저 음악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뮤직테라피'를 실시한다. 이정은 음악심리치유연구소장은 현재의 몸과 마음, 정신 상태를 주파수 및 진동으로 설명하면서 참가자들의 에너지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명상음악 및 지수화풍공(地水火風空) 등 자연의 소리를 활용, 마음의 고요함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밖에도 목소리를 활용한 차크라 명상, 침묵명상 등도 함께한다.

이 소장은 "인간의 몸은 물리적인 면 외에 복잡한 에너지 체계로 구성된다. 이 에너지들이 펼쳐진 상태가 바로 현재의 '나'"라며 "이를 점검하고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설명했다.

'컬러테라피'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심리 상태에 적합한 색깔을 찾고, 그 색깔을 통해 일상생활의 심리적 안정감을 얻도록 돕는다. 힐리언스 선마을 측에 따르면 스트레스 해소엔 녹색, 우울감 해소엔 빨강 · 주황 · 노랑 등 따뜻한 색, 다이어트엔 파랑 · 보라색, 불면증엔 남색 · 보라색이 권장된다.

조윤경 윤색채심리연구소장은 "색채의 자극은 시신경을 통해 대뇌에 전달돼 성장조직으로 연결된다. 필요에 따라 선별된 색을 활용하면 생기 · 휴식 · 진정의 효과가 나타난다"며 "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흐트러진 심신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향기테라피'는 식물서 추출한 오일의 향을 코로 흡입하거나 피부에 바르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신경계가 자극되고, 오일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며 신체 기능 활동을 촉진한다. 특히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아로마 오일을 직접 만드는 시간도 갖는다.

김윤탁 한국향기명상센터장은 "향을 통해 무의식에 감춰진 아픈 기억을 치유할 수 있다"며 "향기오일로 차크라 파동을 조율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의 1588-9983 힐리언스 선센터 www.healience.com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장병들 곁에서 불법홍포 진력"

군종교구, 신임군승 임관 및 고불식


장궤합장한 채 부처님전에 고불문을 올리고 있는 신임군승들.

신임군승 11명이 군장병들을 위한 불법홍포에 매진할 것을 서원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7월 1일 충북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서 2016년 신임군승 임관식 및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공식 임관한 신임 군승들은 지난 4월 괴산 학생군사학교에 입대해 6주간 군사교육을 받은 뒤 지난달 육군종합행정학교서 군종장교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올해 임관한 신임 군종장교는 군승 11명, 군목사 19명, 군신부 18명, 군교무 1명 등 총 49명이다. 특히 2014년 창군 최초 비구니 군승으로 임관한 명법 스님과 지난해 임관한 균재 스님에 이어 올해는 혜능 스님이 임관했다. 스님은 임관식에서 해군참모총장상을 수상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장도에 오르는 여러분을 축하한다"며 "복무기간동안 신심과 원력으로 늘 환희법열 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눌지 유태영 군승은 "타종교 성직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됐다"며 "임지에서 장병들에게 친근히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전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생명나눔, 음악으로 환자들에게 희망을…

7월 1일 동국대 일산병원서 '제7회 한다솜 희망음악회'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7월 1일 동국대 일산병원 1층 로비서 '제7회 한다솜 희망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엔 이사장 일면 스님, 동국대 일산병원 법당 지도법사 증휘 스님, 오민구 동국대 병원장, 태석기 동국대 의료원장, 가수 아웃사이더와 배우 김용림 · 김혜옥 등이 참석했다.


홍보대사 가수 아웃사이더와 배우 김용림 · 김혜옥 씨가 환자들을 위로 방문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음악을 들으며 얻는 즐거움은 곧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고, 희망이 된다"며 "환우들이 잠시나마 고단한 투병생활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명나눔은 유방암 환자 박인자(82 · 여)씨, 당뇨병성 족부병증 환자 안병근(62 · 남)씨, 흡인성 폐렴 환자 이재슬(62 · 여)씨, 대퇴골 골절 환자 신정순(80 · 여)씨에 대해 치료비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동국대 참사랑봉사단 장학금 수여식,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 캠페인 등도 진행됐다. **박아름 기자**

청년백수들이여, 조선 백수에게 배워라

진흥원 7월 화요열린강좌에 '조선 백수 지성 탐사'

어떤 삶을 살았을까. 청년 백수 100만 시대에 옛 백수 조상들의 삶은 어떤 메시지를 줄까. 진흥원 '화요 열린강좌'가 7월 19일 오후 7시 마포 다보빌딩서 '조선시대 백수'를 주제로 열린다.

강사로는 길진숙 고전문학 연구자가 나서 자신이 쓴 〈18세기 조선의 백수 지성 탐사〉 속의 노론의 농암 김창협, 남인의 혜환 이용휴 등 다양한 조선시대 지성인들을 고찰할 예정이다.

길진숙 연구자는 이화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서 고전문학을 전공, 현재 남산강학원 연구원이다. 주요 저서는 〈조선전기 시가예술론의 형성과 전개〉, 〈고전 톡톡〉 등이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화요열린강좌 네이버 카페(cafe.naver.com/dharin.cafe)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진흥원 측은 "18세기 조선의 지성은 가난하고 불편한, 그러나 한없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이들이었다"며 "백수 시절이야말로 지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는 시기"라고 전했다. (02)719-2606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선무도 화랑학교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49회)에 함께 하세요.

불교강의와 인성교육, 명상과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의 영어강의 등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입니다.

언 제 2016년 7월 24일~2016년 8월 20일
모집인원 60명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교. 토요일 12시 퇴교
대 상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운영)
준비물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우산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수련회비 1주-35만원 / 2주-70만원 / 3주-90만원 / 4주-11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예약·문의 054-775-1689 / 744-1689
www.sunmudo.com
♣ 수료식은 골굴사 선무도 대학에서 토요일 11시에 합니다.

◉ 기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불교강의, 108배
◉ 영어캠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영어캠프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 매주 색다른 생태순례 : 감포깍지길걷기 / 토함산 풍차마루 트래킹 / 벽화마을,주상절리길 / 박물관 및 경주문화유산탐방
◉ 자아성찰 : 자비관 명상, 자자회, 자기바라보기

1500년 전통사찰·연간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학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3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7월 30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8월 1일 (월요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내가 느끼는 自我는 진짜가 아니다

참불선원 강좌… 불교와 뇌과학으로 조명한 '자아와 무아'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세상 모든 것은 찰나의 연속이고 집합이다. 우리가 믿는 '자아(自我)'는 어떨까? 불교는 자아를 부정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나'를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는 7월 4일 열린 참불선원 불교인문학 대강좌에서 '불교와 뇌과학으로 조명한 자아와 무아'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자아는 뇌가 만들어낸 가아(假我)이고, 실재하는 것은 매순간 일어나는 체험의 연속일 뿐"이라며 "결국 뇌과학은 불교의 무아설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리=이승희 수습기자



김성철 교수는… 서울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에서 〈용수의 중관논리의 기원〉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앙승가대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강사를 거쳐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티벳장경연구소장,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 계간지 〈불교평론〉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뇌과학 길잡이 '불교철학'

저는 불교학자로서 뇌과학에 대해 불교적 해명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여 년 동안의 연구결과를 모아 공부하면서 얻은 성과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전세계 종교철학 중 유일하게 불교만이 '자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를 인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에 대한 뇌과학적 설명과 더불어 왜 그러한 설명이 허구적인지 불교적 관점에서 해명해보겠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철저히 유물론적 입장에서 뇌를 다룹니다. 다시 말해 내세, 영혼, 마음 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백질 덩어리인 뇌에서 나온 부산물로서 '정신'을 정의합니다. 이런 뇌과학이 이뤄놓은 성과가 엄청나므로 이와는 반대의 논의를 펼친 타 종교들은 벌써 예전부터 논리적 타당성을 의심받고 신뢰를 잃었습니다. 물론 뇌과학자들은 객관적 증거로 확인이 불가능한 영혼이나 내세 같은 개념을 과학적 관점에서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이 과학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교철학 중 불교만이 유일하게 뇌과학의 허술함을 설명하고, 길 잃은 현대과학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단 마음의 기원에 대한 설명부터 두 영역은 매우 다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물리적 뇌로부터 마음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진화 과정에서 뇌가 생긴 이후에 이전엔 없던 마음이 생겼다는 가설을 '창발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 화엄학에서 마음이란 뇌로부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바깥 풍경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망막입니다. 망막의 한 점이 넓은 세계를 수용하고, 이 작은 망막 구멍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아주 작은 한 점에 세상이 모두 담길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 한 알의 티끌 속에 시방 세계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유물론적 관점의 부작용

앞서 말했듯이 현대과학은 마음 혹은 자아란 인류 진화과정에서 생긴 뇌로부터 창발한 존재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뇌의 기능이 정지하면 우리의 마음도 사라집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내생이란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부처님 이전 시대 고대 인도에도 이와 같은 유물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속에 순응하는 이들 학파를 '짜르와까'라고 불렀습니다. 창시자는 브리하스빠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리하스빠띠는 "천국도 없고 해탈도 없으며,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다. 사성(四姓)계급 속에서 직분을 다해도 그 어떤 효력도 생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행복하게 살게 하고, 빚을 내서라도 버터를 먹게 하라. 일단 몸뚱이가 재가 되면 어찌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는가"라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같은 학파의 대표적 인물인 아지따 께사깜발린은 "인간이란 땅, 물, 불, 바람의 4가지 요소로 이뤄져 있다. 사람이 죽으면 각각의 요소로 다시 되돌아간다. 상여꾼들이 아무리 송덕문을 읊어도 결국 하얗게 탄 뼛조각만이 남는다. 공덕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거짓말이고 부질없는 헛소리다. 바보든 현자든 육체가 무너지면 완전히 사라진다. 죽음 후에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나는 뇌가 부속품이 망가지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진 컴퓨터에게 천국이나 내세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꾸며낸 얘깁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철학자 존 설은 "의식이란 광합성, 음식물 소화, 세포 핵분열과 같은 생물학적 현상이다. 인간이나 짐승 두뇌의 놀라운 생산물이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사상들을 '인중무과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인 속에 결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인중유과론'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브라만이란 절대자의 반영체라고 주장하는 고대 인도의 사상들입니다. 불교는 이들 모두를 부정합니다.

현대과학은 철저히 인중무과론을 반영합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이 TV에 나와서 '인생을 즐겁게 사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같은 의견을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즐겁게 사는 것보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소임은 올바른 삶을 이끄는 것인데 최근 들어 그 역할이 많이 줄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잘먹고 잘살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져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절대로 객관화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양 철학자들이 '감각질(Qualia)'이라고 부르는 주관적 체험입니다.

뇌과학자 '자아는 뇌에서 창발'
죽으면 허무… 쾌락적 삶 주장,
화엄학서 자아는 찰나적 경험
실재 향한 집착 끊어야 '해탈'

예를 들면 내가 맛본 소금의 짠 맛을 남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서양 철학자들은 남과 공유하는 객관의 세계와 나만 알 수 있는 주관의 세계로 나눠서 설명하지만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남과 공유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나의 관점만이 있을 뿐입니다. 감각질과 감각질이 아닌 것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사유방식의 첫단추를 끼우는 행위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절대 나를 대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眼耳鼻舌身意 色聲香味觸法)'은 감각기관이 있은 후에 감각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핸들을 잡고 앞유리로 바깥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보는 바를 남과 비교할 수 없어 열등감이 생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유일무이한 절대적 체험이 됩니다.

핸들을 잡고 앞만 보는 이들은 비교하지도 않고 따라서 잘난체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부처님은 어떤 두려움 없이 노숙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자동차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시선이 만연할수록 높아지는 자살률이 우리 사회가 불행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앞장서서 자동차 핸들 잡듯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중심이자 주인공이라고 알려야 합니다.

한 점이 빚어낸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 곳이든 다 양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 점일 뿐이지만 이 한 점에는 모든 것들이 주관적으로 투영될 수 있습니다. 주관과 객관은 생명체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세계의 속성입니다. 화엄의 핵심을 의상대상 법성게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법성게는 '한 톨의 먼지 속에 온 우주가 담겨있고, 낱낱의 먼지마다 다 그러하다'고 적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비추는 거울 구슬이 인드라망의 그물에 빼곡히 차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구슬은 다른 구슬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구슬 하나에 점 한 개만 찍어도 모든 구슬에 점이 찍힐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범한 세상이 아닌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이라고 일컫습니다. 세상은 어디든 완벽하고, 어디든 중심임을 알려주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건은 발생하는 순간 우주에 가득찹니다. 방 안에서 다이얼만 맞추면 전 세계 어떤 방송이든 볼 수 있고, 전화를 걸면 통화가 가능한 이유는 방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오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오고 있으니 호랑이 얘기를 꺼내게 된 겁니다. 우리 뇌는 수신기와 송신기 역할을 합니다. 의미의 세계는 전부 다 전기 자극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반복된 행동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기도를 간절히 반복하면 하늘에 닿는 이치가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관과 객관 중 어느것이 선행할까요? 지렁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진화 초기에 지렁이처럼 단순한 생명체에게는 주관만이 존재합니다. 이후 복잡한 감각기관이 생기면서 외부를 향한 시선을 통해 비로소 객관이 구성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현대과학은 물리적 외부 세계가 원래 존재하고 나중에 개별적 생명체에 의해서 주관 혹은 마음이 생겼다고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동설'과 비슷한 주장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시각도 '지동설'의 등장처럼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MRI는 뇌 혈관 속 산소농도를 측정해 활동중인 뇌 부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나의 자아가 집중하는 부분을 확인 가능한데, 대부분 한 순간에 하나의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마음을 한 점 식에 모을 때 그 의식이 육체에 반영된다는 불교적 설명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단절없이 이어집니다. 뇌파가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의식은 계속됩니다. 다만 기억하지 못한 꿈의 내용처럼 매 순간을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아침 8시에 있었던 일을 기억할 수 있나요? 혹은 매번 바뀌는 근육의 움직임, 찰나의 생각들을 모두 기억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잠에서 바로 깬 순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의식에 단절이 없다는 뜻은 모든 의식이 '연기(緣起)'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어떤 물체가 크다고 느끼는 것은 이전에 작은 물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찰나에 일어나는 사물의 속도와 위치의 변화입니다. 의식이 사물을 미분해 속도를 계산해 감각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움직임이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찰나의 움직임은 한 점이 1초에 75번 진동함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우리 세상 전부는 점과 찰나의 조합이 만들어낸 가상의 흐름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자아는 뇌가 만들어낸 '가아(假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실재하는 것은 매순간 일어나는 체험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렇게 뇌과학은 불교의 무아설(無我說)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해탈이란 뇌의 감성적, 본능적, 이성적 영역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경우를 가리킵니다.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아 모든 감성, 본능, 이성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열반에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주 강의 소개

주제 : 불교와 민족경전 천부경
강사 : 비로선원장 광명 스님
문의 : 1577-3696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핸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핸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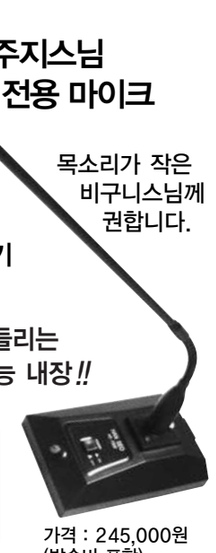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한국불교 중심 새 국제단체 설립 필요”

교불련, 7월 5일~7일 부산서 교수불자대회 개최

한국불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모색하며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불교 특색과 포교 방향 그리고 선결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 · 이하 교불련)는 7월 5일~7일 부산 삼광사와 송정 약사선원에서 ‘2016년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하고 ‘한국불교 세계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는 ‘조계종의 국제화 전략- 문제점과 방향’을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조계종 국제화 전략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짚었다.

김 교수는 조계종 국제화 포교 전략의 문제점으로 국제포교 전담 기구 부족과 해외 포교 전문 연수기관 전무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발전방안으로는 △국제불교교육연수원 설립 △교구 본사별 해외특별교구 사찰 건립 △국제포교를 위한 외국어 전문 교육 △한국불교 중심의 새 국제불교 단체 설립 등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조계종의 국제업무 조직과 인력은 지구촌 시대를 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국제 교류와 국제포교 정책을 비롯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과 국제포교 전담 기구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불교교육연수원을 설립해 국제포교인력의 외국어와 해외포교 실무 등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남방불교권 재가단체인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 조계종이 공식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종단 위상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국제불교 단체 설립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세계불교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불교행사를 통해 불교의 종주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불교는 종단 대표의 수동적 참석 위주의 교류에 머문다”고 지적하고 “조계종이 중심이 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서 새로운 국제불교단체를 창설해야 한다.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불교가 세계불교를 이끌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세계에 기여하는 한국불교를 위해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7월 5일~7일 부산 삼광사와 송정 약사선원에서 ‘2016년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하고 ‘한국불교 세계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용표 교수, 조계종 국제 전략 분석
“전담부서 적고, 연수기관 전무” 비판
국제단체 창립 · 외국인 포교 등 나서야

200여 불자 교수, 韓불교 세계화 논의
포교 · 문화 · 공동체 통한 전략 제시
30개 논문 발표… 역대 가장 많아 ‘눈길’

박 교수는 “한국불교를 돌아본 결과 가장 큰 특징은 원광대사의 세속 5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원광대사의 세속 오계는 유불(儒佛) 사상으로 출가와 세속이 함께한다는 사상이다. ‘정혜쌍수’라는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세속오계를 융합하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교수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으로 강조해야 할 부분은 ‘승가의 청정수행 전통’을 꼽았다. 박 교수는 “일본과 중국과 비교해 현재 한국은 청정 수행 법통이 살아있다”며 “‘생명친화적, 자연친화적, 청정 수행의 법통’을 지켜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는 세계와 소통하는 ‘세계 통(通)불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역사상 가장 많은 30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먼저 △한 · 중 · 일 특별회의 △한국불교종단의 국제화 특별회의를 통해 아시아 한 · 중 · 일의 세계화 사례를 풀어내고 조계종을 비롯해 천태종, 진각종, 태고종, 원불교 등 각 종단의 국제화 전략을 모색했다.

또한 △한국불교의 포교 활동 △한국불교문화의 세계화 △한국불교와 지역 공동체 등 분과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자유주제와 ‘아시아 불교’ 분과도 추가해 폭넓은 방향으로 진행했으며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불교미래포럼’ 및 ‘대학불교 네트워크’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대회에는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보리선수 약사선원 진푸티 상사, 신뇨엔 원주 이토 신소 대승정 및 심익섭 교불련 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 전 진행된 입재식에서 심익섭 회장은 “치열한 담론을 통해 한국 불교 세계화 전략을 위한 기본 선결 과제를 알고 세계 속의 한국불교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 하성미 기자

‘고려 수월관음도’ 등 성보, 보물 지정 잇달아

문화재청, 7월 4일 4건 지정 공고
산청 납석사리호 지정 명칭 변경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등 불교 문화재가 잇달아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고,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의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변경했다”고 7월 4일 밝혔다.

보물 제1903호 ‘고려 수월관음보살도(高麗 水月觀音菩薩圖)’는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입법계품의 내용 중, 선재동자가 보타락가산에 머물고 있는 관음보살을 찾아가 깨달음을 구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선재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두루 찾아다니며 진리를 터득했다는 인물로, 이 그림은 28번째 선지식인 관음보살과의 만남을 표현했다.

화면 가운데에는 이중의 둥근 광배를 갖추고 수정염주를 굴리며 보타락가산의 금강바위에 반가좌로 앉은 관음보살이 압도적인 크기로 묘사됐으며, 향 왼쪽 하단에는 무릎을 구부려 합장하며 보살도를 묻는 선재동자를 조그맣게 표현했다.

사선으로 배치된 두 주인 공간의 무한한 공간감, 고려 시대 수월관음보살도에서 자주 보이는 청죽(靑竹) · 바위 · 정병(淨甁) 등의 세련된 표현과 짜임새 있는 구성력은 고려 후기 수월관음도의 전형적인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물 제 1903호로 지정된 고려 수월관음도

보물 제1904호 ‘김천 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金泉 葛項寺址 東 · 西 三層石塔 出土 舍利莊嚴具)’는 1916년에 갈항사 터의 동 · 서 삼층석탑을 경복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동탑 기단부에는 758년(경덕왕 17)에 언적법사(言寂法師)와 조문황태후(照文皇太后) 등 그의 두 누이가 함께 발원하여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이 사리장엄구도 탑을 건립할 당시에 봉안한 것으로 추정돼 통일신라 사리장엄구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보물 제1905호 ‘서울 청진동 출토 백자항아리’는 2009년 종로구 청진동 피맛골에서 일괄 출토된 순백자항아리 3점으로, 출토지가 명확한 조선 전기 백자라는 점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보물 제1906호 ‘대명률(大明律)’은 조선 왕조의 법률, 특히 형률(刑律)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는 사리호가 봉안됐던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보물에서 국보 제233-1호로 승격 지정됨에 따라 불상과 사리호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하고자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사리호는 국보 제233-2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납석사리호’로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변경됐다. 신성민 기자

경영자라면 ‘불교리더십’ 배우세요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리더십 최고위 과정 모집

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종호)는 ‘제24기 불교리더십 최고위(CEO) 과정’을 모집한다.

‘불교리더십 최고위 과정’은 동국대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고급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해 사회 리더들이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배우고 참다운 리더십을 정립하게 하는 불교대학원 특별 과정이다.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9기)부터 이오규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21기), 정부석 삼성전자 상무(18기) 등 적지 않은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가 최고위 과정을 수료했다.

최고위 과정에는 사찰 예법부터 경전 개론, 요가, 명상, 간화사 등 수행 체험을 비롯해 불교와 인접학문들의 만남 등의 강의가 이뤄진다. 또한 명사 특강, 고승 초청 법회, 템플스테이, 해외성지순례 등도 진행된다.

최고위 과정은 오는 8월 12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대상은 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사회 지도자급 인사다. (02)2260-3096 신성민 기자

문화재청,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공모

8월 31일까지 접수

문화재청(청장 나선과)이 문화유산의 보존 · 연구 · 활용 분야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를 발굴 · 포상하기 위해 ‘2016년도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은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문화 분야 최고 영예인 △문화훈장(2005년~현재) △대통령표창(2014년~현재, 2004~2013년은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수여)으로 나누어 수여된다.

포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개인 · 단체 · 기관 등에서는 추천서와 정부포상 동의서 등을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8월 31일까지 문화재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9월부터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공개검증을 거쳐 12월8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042)481-481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동고당 문성 스님, 불교 정화의 사표(師表)”

제1회 문성 대종사 생애와 사상 조명 학술대회 개최

개항부터 경술국치,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까지 근·현대 100년 역사는 불교계에도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 질곡의 세월 속에서도 부처님 정신을 지켜내며 정화에 앞장서 왔던 문성 스님(1897~1997)의 업적을 조명한 자리가 열렸다.

부산 동명대 세계선센터(선원장 수진)는 7월 2일 동명관 4층서 ‘제1회 문성 대종사를 그리는 학술대회 동고당 문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개최했다. 이 자리서 선원장 수진 스님은 문성 스님의 생애는 ‘불교 정화의 삶’ 그 자체임을 강조했다.

수진 스님은 “당시 조선총독부가 33본산 주지를 임명했는데 문성 스님은 그 가운데 친일 승려인 강대련을 명고 축출했다. 조선총독부에 정면으로 맞선 이 사건으로 징역을 살고, 고초를 겪었다”며 “당시 불교청년유신회 필두에서 탈 일본, 탈 일본불교를 외치며 피눈물로 저항한 스님의 나이는 22세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진 스님은 “문성 스님은 평소 ‘나의 원칙과 근성은 은사였던 서응 스님의 곡직함과 만해 한용운 스님의 민족적 자존에서 기인한다’ 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화 정신으로 사신 분”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 수진 스님은 문성 스님의 불교 정화운동에 대해 언급했다. 수진 스님은 “문성 스님은 풍전등화인 종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셨다. 고성 옥천사를 정화한 후엔 범어사 동산 스님과의 인연으로 범어사 주변 뿐 아니라 마하사까지 무혈로 정화 하셨다”며 “통합종단 출범 후에는 감찰원장으로 추대되어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애쓰셨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선 문성 스님의 계율 정

일제 치하 온갖 고초에도
탈 일본·탈 일본불교 주장
불교 정화운동에도 힘써
청빈한 삶, 모범으로 ‘재조명

신과 수행 및 보살도, 그리고 청빈 사상을 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발표는 △근대와 전통의 갈림길을 넘어선 원력의 방향(석길암 동국대 교수) △동고당 문성 스님의 계율정신(황정일 동국대 외래교수) △동고당 문성의 교학 인식과 선법 이해(고영섭 동국대 교수) △동고당 문성의 밥 살림과 차 살림(김영덕 위덕대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논평에는 원영상 원광대 교수, 김준호 울산대 교수, 박재현 동명대 교수, 장재진 동명대 교수가 참여했다.



부산 동명대 세계선센터는 7월 2일 동명관 4층에서 ‘제1회 문성대종사를 그리는 학술대회 동고당 문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개최했다.

황정일 교수는 “근현대 한국불교에서 문성 스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욕지족(所欲知足)과 방하착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신 분”이라며 “은사 서응 스님에게 32마지기에 이르는 농토를 물려받았지만 농민과 제자들에게 대가 없이 나눠주셨다”고 일화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권력욕에도 초연하신 모습은 이 시대 큰 귀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준호 교수는 “문성 스님은 〈화엄경 보현해원품〉을 항상 수지 독송하고 실천한 보현행자 그 자체”라고 말했다. 또한 고영섭 교수는 “문성 스님은 교학 및 선법에 대해서도 대선사이며 대강백 그리고 강사였고 율사이기도 했다”고 마무리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에 대해 수진 스님은 “문성 노사의 곡직하고 청빈한 삶을 후학들에게 전해 이 나라와 종단이 정화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길 바란다”며 “걸림 없이 자유로웠던 스님의 삶과 사상을 인지하고 알리는 것은 의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수진 스님(동명대학교 석좌교수),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출산, 생명의 소중함 몸소 실천하는 길”

삼광사, 7월 1일 출산장려 토크 콘서트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가 생명의 소중함을 역설하며 출산 장려운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천태종 삼광사 (사)나눔광장은 7월 1일 삼광사 지관전서 ‘출산장려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삼광사 총무국장 도선 스님과 김경희 동부산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심상천 부산시 출산보육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천태종 삼광사 (사)나눔광장은 7월 1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출산장려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도선 스님은 출산이 곧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사상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불교 내 만남주선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교수는 “최근 출산과 양육을 독려하기 위해 출산 지원금 및 지원 용품 등 후원책이 생겨나고 있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 정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다문화·한부모·조선 가정 등에 대한 지원도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심상천 과장은 부산시 출산보육 시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불자들은 토크콘서트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정립한 계기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미(51) 씨는 “나라의 존속이 걱정될 정도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을 직접 들으니 염려가 된다”며 “현재 정부가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젊은이들이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선희(52) 씨는 “시대 흐름과 문제를 함께 직시할 수 있어 의미 깊은 자리였다”며 “생명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따지는 요즘 세태가 안타깝다. 앞으로 자리를 많이 만들어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총무국장 도선 스님, 최주덕 삼광사 신도회장, 김미규 천태삼광 차문화 보존회장, 강태영 세계여성평화그룹 동부지부 본부장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결혼이주여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증보 출판기념회

7월 2일 500여명 참석 ‘성황’



불교는 종교인가, 과학인가? 이 물음에 대해 황경환 회장((주)진양유조선 대표이사·사진)는 “불교는 부처님께서 인간의 삶과 고통, 죽음의 이치를 풀어낸 최고의 과학”이라고 설명했다.

황경환 회장은 7월 2일 경주 코오롱 호텔 오운홀서 책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증보판 출판 기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황 회장은 “불교의 자비를 모든 생명을 위해 실천한다면 우주와 모든 생명이 나의 원군이 될 것”이라며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실천해 오늘 자리한 모두가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이날 자리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김관용 경북도지사, 강길부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 최양식 경주시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회장님의 말씀은 바삐 달려가던 제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경봉 스님 불교 인재불사 뜻 이어”

34주기 추모다례재서 장학금 총 3,800만원 전달


경봉문도회는 ‘34주기 경봉 스님 추모 다례재’서 장학금 총 3,800만원을 전달했다.

경봉문도회(대표 법산)는 7월 1일 통도사 극락암서 ‘제34주기 경봉 스님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경봉문도회는 동국대 박사 과정(2명)·동국대 석사과정(9명)·능인불교대학원(1명)·동국대 학사과정(12명)·중앙승가대(8명)·동양대학(1명)·동원과학기술대학교(1명) 총 34명에게 100만원, 통도사 승가대학(8명)에게 500만원, 총 3,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극락암 호국선원·보광선원·서운암 무위선원에 수행지원금과 영축율원승가대학원 연구비로 총 800만원을 지원했다.

경봉문도회 대표 법산 스님은 “오늘 자리한 모든 사람들이 경봉 스님의 긍지와 법문을 마음에 새기고, 후학들은 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학업에 더욱 매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봉문도회는 살아생전 불교 인재 불사의 뜻을 강조한 경봉 스님의 뜻을 이어 가며, 매년 학인 스님들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운문사, 논산훈련소 수계대법회 봉행

7월 2일 호국 연문사서… 수계법사 회주 명성 스님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가 7월 2일 호국 연문사서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가 7월 2일 호국 연문사서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대법회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주지 진광 스님, 호국 연무사 주지 자운 스님을 비롯해 장병 3,500여명이 동참했다.

명성 스님은 “계는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는 의미”라며 “오늘 계를 받은 군 장병들이 생사윤회로부터 해탈의 문으로 이끄는 삼귀의와 오계를 지키고, 호국불교 정신으로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은 ‘성심으로 하지 않은 일은 진실할 수 없다’는 평소 철학을 바탕으로 수행을 이어오고 있다. 운문사서 배출한 학인스님만 2,000여명에 달한다. ‘법계문학상’, ‘법계장학금’, ‘법륜비구니 장학회’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제2차 평온 공개강좌
말법시대의 현성공안 만을
선정하여 라이브로 공개강좌 하다
고통 & 병통 해탈법
• 공 개 강 좌 일 시 :2016년 8월 31일 (수) 오후 3시
• 공 개 강 좌 장 소 : 화엄경 강원 (대구 수성구 소재)
• 참석대상 및 참가비 : 누구나, 선착순 33명 제한, 참가비 무료
• 예약신청 및 문의처 : 1899-9532 (예약접수 하신 분만 참석 가능 함.)
평온센터 부설-
화엄경 강원
방장 진귀


“젊은 스님 위한 전통의식이 포교”

광주영산재 전승관 건립 나선 월인 스님



“부처님 밥을 먹으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의식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젊은 스님들에게 역대 조사스님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의식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의미의 포교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영산재를 이끌며 영산재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월인 스님(광주전통불교영산회 회장, 법륜사 주지 · 사진)이 전승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화제다. 스님은 현재 광주 서구 벽진동 일대에 2000여 평의 대지를 구입,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전승관을 건립하고 있다.

벽진동 일대는 인근에 군사시설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도심지역 개발이 유력한 곳 중 하나다. 현재 광주전통불교영산회는 월 1회의 교육활동과 특별교육, 하계수련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승관이 없어 사찰별로 나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월인 스님은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한 상태이며, 건물 신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문화와 예술을 중요시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불교 전통의식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의식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만드는 이유는 스님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쉽게 우리 문화자산을 접할 수 있도록 대중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는 2009년 8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광주광역시는 2014년 7월 ‘광주영산재’를 시 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바라분야 월인 스님 · 범음분야 혜령 스님 · 범패분야 호산 스님이 기능보유자로 활동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즈넉한 山寺서 새기는 금연 다짐

고창 선운사, ‘금연으로 빛나는 템플스테이’
6~7월, 두 차례 걸쳐 지역주민 대상으로



선운사 금연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지역주민이 금연상담사와 1대1 개별상담을 하며 맞춤형 금연지도를 받고 있다.

금연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창 선운사가 무료 금연 템플스테이를 열어 눈길을 끈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지난달 10~11일에 이어 7월 1~2일에도 경내서 ‘금연으로 빛나는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각각 20여 명이 참가했다.

금연 템플스테이는 원광대학교병원 국가지정 센터로 운영 중인 전북금연지원센터(센터장 오경재)가 선운사와 함께 흡연자 중 금연을 시도하려는 전라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금연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지역 금연율을 높이는 동시에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첫날 면티와 메모지, 펜, 가글액, 은단, 물티슈, 금연파이프, 아로마 금연스틱, 허브캔디 등 금연보조용품을 지급받고, 각자 자기소개를 하며 금연의지를 다졌다. 이후 한아름 원광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의 금연특강이 이어졌다.

한 교수는 “금연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본인의 의지이다”며 “식사 후에 담배 생각이 나면 껌을 씹거나 녹차를 마시거나 양치질을 하라”고 조언했다. 또 금연을 시작하는 것보다 금연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박2일간 맞춤형 금연상담
참선 · 명상 등 불교프로그램도
수료 후 금연클리닉 연계해
6개월간 금연보조제 등 지원

고등학교 졸업 후 30여 년간 흡연해온 박모 씨(48세)는 “매일 하루 1갑 정도 흡연을 해왔는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권유로 금연을 결심했다. 쉽진 않겠지만 꼭 금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만세루로 자리를 옮긴 참가자들은 전북금연지원센터 소속 상담사들과 1대1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개인별 하루 평균 흡연량과 운동여부, 건강 상태와 음주량 등을 체크하는 금연 클리닉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각자 참가자 성향에 맞는 금연 보조제를 처방하는 등 맞춤형 금연지도가 이어졌다. 또한 예불, 참선, 명상 등 불교관련 프로그램과 소감문 형식의 편지쓰기를 통해 금연성공을 다짐했다.

오경재 전북금연지원센터장은 “이번 금연 템플스테이를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면서 내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금연을 시도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성호 선운사 템플스테이 팀장은 “고즈넉한 산사에서 절제된 생활을 통해 금연의 의지를 높이는 것이 이번 템플스테이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연캠프 템플스테이 수료 후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화를 연계해 6개월간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지원한다. 수료 후 2주 이내 지역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방문해야 하며 6개월 금연성공 시 기념품이 제공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학인스님들 공부에 보탬 되길”

구구장학회, 송광사에 장학금 500만원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도를 닦기 위해 전념하는 학인스님들을 위한 장학금이 전달됐다.

봉은사 신도들로 구성된 구구장학회(회장 이은주)는 7월 4일 승보종찰 송광사를 찾아 장학금 300만원과 강원 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위〉 40여 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기금은 학인스님 3명의 장학금과 강원 운영에 사용된다.

구구장학회는 지난 2010년 봉은사 신도들을 주축으로 구성돼 현재 40여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매월 1회 군부대 지원, 선방 대중공양, 직지사 수계식 공양 등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날 제1회 구구장학금 전달식에 이어 하반기에는 청암사에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은주 회장은 “강원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을 평소 느꼈다. 젊은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곧 불교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승가대 학장 연각 스님은 “신도들의 십시일반 기금의 의미를 살려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며, 불자들의 마음을 알아 훌륭한 스님들을 배출하는 데 정진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장사 우화정, 전통한옥 정자로 재탄생

목조양식으로 6월 30일 준공



우화정 준공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 테이프를 절단하고 있다. 뒤로 보이는 전각이 우화정.

내장산국립공원 내 우화정(羽化亭)이 전통한옥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내장사(주지 도완)는 6월 30일 주지 도완 스님, 내장사 포교국장 덕연 스님, 김생기 정읍시장, 우천규 정읍시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장산 명물인 우화정 준공식을 개최했다.

기존 콘크리트 양식에서 전통한옥의 멋스러움이 돋보이는 목조 팔각지붕 형태로 새롭게 태어난 우화정은 호수 가운데 자연석 석축 위에 화강석 기단을 갖춘 24.44㎡ 규모로 시도비와 내장사 자부담 4억5000만원 예산으로 준공됐다.

통로는 기존의 방식 그대로 자연석을 이용한 징검다리로 만들어졌다. 전체적으로 우화정을 감싸고 있는 호수, 내장산의 수려한 산세와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다는 평이다.

우화정은 지난 1965년 건립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5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화돼 안전이 우려되는데다 그동안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내장사와 정읍시는 기존 우화정을 철거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내장산의 자연경관에 걸맞은 전통한옥으로 개축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9월 설계를 시작해 9개월여 만에 준공했다.

도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날개가 돋아 승천했다는 우화정이 갖는 전설을 기억해야 한다” 며 “우화정이 내장산과 내장사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생기 시장은 “오랜 세월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아온 우화정이 철거돼 아쉽지만 새롭게 건립된 전통한옥 우화정이 국립공원 내장산의 랜드마크이자 전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자에 날개가 돋아 승천했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우화정은 내장사 입구 호수에 자리하고 있어 내장산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출사 명소로 이름났다. 특히 거울같이 맑은 호수에 붉게 물든 단풍이 비치는 풍광은 ‘산홍(山紅), 수홍(水紅), 인홍(人紅)’으로 대변되는 내장산 단풍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절경으로 꼽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교도소 교정협, 여름용품 후원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승천, 일광사 주지)가 재소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여름용품을 후원했다.

승천 스님을 비롯한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 혜인정사 진송 스님 등 불교교정위원들은 6월 30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해 부채 2,000개와 생수 6,000병을 전달했다.

승천 스님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수용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교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여름용품을 준비했다”며 “수용자들이 교도소에서 자아반성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참회를 하며 성실히 교도소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전주교도소 직원들에게 “수용자들이 건강을 잃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잘 교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여름용품 전달식에는 권민석 전주교도소장, 조항덕 사회복귀과장, 이원일 금산사 사무국장 등이 배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소전대
NAVER 연꽃소전대 검색
귀사찰에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작품을 제안합니다.
작품성과 실용성 모두 완벽에 가까운 수제 작품입니다.
디자인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를 모두 획득한 작품이며 장인의 땀과 혼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열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귀사찰의 기제사나 천도제의 마지막 의식인 소전 의식을 준비 하신다면 사찰의 품격과 신도님들의 품격 또한 높여 귀사찰의 무궁한 발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 연 락 처
010-5904-2406
031-429-1077
불교조각연구원

내 안에 무지개를 이끌어 내는 칼라, 크리스탈 스토리
‘꼭 필요한 공부’
운명을 바꾸는 공부 — 먼저 나의 운기부터 바꾸는 공부 이젠 하셔야 합니다. 남의 운명을 봐주기 전에, 업장의 색깔에 덮혀있는 자신의 빛깔을 끄집어 내셔야 합니다.
색상 — 진정한 보라색(바이올렛)은 현실 생활도, 수행도 함께 잘한다.
▶정신적 : 블루, 로얄블루 ▶육체적 : 옐로우, 오렌지
▶핑 크 : 오랜 분노를 삭히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승화시켜 돈 문제 해결
내용 — 몸이 청소가 안되면 (의식공부 = 칼라 공부)를 못 받아 들인다.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식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예전에는 → 지식으로 살았다. 현재에는 → 아님, 가르치는 자가 했던 일을 현재는 인터넷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바다는 너무 믿고 가면 안된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생각이 난무하는 시대, 지금은 창의력으로 자신도 가고 상담자에게도... 이젠 동토, 상문, 조상 탓 만이 아닌 멘토가 되어 주어야 한다.
적용 — 포교원, 사찰, 철학관, 운영에 꼭 필요한 이시대 공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일반인, 누구나, 상사, 동료, 부하직원, 친구와의관계, 부부 자식간의 관계 잘 다루어 가게 됩니다.
※ 특전 : 칼라스토리 공부 외 재미있고 정확한 숫자운세, 관상을 함께 가르쳐 드립니다.
문의 : 010-5658-2657

‘종교평화운동’ … 부처님 오시면 가장 서두를 불사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㊺ 종교평화에 대한 소고

공직자란 어떤 뜻인가요? 공적(公的)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공(公)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사(私), 즉 자기 개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신앙은 공인가요, 사인가요? 우리 현명한 독자 분들에게 새삼 이것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독적인 일이겠지요? 당연히 개인적인 일이지요. 그렇다면 공직자가 자신의 공직을 통해 사적인 자신의 종교에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다른 종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지 않는 분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설마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말씀하시진 않으시겠지요? 실제로 무수한 공직자의 종교편향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 불자들은 그러한 종교편향에 대체로 피해자라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도시의 시장님은 그 도시를 자신의 종교가 지배하는 성시(聖市)로 만들겠다는 성시와 운동을 벌리기도 하셨지요? 그 보다 더 유명한 선배시장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한 시장님께서는 개신교의 종교 집회에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 하셨지요. 서울 특별시민은 갑자기 주민등록지가 서울특별시에서 천국으로 바뀔 뻔했습니다 그려.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더군요. 이제 자칫하면 우리 온 국민이 주소지를 천국으로 바꾸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그려.

인도의 대 서사시인 마하바라타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지요. 바라타대왕 족의 이야기를 그린 서사시인데, 주인공은 바라타대왕의 후손인 다섯 왕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맏이가 유디슈트라입니다. 그 서사시의 마지막은 다섯 왕자가 모두 신의 나라를 찾아 순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 죽지요. 유디슈트라와 그를 따르는 충견, 즉 개 한마리만이 신의 나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신의 나라에 들어가려 하니 개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때 유디슈트라는 “나만을 믿고 따라온 개를 버리고 신의 나라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안가겠다”고 발길을 돌리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개를 버리고 들어가는 심성을 가진 사람의 신의 나라에 입장할 자격이 없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신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처음 온 유디슈트라에게 천상세계와 지옥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디슈트라의 부모와 형제가 모두 지옥에 있는 거예요. 유디슈트라는 지옥행을 지원합니다. 왜냐구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지옥에 있는데 혼자 천상세계로 간다면, 그 천상세계는 천상이 아니라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었지요. 괴롭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 또한 시험이었습니다. 천상세계에 갈 수 있는 심성, 그것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림 · 최주현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구요? 자기들만 천상에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지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교 편향적인 사람들의 심성은 대체로 이런 심성 아닐까 싶습니다. 남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 배척하고 무시하는 심성은 앞의 이야기와는 반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과연 천국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마하바라타의 이야기를 해 본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 말한 시장님이 서울특별시를 봉헌했던 집회가 그 뒤 부산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그 열광적인 집회의 전광판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아세요? 부산시의 각 구(區) 별로 마약하는 사람들의 수, 성매매하는 사람들의 수가 전광판에 나왔지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불교 신도 숫자였어요. 불교 신도는 마약사범이나 성매매자와 같이 취급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뿐인가요? “범어사가 무너지기를!” “**절이 무너지기를!”하는 기도가 뒤를 이었지요. 다른 종교의 성소가 무너지기를 대 놓고 기도하는 광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울특별시를 봉헌했던 시장님은 그 당시에는 더 높은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서, 그 집회에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구요. 이 정도 되면 정말 좀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공개적으로 모든 불교 사찰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종교, 그들과 어찌 함께 살 수 있을까 걱정 아닌가요? 그런 종교의 집회에 높은 지위에 있는 공직자가 ‘봉헌’ 발언을 한다던가, 영상이지만 축하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완전히 공과 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종교만을 독야청청 온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태도가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만인 모든 공직자들이 각각 자신의 종교를 내세우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땅이 피튀기는 전쟁터가 되는 것, 순식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공직자 종교편향 문제 만연
인도 당시의 교훈 되새겨
아쇼카대왕 평화 사상 펼쳐야

이건 좀 큰 예를 들은 것에 불과하구요. 소소한 예를 들자면 끝도 없어요. 한 공직자는 기독교의 부활절이 있는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하는 행사들을 모두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으로 옮겼어요. 부활절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물의를 빚게 되자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사과를 했지요. 물론 표면적으로 만요. 그 뒤 어떤 교회 신문이던가에 자신의 속내를 털어 놓았지요.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런 일들을 하라는 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가능하면 그런 일들을 계속하여 기독교의 종교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노라고…. 확실히 표면적으로만 사과한 것 맞지요?

자꾸 이런 예들을 들다보면 이것도 하나의 편향이 될 것 같아서 그만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편향성을 보이는 것은 그 종교 안에서도 일부 몰지각한 소수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구요. 그 안에도 종교의 평화로운 공존을 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묻혀 버리는 모습들이 자주 보여서 안타까울 뿐이지요. 공직자의 경우는 아니지만, 일본에 쓰나미가 났을 때 어떤 저명한 목사님이 “신을 믿지 않아서 그런 끔찍한 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던 일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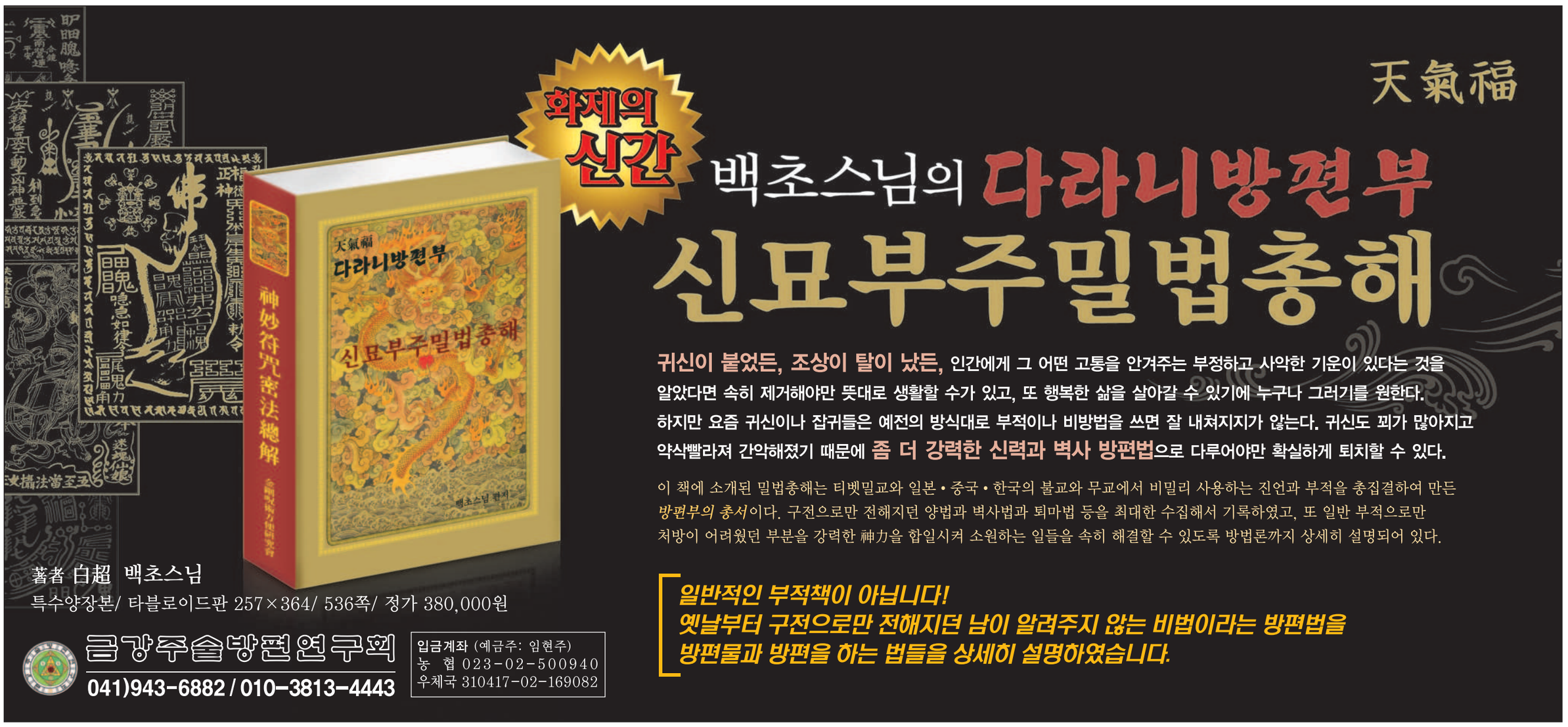
이런 종교 편향에서 불교는 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교가 앞장서서 다른 종교를 박해하거나, 다른 종교를 훼방하고 헐뜯은 경우는 별로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불교를 신봉하는 공직자 분들은 대체적으로 온당한 분들이 많구요. 그렇지만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다 것이 삼쾌선생의 생각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히고,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식을 좀 더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불자들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바이블’ 정도는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서도 그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해가 있어야 그 종교를 믿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의 품이야 얼마나 넓습니까? 다른 종교의 경전 읽는 것이 불교의 믿음에 방해 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교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좋은 말씀,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닙니다. 한걸음 더 나가 좋은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라는 넓은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교야 말로 천하무적종교가 되는 것이지요, 하하.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타 종교인과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 또 사회적으로 모든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바탕을 만드는데도 불교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러한 문화적 기반을 만들고,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데도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모든 종교가 평화롭게 함께하는 사회의 모습을, 불교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펼쳐낸 위대한 선배가 있지요. 바로 아쇼카 대왕입니다. 아쇼카 대왕은 최초로 전 인도를 통일한 왕이지요. 그러나 전쟁의 비참함을 깊이 느껴 불교를 독실하게 신앙하면서 비폭력, 도적적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지요. 독실한 불자이면서도 자신의 종교만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칙령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지금도 바위에 새겨진 그 칙령이 남아 있어 그분의 위대한 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누구나 자신의 종교만을 숭상하고 다른 종교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다른 종교도 존경해야 한다. 자신의 종교를 포교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자신의 종교에 무덤을 파는 것이며, 다른 종교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자신의 종교만을 숭상하고 다른 종교를 저주하는 자는 누구나 ‘나는 내 종교를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종교에 헌신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종교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 자신의 종교를 더욱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화해하는 것이 좋다. 경청하라! 다른 종교의 교의나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여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불교에는 이러한 위대한 선배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선배의 뒤를 이어 오늘날에도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에 불교계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거의 성사 직전에 무슨 이유인가 - 삼쾌선생은 무슨 이유인지 알고 있지만…, 중단된 ‘종교평화선언’을 성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이미 지나갔으니,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조심스럽게 보완한다면 이 시대의 불교가 할 수 있는 큰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앞장서고, 모든 종교의 양식 있는 이들이 그에 호응하여 이 시대 이 땅에 종교가 평화롭게 함께할 수 있는 기틀을 세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삼쾌선생, 다시 한 번 힘차게 외칩니다. “종교평화불사 이룩합시다!” 그런 불사 있느냐구 갸우뚱 하시는 분들은 불사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가장 서두르실 일, 그것이 불사입니다. 그리고 종교평화야 말로 부처님도 서두르실 일! 그러니 ‘종교평화불사’ 맞습니다. 이룹시다, ‘종교평화불사’ !



그 절집의 빛

⑮ 청도 대적사 극락전

거인, 하늘로 왕생자 들어 올리다

법당 기단부를 바다세계로 장엄

반야용선(般若龍船)의 불교미술적 표현은 다양하게 전개해 왔다. 탱화나 벽화를 통한 회화적 방식, 자연의 지형이나 바위를 통해서, 법당의 건축, 혹은 기단 등의 건축장치를 통해서, 천정에 매단 용머리 횃대 양식 등등 소재나 장엄양식만큼이나 다양하다. 우선 탱화로 그린 반야용선도는 영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와 서울 안양암 극락왕생도가 대표적이다. 두 탱화 속에 반야용선도는 대단히 수준 높은 필치로 개념적 완성도를 구축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법당 내외벽의 벽화로도 몇 곳에서 현존한다. 양산 통도사 극락보전, 파주 보광사 대웅전, 안성 청룡사 대웅전, 제천 신륵사 극락전, 구미 수다사 명부전 등에 벽화로 남아 있다. 특히 보광사 반야용선도는 구품왕생의 연화화생도와 함께 배치해서 극락왕생의 보편적인 표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희귀한 사례다.

자연의 바위로 반야용선을 경영한 사례도 있어 이채롭다. 창녕 관룡사 용선대(龍船臺)와 순천 조계산의 배바위가 대표적이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배바위는 거시적 반야용선으로 거룩한 종교적 생명력을 부여 받는다. 광대한 허공 속에 운용한 까닭에 스케일이 담대하고 드라마틱하다. 특히 관룡사 용선대의 경우에는 배의 선실에 해당하는 바위 부분에 석조여래를 모셔 반야용선의 조형적 뜻을 실현함으로써 무시무종의 거대한 자연 법당을 펼쳐 놓았다. 부처님이 계신 반야용선을 실제로 타볼 수 있는 추체험의 공간으로 대자연 속에 운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이며 전형적인 양식은 법당 건물 그 자체를 지혜의 배로 상징화 한 것이다. 법당 어간 좌우기둥 머리에 용두를 얹어 법당을 부처님께서 상주 하시는 반야용선의 선실로도 삼은 것이다. 고흥 금탑사 극락전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이 그 전형에 가깝다.

그런데 몇 몇의 법당은 반야용선으로 표현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다. 법당 기단부를 바다로 구체화해서 반야용선의 의미를 한층 강화하는 사례다. 화강암 기단부에 거북이나 게, 물고기 등의 바다생물 조형을 무심히 새겨서 상징성을 생생히 부여하는 방식이다. 식물 소재로 연꽃도 적절히 활용하기도 한다. 해남 미황사 대웅보전과 여수 흥국사 대웅전 등에서 그러한 조형의지를 읽을 수 있다. 사실 해남 미황사의 경우는 사찰의 연기설화 그 자체가 극락정토에 닻을 내린 반야용선의 서사다. 미황사 기둥 초석에는 거북, 게, 연꽃 조형이 나타나고, 여수 흥국사 대웅전 기단부에는 거북, 게, 해초 조형을 새겨 두었다.

생명력 충만한 화엄세계의 건축기단

법당 기단에 바다생물이 등장하는 사찰은 해남이나 여수, 울진 등 세 지역 모두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성의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내륙 깊숙이 자리하는 절의 법당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어 흥미를 끈다. 청도 대적사 극락전이 그런 경우다. 대적사 극락전에서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아름다운 기단시설이다. 축대의 계단은 소맷돌을 갖추었다. 향좌측의 소맷돌에는 나선형으로 돌돌 감은 넝쿨문양과 커다란 잎을 두텁게 돋을새김 했다. 돌돌 말은 넝쿨은 생명력의 강한 응축으로 생명의 연속성을 담지한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짙은 암갈색의 재질에서 묵직하고 두터운 힘이 우러나온다. 향우측의 소맷돌에도 생명력의 기운이 넘친다. 용틀임으로 꿈틀대는 용과 나선형 문양, 연꽃 봉오리, 두 마리의 거북이 등이 마치 선사시대 암각화를 보듯 투박하고 고졸하게 새겼다. 용의 표정과 거북이의 동작에서 천진난만함이 가득하다. 아이들 그림처럼 꾸밈없이 순수하면서도 화면의 분위기는 초등학교 운동장처럼 명랑하기 그지없다. 나선형 넝쿨문, 연꽃 봉오리, 거북, 용틀임의 용 등을 통해 이 기단부의 세계가 생명력으로 충만한 화엄의 세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미황사, 흥국사, 대적사 기단은 바다세계
계단 소맷돌에 용, 연봉, 넝쿨, 거북장엄
암각화와 민화풍의 익살과 천진스러움
법당 내부에 인로왕보살, 지장보살 모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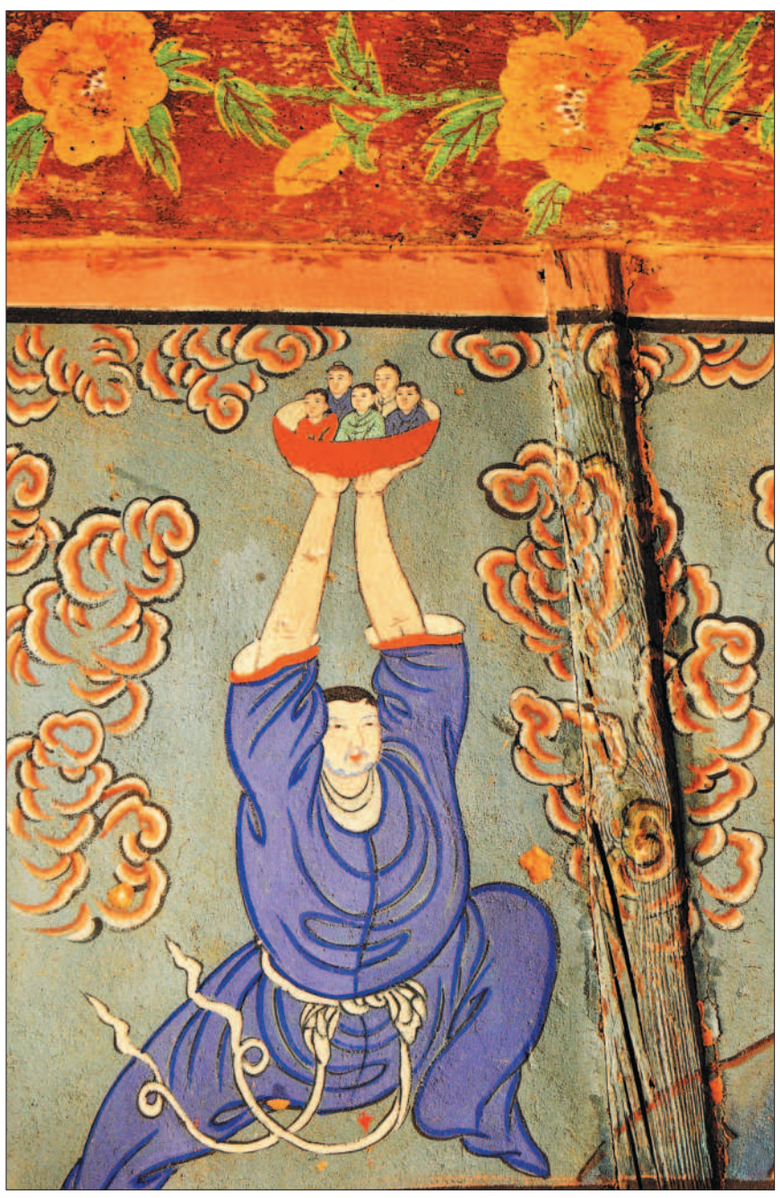


극락전 내부벽화. 인로왕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셔 법당의 반야용선적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반야용선의 낭만적인 판타지 무대장엄

기단부의 면석은 막돌이나 장대석이 아니라 석탑의 기단부처럼 면석으로 조합해서 매우 독특하다. 좌우 기단부 면석의 기본문양은 두텁게 가로 지르는 수평선 하나에 일정한 간극씩 수직선을 내려 평면을 분할하고 있는 형태다. 수평선과 수직선의 가장 간결한 형태로 기본문양을 얼기설기 대충 짜두었다. 칸딘스키는 〈점, 선, 면〉에서 수평선은 차고 무한한 움직임 중에서 가장 간결한 형태이고, 수직선은 따뜻하고 무한한 움직임 중에서 가장 간결한 형태라고 하였는데, 이 곳의 수평선과 수직선은 체감을 유도하는 어떤 인위적이며 작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다. 비뚤비뚤하고 들쑥날쑥한 것이 엄격함이라곤 조금도 찾아 볼 수 없다. 또 기단암석의 색상은 기존의 화강암과는 달리 암갈색과 짙은 회청색 덩어리를 규칙 없이 요리조리 배열했다. 불규칙적인 색과 선의 조합에 의한 H자 면분할에서만도 구성의 생동감과 활력이 생기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난다. 노자(老子)의 〈도덕경〉 45장에 그 구절이 나온다. 대직약굴 대교약졸 대변약눌(大直若屈 大巧若拙 大辯若訥)이라 했다. 아주 바른 것은 굽은 듯하고, 기교가 뛰어난 것은 서툰 듯하며, 뛰어난 언변은 어눌한 듯하다. 대교약졸의 이치를 담담히 구현하고 있다. 선과 선의 교차점이나 면석에 커다란 꽃, 단순한 원형, 혹은 꽃잎 모양의 조형을 새기자 면석은 연방 꽃밭으로 활력을 갖춘다. 게다가 바다게의 집게발에 쫓기는 듯한 어린 거북이와 그를 보호하려 새끼발을 물고가는 어미의 등장은 동화적인 천진함과 민화풍의 익살을 고양시킨다. 기단에 동화의 판타지 세계와 익살스럽고 낭만적인 민화의 세계가 어우러져 있다. 반야용선이 가진 판타지의 무대장치가 구축되어 있는 셈이다.

대적사 극락전이 반야용선으로 적극적으로 운용되었다는 사실은 법당 내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향좌측의 벽화는 여러모로 주의를 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보살의 주체는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이다. '인로왕'이라는 말 자체가 길을 인도하는 최고의 길잡이라는 뜻이다. 인로왕보살은 반야용선의 선두를 맡는다. 길의 인솔자이므로 형형색색의 천이 나부끼는 번을 들고 계신다. 지장보살, 혹은 관세음보살은 배의 선미에서 안전운행의 자비력을 발휘하신다. 벽화에서는 번을 든 인로왕보살과 육환장, 보주를 든 지장보살을 신령한 구름 속에 나란히 모셨다. 두 보살의 벽화는 극락전 법당이 반야용선의 방편이기도 함을 불교의례 양식으로 보여준다.



거인이 왕생자를 하늘 높이 들어 올리고 있는 희귀한 벽화다. 그릇에서 다섯 명이 화생하고 있다.



극락전 기단부의 면석 장엄문양.



계단 좌우 소맷돌 문양.

거인의 힘을 통한 극락왕생의 방식

극락전 내부 벽화 중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장엄은 거인이 도자기 대접 같은 그릇에 다섯 명의 사람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고 있는 장면이다. 벽화 속 거인은 두 분이다. 좌청룡 우백호를 염두에 둔 듯이 각자 청색과 흰색 옷차림을 하고 그릇을 들고 있는데, 흰 옷의 거인의 그릇은 비어 있다. 아라한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성스러운 구름 속 하늘사람임은 분명하다. 도대체 이 거인들은 누구시며,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벽화는 대단히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벽화 바로 위 나무결 따라 한 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채도 높은 길상화를 베풀었고, 또 그 위 좁은 상벽에는 율동적인 비천벽화를 조영한 까닭이다. 그것은 상서의 장면을 상징하는 보조관념들이다.

반야용선의 개념으로 보면 도상의 의문은 풀린다. 벽화를 조영한 예술가는 왕생자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방식에서 대단히 창의적인 방식을 발상해냈다. 용선(龍船)이라는 배의 수단을 빌리거나 연화화생의 일반적인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거인이 하늘로 단숨에 들어 올려주는 방식을 착안했다.

반야용선의 용 대신에 거인의 변화신을, 배 대신 그릇을 대체하면 된다. 인로왕보살과 지장보살은 변함없이 함께 동행 하신다.

반야용선이 수평적 운동의 항해라 한다면, 거인을 통한 왕생은 수직적 차원을 뛰어넘는 방식이라 할 것이다. 선례가 없는 독창적인 벽화장엄이다. 차안(此岸)에서 피안(彼岸)으로 가는 길은 반야바라밀의 길이다. 지혜의 뗏목을 타고 고해의 바다를 건넌다. 대적사 극락전의 고졸한 뗏목에서 무생법인(無生法忍)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을 푸르름 속에서 보게 될 것이다.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청동주조 50년 외길 인생
大韓民國 청동明匠



天鐘社

청동불상, 범종,
청동탱화, 단청,
순금불사,
조형물조각

홍법사 삼존불



수종사 범종

천종사 대표 송창일 명장

불교미술대전 조각부 특선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제전 조각부 특선
서울올림픽기원 불교미술대제전 입선
대한민국청소년 민족문화예술대전
불교조형미술 대상 수상
신지식인 협회장상 수상
한민족 대상 수상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내선길 103-79
대표전화 031)763-7435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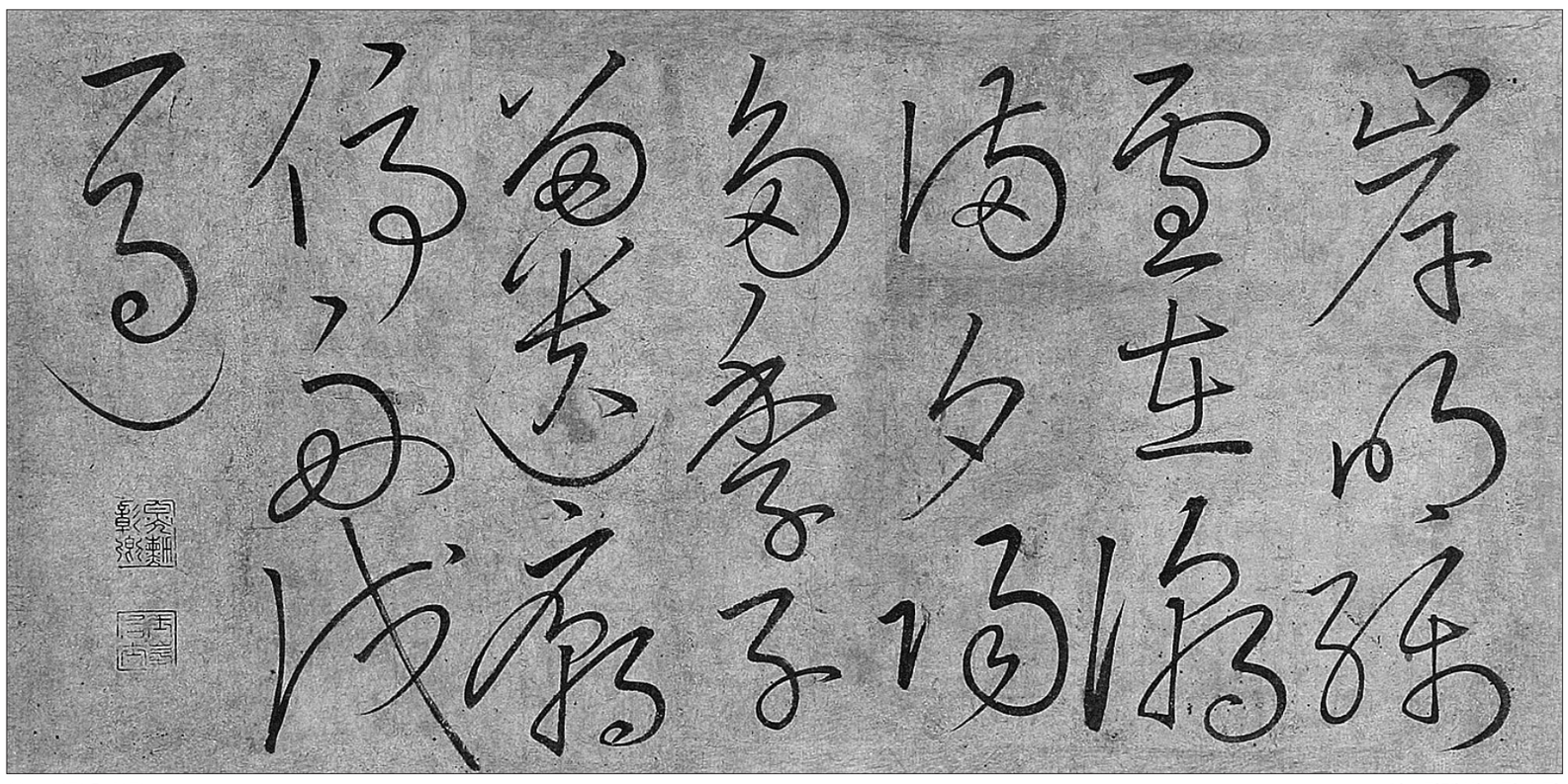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지위 高下 막론하고 승려와 깊은 교유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㉕ 옥봉 백광훈



옥봉 백광훈 친필. 성균관대 박물관 소장

조선 중기의 인물, 옥봉 백광훈(玉峰 白光勳, 1537~1582)은 일찍부터 벼슬에 올라 나라에 보국(報國)하려는 의지를 접었다. 그 이유는 자세하지 않지만 그가 한미한 집안 출신이었다는 점과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그도 한때 선릉참봉(宣陵參奉)이나 소격서(昭格署) 참봉을 지냈으나 이는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위한 것이라서 그리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대부분 강호에 머물며 시작(詩作)에 몰두하여 송풍(宋風)을 버리고 당풍(唐風)을 따르고자 하였다. 후일 그와 최경창(崔慶昌, 1539~1583), 이달(李達, 1539~1612)을 삼당시인(三唐詩人)이라 칭하는 연유는 여기에 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이정귀(李廷龜, 1564~1635)는 "백광훈은 손꼽히는 호남 시인으로 특히 절구(絶句)를 잘하여 당나라의 천재시인 이하(李賀)에 비견된다"고 평가하였다. 그가 출중한 시재(詩才)를 가졌던 연유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의 천재성이 첫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시 짓는 일을 좋아하여 탁마에 열중했던 점과 그의 사승(師承) 관계일 것이다.

따라서 그의 학맥을 살펴보면 일찍이 박순의 문하에서 공부했고 양응정(梁應鼎, 1519~1581)과 노수신(盧守愼, 1515~1590)에게도 수학했다. 특히 그가 진도로 노수신을 찾아간 것은 1558년 아내를 잃은 후 집이 가난하여 한양에서 더 이상 수학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노수신은 멀리까지 자신의 적거를 찾아온 백광훈을 위해 술을 준비하는 등 성의를 다했다. 이러한 정황은 〈백생광훈지야음(白生光勳至夜飮)〉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월 초삼일에(十月初三日)
멀리서 벗이 찾아왔네(朋來自遠方)
마음 맞는 우정, 오래 전에 이름을 들었고(神交久名聞)
의기투합하여 나이를 잊고 벗할 만하네(義合可年忘)
말하다가 웃는 사이에 한껏 심취되어(語笑事傾倒)
이 몸을 취한대로 맡길 뿐이라(形骸任醉)
이 사람은 다만 이러할 지니(此生聊爾耳)
다음 만남에 다시 어찌할까(後會更何當)

그가 진도를 찾았을 때가 '시월초삼일'이라 하니 초겨울이다. 먼 길을 찾아온 백광훈은 자신과 신교(神交)를 나눈 사이라 하였다. 이는 바로 뜻이 맞는 사람임을 의미한다. 실제 노수신은 백광훈보다 22살이 더 많았지만 나이를 불문하고 망년지교(忘年之交)를 나눌 수 있는 사이라고 여겨 "의기투합하여 나이를 잊을 만하다"고 말한 것이다. 세상에서 뜻을 투합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 그러므로 이들은 "말하다가 웃는 사이에 한껏 심취" 될 수 있었던 스승과 제자였다. 후일 노수신은 그를 백의제술관(白衣製述官)에 천거하여 그와 함께 명나라 사신을 맞았는데 명나라의 한세능(韓世能)과 진삼모(陳三模)는 백광훈의 시와 글씨에 탄복하여 백광선생(白光先生)이라 칭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 36세였다.

한편 그가 시에 탁월한 재주도 있음을 인정한 것은 호남문단을 주도했던 임억령(林億齡, 1496~1568)이다. 평소 명리(名利)를 멀리하고 청렴결백했던 그는 백광훈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는데 이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백광훈을 전송하며(送白光勳還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 위에 달은 둥글었다가 다시 이지러지고(江月圓復缺)
뜰 앞에 매화는 졌다가 다시 피누나(庭梅落又開)
봄이 되었는데도 돌아가지 못한 채(奉春還未得)
다만 망향대를 오를 뿐이라(獨上望鄕臺)

원래 임억령은 백광훈보다 나이가 39살이나 많았다. 그는 시벽(詩癖)이라 할 만큼 시를 짓는 일에 열중하여 항상 외직(外職)을 전전하였다.

조선 중기 시단을 이끌었던 임억령이 그와 사제의 인연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임억령이 백광훈의 재주를 아껴 그의 시를 인정한 후에 세상에서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백광훈은 맑고 꾸밈없는 시의 세계를 담아냈던 인물답게 조선 중기의 유학자 중에 수많은 승려들과 교유했다. 그의 발길이 닿았던 사찰만도 홍경사(弘慶寺), 보림사(寶林寺), 백련사(白蓮社), 두륜사(頭輪寺), 해임사(海臨寺), 서림사(西林寺), 보림암(蓮花菴) 등이 있다. 특히 그가 수많은 승려들과 교유했던 사실 중에 임진왜란 때에 승병(僧兵)을 모아 활약했던 처영(處英) 스님과 오랜 인연이 눈에 띈다. 그가 쓴 〈처영 스님에게 주다(贈處英上人)〉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경창 · 이달 더불어 삼당시인
명나라 사신 '백광선생' 칭해
처영 스님과 오랜 인연 등
승속 넘은 벗들과 유불 교유

도리어 이별을 말할 땐 마음이 바쁘더니(却來言別意匆匆)
술잔 잡고 서로 볼 제, 새벽종소리 두려워라(把酒相看畏曉鍾)
가을 풀 누런 꽃이 시들지 않았을 때 떠나더니(秋草黃花去不盡)
높고 낮은 산 어느 곳에서 홀로 지팡이를 짚고 있나(亂山何處獨携筇)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처영의 호는 뇌묵(雷默)으로, 휴정(休靜) 스님의 고제(高弟)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 1,000명을 모집하여 전공을 세웠던 인물이다. 실제 이들의 교유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술잔 잡고 서로 볼 제, 새벽종소리 두려워라"라고 한 행간 속에 이들의 우정이 오롯이 배어난다. 더구나 그는 "가을 풀 누런 꽃이 시들지 않았을 때 떠나더니/ 높고 낮은 산 어느 곳에서 홀로 지팡이를 짚고 있나"라는 한 대목에서 처영 스님에 대한 살가운 정이 드러난다.

또한 두륜사(頭輪寺)의 신견 스님과도 오랜 인연은 〈신견 스님에게 주다(贈信堅上人)〉에서 드러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슬비 내리는 춘산의 정오(小雨春山午)
텅 빈 집, 꿈속에서 학을 타고 돌아왔네(空堂鶴夢回)
객이 오자 곧 문이 닫히고(客來門政閉)
향불은 이미 반쯤 재가 되었네(香火半成灰)
해질녘 계곡의 남쪽엔 눈이 내리고(日晩溪南雪)
해상산으로 부터 스님이 찾아왔네(僧從海上山)
시를 주었던 세월, 잊었는데(贈詩忘歲月)
그대의 늙은 모습 가엾구려(憐爾舊容顔)

백광훈은 〈신견 스님에게 주다(贈信堅上人)〉 끝자락에 그와의 인연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1566년 봄에 내가 옥산에 있었는데 신견 승려가 시축을 가져왔다. 나의 시가 그의 시축에 들어있었는데도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다. 운천의 아름다운 자취와 시를 준 것이 모두 꿈속의 일이었으니 감격할 만한 것이로다. 마침내 지난번에 지었던 것을 다시 고쳐 쓰고 다시 이로써 잇게 하였다.(丙寅春 余在玉山 堅持軸來 吾詩亦與在中 而不記其日月 雲泉勝跡 與詩而俱爲夢想中事 可感也夫 遂改書前作 而復爲此以續之)

그가 신견 스님을 만난 것은 그의 나이 29세 때의 일로, 노수신의 문하를 떠나 옥산에 머물 때이다. 그가 남쪽의 승려 성연(性衍)과 밤이 깊도록 고담을 나눈 사실이 눈길에 띈다. 〈남쪽 승려 승연에게 주다(贈南僧性衍)〉의 내용은 이렇다.

객이 고원에 있을 때를 생각하니(客有故園思)
텅 빈 집에서 이경까지 앉아있었지(空堂坐二更)
평상 근처에 등불은 꺼지려하는데(近床燈欲盡)
휘장에 엄습한 눈, 소리 없이 내렸네(侵帳雪無聲)
멀리 역말은 산길에 막혔고(遞關山路)
물나라의 여정, 아득하여라(微茫水國程)
고향을 벗어나 서로 만나니(相逢越鄕釋)
말없어도 절로 마음을 아누나(不語自知情)

아마도 성연 스님과는 오랜 교유가 있었던 인물인 듯하다. 그러므로 고원에 있을 때를 회상하여 "텅 빈 집에서 이경까지 앉아 있었다"고 한 것이다. 더구나 소리 없이 눈은 내리고 밤은 깊었으니 이는 더할 수 없는 선경(禪境)을 만끽했을 것이다. 이들은 "말없어도 절로 마음을 아는 사이"였다고 하는 점에서 이들이 나눈 유불의 교유는 필설로 드러내기 어렵다.

한편 그가 정인 스님에게 준 〈해임사 정인 스님에게 주다(海臨寺 贈正仁師)〉에서 "강남의 호젓한 절, 꽃 지는 시절에(江南蕭寺落花天)/ 십년을 노닐던 자취 아득하여라(十載遊 思渺然)/ 차 솥에 선 연기 오르고 향 피운 방 따뜻한데(茶鼎午煙香室暖)/ 온 산에 비바람 불 때 창문 닫고 조누나(一山風雨閉窓眠)"라고 한 것으로 보아 승방을 찾아 차를 나누던 정황도 드러난다. 아! 가난했던 그의 회한을 풀어낸 도구는 시와 글씨, 그리고 차였다. 서예에 남다른 골기를 지녔던 그는 초서와 예서를 잘 썼다고 한다. 따라서 그의 예술적인 식견과 안목은 조선 중기를 대표할만한 품재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기에 족하다. 평생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던 그였지만 강호에 머물며 자유를 만끽했을 담박한 삶을 시어 속에 묻어두었다. 그의 자는 창경(彰卿)이며 옥봉이란 호를 썼고 〈옥봉집〉을 남겼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고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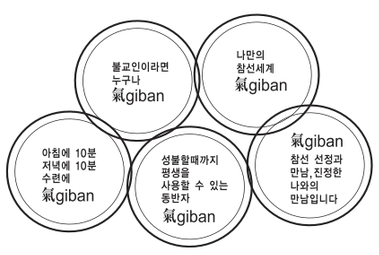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니까야서 길을 묻다 사띠(念) ②

마음의 동요 그치는 힘

앞에서 '사띠(sati)'의 기본적인 의미를 '잊지 않기'로 풀 수 있는 근거로 〈법구경〉의 게송만을 제시했지만, '사띠'를 '잊지 않기'로 풀어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경전의 내용은 한두 쪽만으로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나 '잊지 않기'가 사띠의 기초적인 의미라고 해서, 이 풀이만을 가지고 사띠의 전모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잊지 않기'가 사띠에 내재된 하나의 의미가 분명하다고 해도, 이 의미는 공부하는 이들의 마음가짐, 자세, 일상의 마음 살림 꾸리기를 위한 대의에 속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차별되는 불교적인 명상의 면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잊지 않기'는 닦음의 출발점에 서게 해주는 소중한 영역이지만, 닦음의 길로 곧장 나서게 하는 '추진력'의 의미가 그 속에 온전하게 내재되어 있지는 않다.

늘 잊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의 태도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마음상태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역동성으로 나타나는 데 필요한 그 어떤 '힘' 개념, 사띠의 두 번째 의미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힘 개념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주의력을 불러일으켜주는 마음짓'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마음짓'이란 우리말 사전에는 없는 말이지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몸짓'에 대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필자가 시험 삼아 써보았는데, 마음을 움직이는 작동 지점을 의미한다. '마음을 일깨움'이라는 표현을 써도 통하는 말이 될 것이다. 흔히 불교 밖의 사유체계에서 '깨어 있음'이란 말로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 뜻이다. 사띠를 '마음지킴' '마음챙김'의 뜻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들은 이 의미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병에 걸렸을 때 나는 주의력을 불러 일으켰다. '나는 병에 걸렸다. 그렇다고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테라가타(長老偈)' 게송 제30에 나오는 이 글귀는, 몸에 병이 들어 마음이 나태해지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음을 다잡는 장면이다. 또 다른 경전에서는 상대방에게 꾸지람을 들었을 때 자신을 돌이켜보고 충고한 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는 내용도 보인다(〈숫타니파타〉 게송973). 여기에서 주의력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에 쓰이는 말에 모두 '사띠'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띠'의 두 번째 의미를 '주의력 불러일으키기'로 옮길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해당하는 용례도 '잊지 않기'로 옮겨야할 때만큼이나 〈니까야〉와 〈아함경〉에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매우 많다.

'사띠'의 두 번째 의미를 '주의력 불러일으키기'로 풀이하면, 불교 명상이 필요한 지점이 자연스레 등장한다. 곧 '잊지 않기'가 계율정신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주의력 불러일으키기'는 마음과 감관의 대상이 접촉하는 바로 그곳에서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한 경전의 글귀처럼, 몸이 아픔을 조건으로 마음도 덩달아 아프게 되는 그 지점, 타인의 꾸지람으로 인해 감추고 싶은 자신의 상처 그곳이 드러나게 되어 불쾌함과 분노가 발생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사띠'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띠의 두 번째 의미에는 감각기관에 접촉되는 대상의 '인지', 그 대상이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제대로 살펴보아야 하는 '관찰'의 도움이 제기된다. 더불어 동요된 마음상태를 그치기 위해 주의력을 작동시켜 '몰입/집중'의 힘도 요청된다.

'그침/몰입' 유형의 명상(사마타)과 '살펴봄/이해'(위빠사나) 유형의 명상과의 통로가 열리는 지점이다.



그림 · 나은영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수많은 불사 일궈낸 시대 力士…



엄상호 이사장은… 1941년 만주에서 태어난 뒤 경북 의성에서 성장하며 선친과 함께 건영그룹을 일궜다. 현재 건영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며 프라임데칼 경영고문, 대인농산 회장, 영월엄씨 종친회장으로 있다. 군불교진흥회장을 맡아 6년간 군포교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 중앙신도회 고문 등을 역임하고 2009년부터 불교인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리더에게 聽하다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

1982년 성철 스님 통일법문 듣고 감화
"국민에 꿈 심어줘야 통일된다" 당부
성철 수행처 순례중 통일불사 발심
3월부터 엄홍길씨와 통일 산행 진행

엄상호 이사장(76)은 한때 재계 30위 안에 들었던 건영그룹 회장이었다. 그룹이 해체되는 좌절을 겪었지만 그는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이 불교 수행을 바탕으로 한 통일운동이다. 엄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통일운동을 펼치고 있다. 7월 1일 그를 만나 통일의 비전에 대해 들었다.

진행=김주일 기자, 사진 · 정리=노덕현 기자

Q: 사업 하시던 분이 통일운동을 하고 계시니 보통의 인연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통일운동을 하시게 됐는지요.

통일 운동을 설명하자면 먼저 성철 스님과의 인연을 이야기해야 한다. 성철 스님을 처음 뵌 것은 1982년 전국신도회 부회장일 때 해인사로 신년하례를 가면서였다. 사업을 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성철 스님의 법문은 마음 챙김에 큰 도움이 됐다. 이후로 2009년 불교인재원을 맡게 됐다.

2013년부터 2년간 성철 스님 수행처를 순례하는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수행도량 순례단'을 이끌게 됐다. 불자들과 평소 성철 스님을 흠모했던 이들을 모아 성철 스님의 생가부터 해인사, 개운암 등 인연처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여섯 번째로 은해사 운부암을 가게 됐다. 운부암에 가기 전 새벽기도 후 잠깐 꿈을 꾸었는데 성철 스님이 나타나셨다. 특유의 빠르고도 부정확한 발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해. 통일 기도를 해'라고 일갈하셨다.

Q: 꿈에까지 성철 스님이 나와 말씀하실 정도면 평소에도 이에 대해 많은 생각이 있으셨겠습니다.

평소 통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나 싶다. 꿈에서 깨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성철 스님이 살아계셨으면 아무런 목적 없이 당신의 거처를 찾아다니는 대중들을 보고 무엇이라 하셨을까. 호통을 치지 않으셨을까."

'통일'이라는 화두가 생긴 것이었다. 성철 스님은 항상 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 전에는 이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으로 와 닿지는 않았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화두가 생기니 이 말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졌다. 힘이 났다.

여러 큰 스님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도 성철 스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었다. 성철 스님이 법정 스님과 생전 나눈 대화였다. 법정 스님이 성철 스님에게 통일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고 하니 성철 스님은 "국민에 꿈을 심어줘야 통일이 된다"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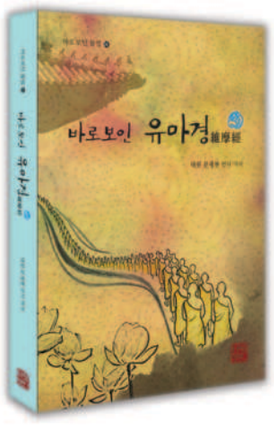
Q: 꿈이라…한국사회에서는 이제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일이 삶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난제들의 근원으로 올라가면 결국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 매사에 남북분단 상태가 발목을 잡으면서 활력 넘치는 발전을 성큼성큼 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속에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근래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일자리도 문제라고 한다. 사실상 이 모든 문제의 돌파구는 통일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국민들 마음속에 통일은 언젠가는 이뤄야 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지금은 아닌듯하다. 남이나 북이나 실제로 통일로 가는 길에는 단 한발 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5권의 저서 출간!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끼뿔〉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禪의 일상, 禪의 누림!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www.moonzenpress.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 (구,바로보인)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암세의 자가 면역력이 놀라운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불사에 있다”



Q: 국민들에게 ‘통일’이란 꿈을 어떻게 심어 줄 수 있을까요.

한사람의 꿈은 그냥 꿈이지만, 모든 사람의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한다. 모두가 통일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통일 시켜줄 이는 아무도 없다.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한다. 해야 할 사람들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아무 것도 안된다.

남북 관계를 보면 북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결국 남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통일은 대박이다’는 말이 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통일이 안되면 쪽박’이란 말이다. 우리는 이미 날 때부터 겪고 있어 실감을 못하지만 분단 상황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결국 이 부분이 한국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Q: 엄상호 이사장님은 불자로서 통일운동을 불교계 내에서 하고 계십니다. 불교계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일반국민들에게 통일의지를 북 돋는 게 쉽지만은 않은 과제다. 3·1운동 당시에도 보면 독립운동을 한 이들 중 대부분이 종교인들이었다.

불자들이 먼저 이 절, 저 절 다니며 통일기도를 한다고 하면 먼저 불교계에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또 다른 종교계에서도 동참하고, 이러다 보면 국민들에게 통일의지를 심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불교인재원이라는 단체에서 통일운동을 출발해 점차 불교의 굴레를 벗어나니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첫 사업이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 산행’이다. 엄홍길 대장과는 종친회로 인연이 있어 특별히 요청을 했다. 3월부터 엄홍길 대장이 인생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도봉산 망월사를 시작으로 6월까지 4회동안 진행했다. 처음 120명으로 시작해 현재 180명이 참여했다. 산행 행사에는 불교의식이 없고, 통일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강연이 함께 진행된다.

Q: 종친회 차원에서도 많은 저명인사들과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20명이 매달 1만원씩 모아 5년간 통일나눔펀드에 기부하기로 하셨지요?

조선일보에서 통일나눔펀드를 보고 동참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엄영보 전 해군감독, 엄호성 전 국회의원, 엄병길 전 강원지사, 엄기영 전 MBC사장 등이 엄씨대종회 임원진이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대종회에서 통일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사업을 찾던 중 통일과나눔 재단을 알게 됐고 생각이 맞아 모두 함께 참여를 결정했다. 크지 않은 액수지만 동참하면 좋으리라 생각해 다른 이들을 설득했다.

Q: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의 저자인 신창민 박사와도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책 출간을 후원하시기도 했다고요.

통일운동을 하고자 하니 일반 인사들도 방북을 해 매스컴에 소개되고 자신의 활동을 어필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2015년 6월이었는데 6·15공동선언 15주년 좌담회가 열렸고, 한겨레에서 이것이 크게 보도됐다. 이 중에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 신창민 박사 글이 실려 있었다.

한우리연구원 이사장이기도 한 신창민 박사는 불심이 깊었다. 한우리연구원 이름도 법정 스님이 지어주신 것이었다. 이것이야 말로 부처님이 연결해주신 인연이라고 생각했다. 이후에 만나 의기투합하게 됐다.

Q: 통일운동 외에 불자로서의 마음가짐도 대단하신 듯합니다. 평소의 신행활동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대대로 불교집안인데, 고려시대 창건된 의성 대곡사와 조부 때부터 특별한 인연을 이어왔다. 신심은 불교를 바로 알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다. 예전에 사업을 크게 할 때는 사업차 방문해서도

통도사·구룡사 등 불사 일궈
1997년 건설사 도산, 그룹 해체
불교공부로 마음 챙기고 나눔활동
“통일불사 국민운동으로 키울 터”



통일 전문가 신창민 교수가 지은 〈통일은 대박이다〉〈통일대박은 축복이다〉의 책 표지. 엄상호 이사장이 후원하고 있다.

지역 이름 있는 스님을 찾아가 법을 청해 들었다. 기업이 잘 될 때 불교를 위해 무엇인가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기도 한다. 그러다 성철 스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성지순례를 하며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었다.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통도사 월하 스님과 선친의 인연이 깊었는데 그 인연으로 불사에도 참여했다. 서울 양재동 구룡사 불사는 원력이 있으면 이뤄진다는 것을 느낀 계기였다. 어느 날 집에서 나오는데 ‘통도사 서울포교당’이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퇴근하며 법당을 찾았는데 아무리 봐도 없었다. 5일 만에 찾았는데 천막법당이었다. 건영건설이 불사를 맡고 정우 스님과 함께 불사를 진행하게 됐다. 현대식 도심포교당 건물에 대한 반응은 좋았다. 불사금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사람의 원력으로 이뤄내게 됐다. 앞서 말한 꿈, 원력이 있으면 이뤄진다는 것을 느낀 게 바로 불교계 불사를 하면서 부터다.

Q: 건영건설 얘기가 나왔으니 조심스럽게 꺼내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은 1980년대 신도시 아파트 건설로 유명한 건영건설 회장이셨고, 3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건영그룹 총수셨는데 1997년 갑자기 흑자 도산했습니다. 충격이 크셨을 듯 한데요.

건설사 연대보증을 하면서 보증을 선 건설사가 도산이 나며 그룹이 해체됐다. 당시에 국내 최초로 중국에도 진출한 상태였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아파트 한 채만 해도 수익이 어마어마한데, 당시에는 한 지역의 공사를 모두 수주했으니 위기만 넘겼으면 더욱 커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룹이 해체됐으니 아픔이야 없었겠나. 이 아픔을 불교공부로 이겨냈다. 사실 ‘돈’은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무기다. 이 무기가 좋은데 쓰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커지며 여러 구설수에 휘말리고 안 좋게 생을 마감한 이들이 많다. 처음 전국신도회에서 성철 스님을 만난 뒤 이후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3000배를 했고, 매달 1만 배 서원을 세웠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333배를 하고 있는데, 회사 도산 이후 건강과 신심이 더 좋아졌다.

함께 사업했던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사업이 잘 되던 안 되던 여러 문제가 터지면서다. 나도 계속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 불교공부를 못하고 돈에 끄달려 살다 이미 저세상에 갔을 테니 불교와의 인연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도’의 가치를 알고 참선하면서 ‘건영재단’ 이름도 ‘중도재단’으로 바꾸고, 남은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은 기부하니 마음의 짐도 덜고 건강해진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통일운동이다. 인생의 회향을 통일불사에 진력하겠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통일에 있기 때문이다.

Q: 함께 사업을 하던 다른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이사장님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 사찰에 다니면서 불심을 키웠지만 마음 속 한편에서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항상 떠나질 않았다. 열심히 수행은 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환생도 믿음이 가지 않았다. 언젠가 나의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허무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다. 기도를 하고 명상에 잠겨있었는데, 멀리 깜깜한 하늘에서 한 불덩어리가 날아와 가슴을 세게 치고 사라졌다. 그 순간 딱 이 생각이 들었다.

“아, 나라는 것이 이 우주 안에 있구나. 나라는 존재도 인연에 따라 잠시 모인 것이구나. 내 육신이 흩어진다고 하여도 이 우주 안에 있으니 인연법에 따라 또 세상에 나오는구나.”

이 생각이 들고 나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쌓는데 주저함이 없어졌다.

Q: 통일운동 외에는 하고 싶은 일이 없으십니까? 또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들려주세요.

여러 가지 작은 사업은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다. 통일운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키우고 싶다. 가장 먼저 사찰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찰이 통일운동에 나섰으면 한다. 현재 맡고 있는 불교인재원도 잘 가꿔 불교가 젊은 층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엄상호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적지않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고, 그럴때마다 마음 내려 놓는법을 배웠다는 엄 이사장.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그의 통일불사 원력은 성철 스님을 만나 처음 발심한 30년 전과 변함이 없었다.





어떻게 '정진바라밀' 성취할 것인가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진문이란 정진바라밀을 말한다. 범어 '비리야(virya)'를 번역한 말로 부지런히 애써 노력한다는 뜻이다. 깨달음을 목표로 쉬지 않고 용감하게 수행을 다지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본문에서 진문의 수행을 간명하면서도 폭넓게 설명하고 있다.

"좋은 일과 착한 일에 있어서 마음에 게으름을 먹거나 용기를 잃지 말고 뜻을 굳게 세워 비겁해지거나 나약함이 없이 임해야 한다. 과거 오랜 옛적부터 헛되이 몸과 마음에 수많은 고통을 받아온 것을 생각하며, 스스로 분발하여 부지런히 모든 공덕을 닦고 자신과 남을 동시에 이롭게 하여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진문을 단순히 수행의 거듭된 진행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과 분발, 자리이타의 공덕을 닦으면서 고통의 소멸을 이루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진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서술하고 있다.

"지난 세상 숙세로부터 무거운 죄와 나쁜 업의 장애 때문에 사악한 마귀의 괴롭힘을 당하거나 세상의 잡무에 얽매이며 병으로 괴로워하는 등 많은 장애가 생기는 수가 있다. 이러한 장애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용맹정진을 가하

용감히 수행을 다지는 게 진문

기도·참회·권청으로 장애 극복

고, 밤낮으로 시간을 맞추어 부처님께 예배하여 성심으로 참회하고, 미망에서 벗어나 깨우쳐 줄 것을 청하며, 기꺼이 깨달음을 향한 노력을 쉬지 않고 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정진의 내용에 예배와 참회, 그리고 권청을 들고 있는 것이 주목되는 사항이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참회하는 것은 수도 상의 모든 장애를 제거하는 일반적인 원칙이다. 원효스님은 참회는 모든 나쁜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고, 권청은 정법을 비방한 죄를 소멸하는 것이며,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따르는 수희(隨喜)는 남이 나보다 나은 데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한 죄를 제거하며, 회향은 중생의 세계인 삼유(三有)에 즐겨 집착하는 것을 대치하기 위해서라고 〈해동소〉에서 설명하였다.

"사람이 왕에게 빚을 지면 왕에게 의지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수행인은 부처님께 예배해야 한다. 그러면 부처님은 이들을 보호하여 능히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것이다."

대승불교가 일어나고부터 예배와 참회가 수행의 새로운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반드시 과보를 받아야 한다는 정업(定業)의 원칙이 그 업의 장애를 소멸할 수 있다는 새로운 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또 숙세의 업장을 녹일 수 있는 방법으로 참회수행이 권장되기도 했다. 기신론에서도 이러한 뜻에서 참회가 권장되고 있는 것이다.

참회(懺悔)라는 말은 범어 'Ksama'를 음역하여 참(懺)이라 하고 의역한 뜻인 회(悔)를 붙여 쓰는 말이다. 이런 경우를 '화범쌍창(華梵雙唱)'이라고 말해왔다. 음사한 범어와 의역한 중국말을 같이 써서 두 나라 말을 함께 제창했다는 뜻이다. '용서를 빈다', '뉘우친다'는 뜻이 되는 말이 참회다.

원시불교의 참회는 포살(布薩)과 자자(自恣)가 있었다. 포살은 비구들이 보름마다 한 번씩 부처님이다 대비구를 모시고 계본(戒本)을 읽으면서, 계를 범한 비구나 대중에게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이고 자자는 매년 하안거의 마지막 날에 비구들이 모여 스스로의 잘못을 참회하고 남의 잘못도 일깨워 주면서 서로 수행자로서의 덕행을 기르는 것이다. 이는 다분히 계율과 깊은 관계가 있는 참회라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의 참회는 먼저 시방삼세의 제불에게 귀명하고 참회하여 자신의 죄업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참회가 수단으로 행해지는 방편이 아니라 참회가 궁극적으로 열반을 얻는 목표로서 설정이 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참회가 이루어지면 곧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심부름꾼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㉘ 보살이 성취한 자비심

菩薩成就悲心如自己體未曾捨離。見來求者。於己身所生於他想。菩薩身中生其惱熱。云何愚癡乃於我身生於他想。語乞者言。一切財物先皆與汝° 都是汝物。汝今但取。云何言乞。諸求者言。何時見與。菩薩報言。我先於三界尊前發弘誓願。是時與汝。汝今云何方從我乞。菩薩發心願一切眾生於我財物生己有想。如辛頭河飛鳥走獸往至其所隨意而音無遮護者。與以不與先以捨離更不言與。亦復不生歡喜之心。何以故。先以與竟。以一切所捨使諸眾生皆當得樂° 菩薩於一切眾生是走使者。一切眾生皆是施主。諸貧窮者心充足時。菩薩爾時檀波羅蜜悉得滿足。(보살성취비심여자기체미증사리。견래구자。어기신소생어타상。보살신중생기뇌열。운하우치내어아신생어타상。어걸자언。일체재물선개여여。도시여물。여금단취。운하언걸。제구자언。하시견여。보살보언。아선어삼계존전발홍서원。시시여여。여금운하방종아걸。보살발심원일체중생어아재물생기유상。여신두하비조주수왕지기소수의이음무차호자。여이불여선이사리갱불언여。역부불생환희지심。하이고。선이여경。이일체소사사제중생개당득락。보살어일체중생시주사자。일체중생개시시주。제빈궁자심충족시。보살이시단바라밀실득만족。)

번역

보살이 성취한 자비심은 자기 자신의 근본 바탕과 같아서 일찍이 버리고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구걸하는 이가 찾아와 자기 자신과 다르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보살은 자신의 심중에 열렬한 번뇌를 일으켜 "어찌하여 우매하고 어리석어 내 자신과 다르다는 생각을 일으키는가" 합니다. 구걸하는 이에게 말하기를, "일체 재물을 먼저 다 그대에게 주었고, 모두 그대의 물건이니 그대는 지금 단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찌 구걸하는 말을 합니까." 합니다. 모든 구걸하는 이가 말하기를, "언제 만났으며, 주었습니까?" 하면, 보살이 대답하기를, "내가 앞서 삼계(三界)의 존귀하신 분 앞에서 큰 서원을 드러낸 그때, 그대에게 주었거니와, 그대는 지금 어찌하여 바야흐로 나에게 찾아와 구걸하는 것입니까." 합니다. 보살의 발심은 일체의 중생이 나의 재물을 자기 소유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서원입니다. 신두강에는 날아가는 새나 걸어가는 짐승이 찾아와 뜻대로 마시되 막거나 보호하는 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주고도 주었다고 하지 않음은 앞서 버리고 떠났으므로 다시 준다는 말도 필요 없기 때문이니, 역시 다시 즐겁다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이미 주는 것이 끝났으므로 일체 버린바 되었고, 모든 중생이 모두 응당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심부름꾼이며, 일체 중생은 모두 시주자입니다. 모든 빈궁한 이의 마음이 충족되었을 때, 보살은 이런 때 보시바라밀을 모두 만족하게 얻습니다.

해설

우리는 보살이 자비심을 성취했다고 말하지만, 보살은 그 자비심에서 한 발짝도 떠난 적이 없었다. 보살의 자비심은 얻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자기 스스로 구족해 있었던 것이다. 보살은 부처님께 보살행을 서원하면서 이미 내 것이라는 관념을 버렸다. 보살은 자신의 재물에 대해 주인행세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준들 주었다는 생각이 없고, 주어서 기뻐할 일도 없다. 어차피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구걸하는 이가 만족하기를 바라며, 그 구걸하는 이가 만족하게 되었을 때, 보시바라밀을 구족하게 되었다고 여기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 환원, 국가의 복지가 확대되기를 요구되는 작금의 시대에 금과옥조(金科玉條)가 아니겠는가.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행복과 자유를 위해

우리 모두는 움직이는 법당이자 부처님

집착을 끊어내고 행복과 자유를 누려라

목불(木佛)은 나무로 만든 부처님이고 석불(石佛)은 돌로 만든 부처님상이다.

철불(鐵佛)은 쇠로 만든 부처님이요 토불(土佛)은 흙 부처님, 지불(紙佛)은 종이로 만든 부처님상이다. 여기에 형상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처님은 마음 부처인 심불(心佛)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는 〈화엄경〉의 대표적 사상(思想)이다. 화엄사상에 담겨있는 세 가지 삼보(三寶)에 대해 설명을 이어 가겠다.

첫째가 주지삼보(住持三寶)인데 앞부분에서 밝힌 여러 형태의 부처님 상을 나무나 돌로 만들어 모시는 신앙을 말함이다.

둘째는 별상삼보(別相三寶)다. 나무를 자르고 돌을 다듬어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 부처님, 나무는 나무 그대로 ,바위는 바위 그대로 천연 그대로가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동체삼보(同體三寶)이다. 진리는 높고 깊고 멀리 있는게 아니라 물처럼 공기처럼 자갈처럼 빨래처럼 널려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험 있는 도량의 기도처는 내가 머무는 가정이요 최고로 영험 있는 부처님은 나의 반려자이자 가족이며 나는 곧 움직이는 법당이자 부처님이라는 것이다.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담겨있듯(一微塵中含十方) 내가 곧 진리요, 부처님이며 발길 닿는 곳이 곧 정토(淨土)요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자, 이쯤해서 쉬어가는 셈 치고 한국불교의 현장으로 눈길을 옮겨 보자. 먼저 초기 경전에 담겨있는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 옮겨 보겠다. "나의 제자들은(수행자) 법의 상속자가 되라,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

그런데 진리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경전 속 활자로만 박혀 있을 뿐 사찰과 승려의 현주소는 '주지삼보(住持三寶)' 주변에만 몰려있다.

주지(住持)나 별상(別相), 동체(同體)가 결코 셋이 아닌 하나이다. 다만, 신앙은 사다리 오르듯 시야가 넓어져 열린 세상의 참 주인공의 삶이 되어야 한다. 믿고(信) 배우고 익혀(解) 닦음으로서(修)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證) 자연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10년, 20년이 넘게 불자(佛子)로서 신앙생활을 해온 대부분의 불자들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제자리걸음에 오랜 세월 머물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흔히들 사찰 경제를 앞세워 기복불교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것은 궁색한 핑계에 불과하다.

예로부터 시인은 배고프고 외로울 때 명작(名作)을 남겨왔다. 르네상스(Renaissance) 의 교훈처럼 문화의 꽃이 곳곳에서 풍요로울 때 종교계의 성직자들은 흔들리고 헐떡이며 괘도이탈을 즐겼던 것이다.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한 것이다.

비우고 버리는 것이 채우고 모으려는 것보다 개운하고 편안하다. 집착은 버릴수록 아름답고 욕심은 키울수록 병이 되기 때문이다.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은 설법하는데 있어 5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 하신다.

첫째는 현실적으로 증험(證驗)되는 성질의 내용과 둘째는 때를 거르지 않고 과보(果報) 가 있는 성질의 내용과 셋째는 누구나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내용과 넷째는 열반(궁극적 행복과 자유)에 인도(引導)하는 성질의 내용과 다섯째는 지혜로운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성질의 내용으로 설법하라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은 설법의 내용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논리와 표현을 갖춘 법(法)을 쥔 주먹을 펴서 보이듯이 가르치라고 말씀하신다.

이 마음이 곧 부처요(是心是佛), 마음 밖에 따로 부처 없으며(心外無佛), 우리네 생활이 곧 진리(生活是道)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만 가지 병의 원인인 집착에서 벗어날 일이다. 내가 그 누구의 것이 영원히 될 수 없는데도 그 누구는 영원히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집착은 다툼과 불신(不信)만 키울 뿐이다.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움직이는 법당이자 부처님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비우고 버리자, 행복과 자유를 위해.

민간자격 국가정보 5765 등록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평가◀

수정기공재활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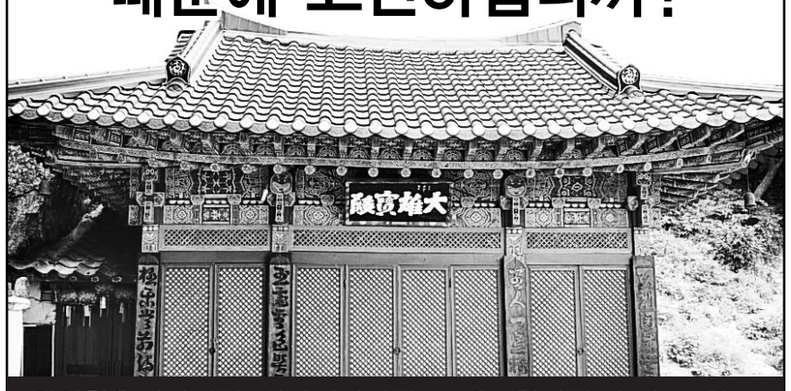
호흡, 자기수련,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하고 이를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보급하여 교육, 상담, 연구,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전문가수준의 재활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심신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유망한 자격증이다.

http://soojung99.pe.kr/index.htmlPNO=138623274964492600

■ 강의내용 : 4~5차원 수정기공
선착순 15명 접수 (매월 시작)
4주 속성 완성
■ 일 정 : 매월 첫주 토, 일요일 1시 시작 4주 완성
■ 강 사 : 뇌교육 박사. 중의사.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20(성대역 부근)
■ 홈페이지 : http://soojung99.pe.kr/
■ 예 약 : 010-3463-7806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사)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

입종 및 사암등록 모집안내

대한민국의 승려라면 누구나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으로 병들어 가는 한국 불교를 바로잡아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의 책무를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널리 모십니다.

사찰등록신청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 인감날인
■ 임대일 경우(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주지 임명 관련서류

■ 서약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 3매(여권사진 규격)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개인사암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사)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총무원

전라남도 영암군 산호리 614번지 ☎ 066)222-6366
대구시 동구 파계로 120길 91-1 자인사 종무실
010-6399-0020 / 팩스 053)984-1129

영상예술로 담아낸 '순환의 미학'

禪과 현대미술
⑬ 빌 비올라(Bill Viola)

일상에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영상의 발전은 생각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영상의 홍수 속에 생각의 기능마저 중독된 듯이 무감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영상기술의 발달과정에서 예술적 영상영역은 오래되지 않았다. 백남준이 시도한 예술에서의 영상작업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예술의 영역을 각인시켰다.

빌 비올라(Bill Viola, 1951~, 미국)는 젊은 시절 백남준의 작품설치를 도와주며 영상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비올라는 백남준의 영상예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영상예술은 기존의 회화나 조각, 설치, 행위예술과는 차별화되며 영상기술을 통한 정신의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 과학의 발달은 영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현실과 관계없이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가상의 영상을 통하여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2000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퐁피듀 센터에서 비올라의 삶과 죽음이라는 영상작품을 처음 접하였을 때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필자 역시 영상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의 작품은 필자를 다시 회화로 복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에 영상예술의 가치와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 비올라의 작품은 더 이상 영상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의 길이 보이지 않는 하나의 커다란 벽처럼 느껴졌던 기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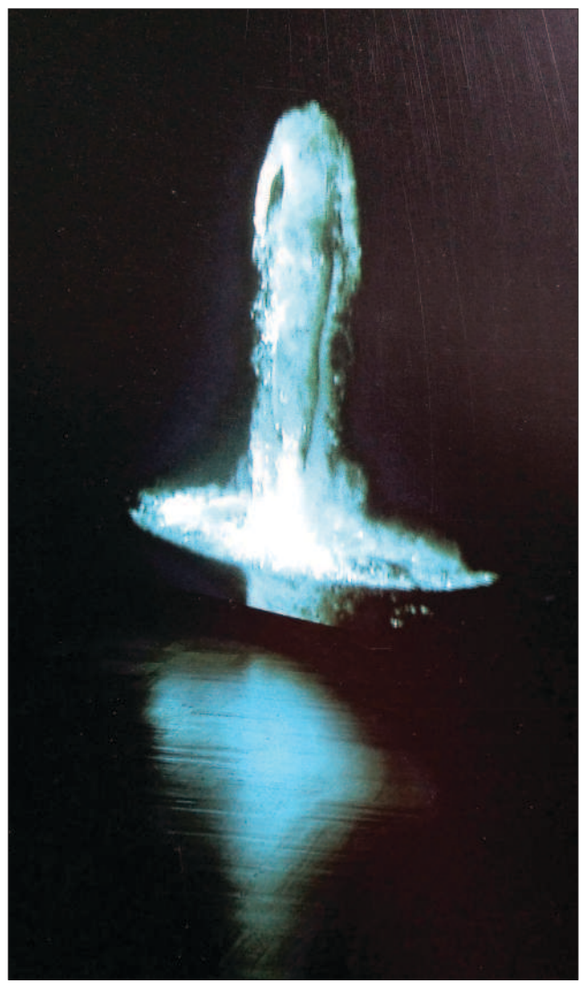
그의 영상은 아주 단순하다. 하지만 너무나 철학적이며, 선(禪)적이다. 그의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물은 인간 내면의 심연을 상징한다. 내면의 깊은 울림은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내면의 바다에는 어떠한 것도 모두 수용한다. 물은 외부의 힘에 반응하여 파장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흐르면 파장의 흔적은 사라지고 원래의 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것은 순간의 작용이다. 그 순간이 연결되며 시간성을 만들어 내고 그 시간의 흐름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생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흔적이 사라지며 그 시간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젊은 시절 그는 일본에 1년 이상을 체류하며 선불교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는 이후 자신 작품의 철학적 배경이 된다. 비올라가 일본에 머무르며 경험한 것들은 시간의 흐름이다. 하루라는 시간을 자신이 살았던 미국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부분과 일본에서 머물며 체험하는 시간이 다르게 느껴진 것이다. 그에게 중요한 경험이며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왜 일까? 어디를 가나 주어진 시간은 같은데 장소에 따라서 느껴지는 시간은 다를까?

필자가 처음 선을 하던 경험이 생각이 난다. 대학교 3학년 당시 처음 접한 좌선은 왜 그리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처음에 30분을 앉아 있는데 30시간처럼 느껴진 적도 있다. 아마도 비올라가 처음 좌선을 경험했을 때도 이와 같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

이러한 체험은 그의 작품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많은 평론가들은 그의 작품을 평가할 때 '느림의 미학'을 이야기 한다. 그의 작품들은 정지된 듯 보이나 변화한다. 변화하는 듯 보이나 변화하지 않는다. 느리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현실에서 우리의 삶은 매우 빠르게 변화한다. 변화에 적응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 나 홀로 느리게 갈 수 있는가? 즉, 다시 말해 빠르고 느리고의 시간적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빠른 것은 좋지 못하고 느린 것은 좋다고 한다면 이것도 분별이다.

빌 비올라의 작품 'Five Angels for the Millennium, 2001, –Ascending Angel'〈사진 왼쪽〉과 'Five Angels for the Millennium, 2001– Departing Angel'〈사진 오른쪽〉의 한 장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짧은 순간 머물러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상은 변화하거나 사라짐을 보여준다.

백남준 비디오 작품 설치 도우며
영상예술 관심… 日 선불교 배워

정지된 듯 보이는 영상엔 변화가
반복 영상 통해 순환의 의미담아
작가 특유의 깊은 사유세계 경험

과학기술에서는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많은 기술자들이 연구를 하며 시간의 효율성을 찾아가고 있다. 반대로 수행자들은 천천히 가라고 한다. 그래야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 과연 그럴까?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 시간성과 생각의 깊이는 별로 관계성이 없어 보인다. 예를 들면 깨달음에 이르는 데에는 수행의 시간이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인다. 예술가도 많은 작품을 하고 오랜 시간 그린 작가가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 즉,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나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은 시간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과 집중력의 문제라고 생각해 본다.

비올라는 우주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우주는 정지된 시간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에 의하여 움직이며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자신의 작품 속에서는 영상의 표현으로 보여줄 수 없는 정신적인 영역을 영상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짧은 순간 머물러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상은 변화하거나 사라진다. 그러면 그 순간 경험하며 느꼈던 느낌이나 감정은 어디로 갔는가? 이러한 그의 생각들은 영상의 속도를 조금 느리게 작동하는 것이다. 움직이는 시간들이 느리게 작동하며 만들어 내는 이미지들은 전혀 다른 생각과 에너지의 흐름을 보여준다.

비올라는 떠나간 영혼들이 영상을 통하여 잠시나마 현세로 돌아오기를 제안한다. 위대한 스승이나 역사적인 사건들을 영상으로 다시 연출함으로써 스승님들의 가르침이나 역사적 교훈 등을 통하여 현재의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생각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영상을 통하여 보게 되는 스승님들의 모습에서 육체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 단지 스승님들의 가르침은 현재에도 살아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육체가 없는 정신이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영상은 이처럼 가상의 시공간성을 투영하며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은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때문에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통하여 그는 순환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순환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비올라가 일본에 머물며 체험한 선적 경험들이 서양적 관점에서 표현된 작품들이 그의 예술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동양과 서양이라는 문화적, 종교적, 철학적, 지리적 특성들이 사라지고 인간 본래의 모습을 추구하고자하는 그는 영혼, 순환, 죽음, 삶 등을 한순간의 짧은 영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의 영상에 등장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빛이다. 빛은 물리적인 영역과 형이상학적인 영역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빛은 탄생의 순간을 상징하기도 하며 나아가서 고통의 벽을 벗어나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고통은 내면에 존재하는 정신성의 발현으로 나타난다. 어두운 공간에 빛이 들어옴으로 해서 공간은 생명력을 얻게 되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회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의 영역은 제한적일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영상예술은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미지들을 합성하거나 연출하여 현실과 거리가 있는 가상의 이미지들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은 가상인가? 현실인가? 가상의 현실인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영상에는 존재하는 이미지들은 또 다른 현실이다. 이는 관념적 사고와는 다른 것이다. 관념적 사고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이며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현실과는 관계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영상은 가상의 세계를 현실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영상속의 이미지들 때문에 가끔은 생각의 오류를 범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작자의 의도에 의하여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비올라의 경우 영상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비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상을 보면 깊은 사유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가 제시하는 영상들은 비현실적이지만 현실의 삶을 변화시킨다.

현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늘 우리의 존재가치를 찾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동서양의 많은 수행자들이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며,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의 표현적 기교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술작품은 작가의 정신성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흔적을 보고 작가의 정신성의 깊이를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판단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작품을 보면 반응이 작가의 깊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스승의 단면을 보고 자신의 방식으로 판단하여 스승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어떻게 하면 판단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까? 이는 아주 간단하다. 자신이 안다는 생각을 모두 버리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고 습득한 지식으로 스승이나 작품을 대하면 그것은 판단의 오류가 많아질 뿐이기 때문이다.

'아는 것을 버리다'는 필자가 주장하는 예술을 대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아는 것을 버리면 낯선 작품일지라도 그 깊이를 느낄 수 있다. 내면의 깊은 심연으로부터 자신만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상예술은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고요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백남준은 영상예술을 시작하며 예술의 영역확장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면 비올라는 영상예술의 2세대로서 시대적 흐름을 주도하며 철학적, 선(禪)적 개념들을 예술의 영역으로 도입하여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예술가이다.

한국에도 방문하여 자신의 작품을 선보인 비올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인 영역을 예술로 표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가 보여주는 영상은 시간의 흐름을 정지시키는 듯 한 착각을 하게 한다. 시간, 공간, 역사, 문화, 철학 등 보편적인 삶의 궤적에서 벗어나 영원한 존재를 꿈꾸는 듯 한 그의 작품들은 삶의 존재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선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

연꽃 만개한 7월, 전국은 지금 蓮花 세계

전국 사찰 · 지자체 등 '연꽃축제' 일제히 개최

'연(蓮)'은 불교의 꽃이다. 연못의 진흙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워내는 모습에 부처님은 더러운 곳에서도 항상 맑은 본성을 간직하고 있는 청정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연꽃에 비유했다. 또한, 연꽃은 오랜 수행을 통해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른 수행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런 청아한 모습에 적지 않은 유학자들도 연꽃을 '화중군자(花中君子)'라고 칭송해 왔다.

7~8월이면 연꽃이 만개하는 시기다. 이에 맞춰 전국의 사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연꽃축제를 개최해 연꽃의 매력을 국민들에게 전한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일관)는 7월 16일 경내 일원에서 '제14회 행복바라미 봉선사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 그림그리기 ·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며, 저녁 7시부터는 특별무대에서 뮤지컬 스타 전수경 씨와 전문 뮤지컬 배우가 함께 하는 뮤지컬 갈라쇼 · 판소리와 드럼의 플래시 공연 등이 진행된다. 또한 연꽃셀카포토대회 · 108보물찾기 · 사찰음식 시식 및 전시 · 전통등(燈) 전시 등 상설프로그램도 마련된다. (031)527-195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주지 석암)는 7월 30일 '2016 서울 연꽃문화대축제'를 연다. 캐리커쳐 · 한지 공예 · 페이스 페인팅 · 차 시음 · 스님의 가훈 써주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경내 특설무대에서는 산사음악회도 열릴 예정이다. (02)392-3007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하소백련지 일원에서 '2016 하소백련축제'를 연다.

하소백련축제에서는 백련음식 · 다례 · 천연염색 등 연을 이용한 행사와 연을 테마로 한 조형미술전 · 백련사진전 · 회화전이 열린다. 또한 불교조각전과 해금 연주 · 퓨전밴드 연주, 그리고 군산예술단의 공연 및 시낭송회 · 품바 공연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063)542-8943

지자체들도 잇달아 대규모 연꽃 축제를 연다. 백련으로 유명한 무안군은 오는 8월 12일부터 15

봉선사 16일, 봉원사 30일 개최
불자 · 시민 위한 체험 · 공연 '다채'
부여 · 무안 등도 연꽃축제 한마당

일까지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백련의 향기, 백년의 사랑'을 주제로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20회째를 맡는 무안군 연꽃축제 개막식에서는 결혼 50주년을 맞는 부부 9쌍을 초청해 금혼식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황토골 무안요리 경연대회, 군민노래자랑, 전국각설이품바 왕중왕전, 중년건강클럽대회 등이 주요 행사로 열린다. 코레일과 연계한 무안연꽃축제 특별관광열차 운행, 무안시티투어 등도 연꽃축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다.

또한, 무안군은 연꽃축제 장소 인근의 야외물놀이장을 활성화하고 지난 6월에는 오토캠핑장을 개장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는 축제를 위해 준비 중에 있다. (061)450-5472

한국 최고(最古)의 인공연못인 궁남지에서도 연꽃 개화시기에 맞춰 연꽃축제를 연다. 부여군은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제14회 부여서동연꽃축제를 '연꽃愛 빛과 향을 품다'를 주제로 개최한다.

2015, 2016 2년 연속 대한민국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된 부여서동연꽃축제는 백련, 홍련, 수련, 가시연 등 10만여 평의 연지(蓮池) 50여 종의 다양한 연꽃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개막식에서는 서동과 선화공주와의 사랑이야기와 서동이 무왕으로 등극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창작 국악 뮤지컬 '서동의 노래'가 상연되며, 백제역사문화지구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린다.

주요행사로는 △제2회 서동요 전국 창작동요대회 △MBC 사랑 콘서트 △부여군민 노래자랑(다문화 사랑편) △백제기악 미마지 탈춤극 공연 △부여생활체조 연합회 정기공연 △제2회 부여청소년 예술제 '서동의 꿈' △제14회 서동연꽃축제 사생대회 등이 진행된다. (041)830-2211

경기 양평군 공공기관인 세미원도 오는 7월 31일까지 '마음을 아름답게'를 주제로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전시 프로그램으로는 △오감으로 만나는 연꽃(백련지, 홍련지 등) △물빛 위에 생명 피다- 정크아트 전 등이 진행되며, 연잎밥 · 연잎차 체험, 시각장애인 사진촬영대회 등도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031)775-1835

이와함께 (사)우리문화연구원(이사장 성우)도 오는 7월 16~17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전주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동서문화 십자로' 아프간의 황금문화

국립중앙박물관, 9월 4일까지 특별전
베그람 등 4곳 유적 시기적 조망
관련 유물 231건 한국 최초 전시
신라 금관 기원 만나는 유물 '눈길'



틸리야 테페 6호분 출토된 금관. 신라 금관의 기원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교차했던 아프가니스탄의 찬란했던 문화를 만나보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7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특별전 '아프가니스탄의 황금문화'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아프가니스탄박물관의 소장품 231건을 중심으로 고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전시이다.

이란 고원 동북단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등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이다. 지형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한 이 지역은 서쪽의 유럽, 동쪽의 중국, 남쪽의 인도를 연결하는 문명의 교차로이자, 실크로드의 요충지였다. 토착적 요소와 외래적 요소가 상호 융합하여 탄생한 아프가니스탄의 고대 문화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문화 연구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페 푸롤 · 아이 하눔 · 틸리야 테페 · 베그람 등 네 곳의 유적지를 시기별 흐름에 따라 조망한다.

한국인에게 눈길을 사로잡는 유물은 '황금의 언덕'이란 뜻의 틸리야 테페 유적 6호묘에서 발굴된 '금관'이다. 이는 신라 금관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관련 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쿠샨 왕조의 여름 수도로 번영했던 베그람 유적도 눈길을 끈다. 베그람은 7세기 중국의 현장스님이 기록한 '카피시국'의 도읍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궁전터에서는 많은 양의 유리기, 청동기, 석고, 칠기 등 다채로운 문화유산이 출토됐다. 실크로드와 해상무역으로 번영했던 도시의 모습에서 활발했던 동서 문물 교류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전은 2006년 파리의 기메박물관을 시작으로 워싱턴의 내셔널 갤러리,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런던의 영국박물관 등 지금까지 11개국 18번째 기관에서 전시를 이어왔다. 한국은 개최 12번째 국가로, 특히 올해는 순회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도록에는 한국 문화와의 연관성을 살피는 다양한 칼럼을 수록하여 전시 이해도를 높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고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새롭게 담아내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와 연계한 특별강연으로 오는 7월 21일 대강당에서 민병훈 前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의 '출토 유물로 본 아프가니스탄과 고대 한국문화'를 진행한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황금문화' 특별전은 9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02)2077-9000 신성민 기자

사비백제 상징 '부소산' 출토 유물 한자리에

국립부여博, 10월 3일까지 부소산 특별전

백제유적지구 등재 1주년 기념
금동삼존불입상 등 유물 전시



부소산 출토 '정지원'이 새겨진 금동삼존불입상(보물 제196호)

사비백제의 상징인 부소산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부여박물관(관장 구일회)은 7월 5일부터 10월 3일까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부소산'을 개최한다.

사비(現 부여)는 한성, 웅진에 이어 백제의 세 번째 도읍지로, 부소산은 사비백제 왕실의 후원이자 배후성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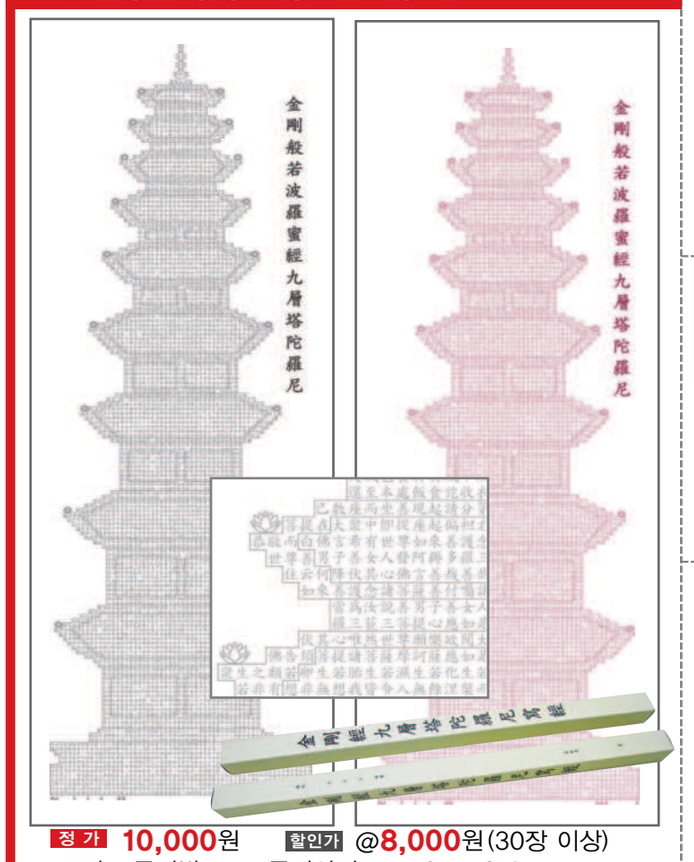
아울러 부소산은 부여의 역사와 문화의 산실로 조선시대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고문헌에서 부여의 '진산(鎭山)', 혹은 '주산(主山)'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소산에는 사비백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와 문화의 흔적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보물 제196호 '정지원이 새겨진 금동삼존불입상'과 '금동광배' 등을 비롯해 부소산에서 발견된 다양한 백제의 문화유산들이 소개된다. 이들 유물들은 백제의 불교 문화와 귀족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들이다.

또한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다양한 무기류를 통해 사비백제의 방어체계와 최후의 항전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부여신궁' 건설 공사 중에 부소산에서 발견되었던 청동제 일괄유물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소개된다.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백제와 백제의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전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통일신라 이후의 부소산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특)대형금강경 9층 탑사경지 〈먹/적, 종이박스포함〉



정가 10,000원 할인가 @8,000원(30장 이상)
• 포장 : 종이박스 • 종이사이즈 : 76㎝×210㎝



영가옷 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옷 B형-여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30,000원 / 30,000원(100개)
할인가 @270원 / @270원(1000개이상)



※크기
• 15.5×19㎝

한지 · 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30,000원(100벌)
할인가 @270원(1000벌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정 가 1,500원
할인가 1,300원 100개이상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6.30~2015.7.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2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주)조계종출판사
3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4	지장기도(손으로쓰고마음으로그리는)	지원스님	민족사
5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6	흘반난,밥먹기어렵다	김진태	불광출판사
7	스님의 생각(자유하라,깨우쳐라,행복하라)	정법안	쌤앤파커스
8	경허선사 선시(현담이좋아하는)	현담	도서출판선
9	깨달은 절수행이란?(청견스님의 천만배 완결)	청견스님	다르마킹
10	미산스님초기경전강의(개정판_양장본)	미산	불광출판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저자와의 1문 1답

‘불교적 깨달음’ … 父가 내린 평생 화두



저자 **황경환**은?

울산 온산서 태어나 동국대 교육대학원 윤리교육학과를 수료했다. 1977년부터 한국불교원구원과 인연을 맺어 30여년간 이 단체의 이사 및 연구위원으로 활동 했다. 현재는 초기불전연구원 선임 연구원으로 있다. 또한 1980년부터 현재까지 국제 PTP(People to People: 세계평화구현을 위한 국제민간외교 단체) 회원으로 활약중이며, 지난 1996년과 97년 국제 PTP한국본부 총재직과 울산불교방송 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바른불교실천포럼 회장, 동국대 경주캠퍼스 평생교육원 교수, (주)진양유조선 대표이사, (주)경주 ICS대표이사로 있다. 저서로는 〈반야심경〉(김사철, 황경환 공저)과 연구논문인 〈신라불교의 윤리적 성격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번 책은 증보판이라 들었는데 내용이 어느 정도 바뀌었나요?

약 10% 정도의 내용이 보강됐다. 또한 영의 존재, 사성제, 팔정도 등의 내용 이해를 명확히 도와줄 체계화된 도표와 도식을 10여 장에 걸쳐 실었다.

대승불교 경전을 30여년 간 공부하면서 명확히 알 수 없어 답답해하던 개념들을 극히 사전적이고 명확하게 도표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37보리분법, 괴로움의 발생 및 소멸 구조, 12연기 등은 결국 누구라도 윤회의 족쇄를 끊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어쩐지 많이 다루지 않아 의미가 모호해졌다. 이 부분을 도표로 명확히 했다.

–이 책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불교를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 읽힐 목적으로 쓰였나?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한다. 불교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삶의 가치를 인식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지 사유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라도 이 책을 쉽게 공감할 것이다. 다만 내용 자체가 어려워 재미가 없을까봐 역사 문제, 일반 상식 문제 등도 다뤘다. 또한 책 속에서 일본 불교문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책은 연기적 무아를 내세워 세상과 싸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불교를 바르게 알리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받아들일지 여부는 듣는 이들이 선택해야 한다. 30여년 간 불교 공부를 하면서 관심없는 이들은 어떠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오죽하면 부처님이 ‘인연없는 중생은 어쩔 수 없다’ 고 말하지 않았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향한 정보를 전할 뿐 선택은 타인의 몫이다. 니까야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다. 불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다. 부처님은 내 말을 들어볼래라고 말한다. 상대방이 청하면 그제서야 설법했다. 부처님은 본인의 다르마가 필요한 중생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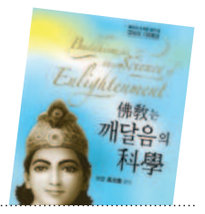
–불교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9살 때 아버지가 죽음에 대해 아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전까지 내 의식에는 죽음이란 개념이 없었다. 아버지는 뒤이어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불교 공부는 꼭 해보라고 당부하셨다. 불교가 전하는 내용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 아버지께서는 논리적인 불교를 알진 못했지만 ‘관세음보살’을 반복해서 외우시는 신심이 있는 분이셨다. 당신의 정확한 속마음을 헤아릴 순 없었지만 그 말은 인생의 화두가 됐다.

1987년에 김사철 박사를 만날 때 까지는 불교를 잘 몰랐다. 김 박사는 초기 불교에 대단한 지식이 있었다. 컴퓨터응용수학을 전공해 NATO서 방공망 설계를 한 분이다. 어느 날 그가 울산서 〈반야심경〉의 ‘공즉시색 색즉시공’의 의미를 말하는 것을 듣고선 깨달음의 희열을 느꼈다. 그때까지 수없이 반야심경을 읽고도 의문투성이였는데, 조목조목 과학적 예를 들어가며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기가 막힐 정도였다. 이후 김사철 박사에게 10여 년 동안 팔리어 경전을 사사받고, 2002년에 초기불전연구원에 합류했다. 이후 전재성 박사가 쓴 팔리어 사전 제작 비용을 후원했고, 각종 팔리어 관련 책을 집필하는 등 열심히 활동했다. 내가 똑똑해서라기보다 인생을 살면서 부처님의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고 과학적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초기 불전을 보면 대승불교 속 부처님의 말씀이 많이 왜곡됐다고 했다. 그렇다면 불자들은 초기 불교를 꼭 알아야 하나?

그렇다. 초기 불교를 정확히 이해하면 대승경전에 나열된 말씀 모두를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승불교는 신앙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 부처님 말씀이라도 검증되지 않으면 논란이 일게 될 것이란 의미다. 가령 대승불교서 ‘관세음보살’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의 존재는 서기 1세기 이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관세음보살을 통해 삼매에 들라는 말도 전혀 없다. 대승불교 경전은 그것만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굳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의미가 퇴색된다. 대승경전은 쓴 연대와 저자가 없다. 있다고 해도 용수보살이 용궁에 보관된 책을 펼칠 때 6000명의 전각보살이 나타난다는 내용이다. 초기불교를 이해하면 객관성과 상식 안에서 정직하고 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이다.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황경환 지음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 1만5천원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은 저자가 살아온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온통 불교적 깨달음에 쏠려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다. 저자는 아홉 살의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듣던 ‘누구나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일종의 화두로 받았다. 그리고 통도사 극락암 경봉 스님을 비롯해 불교계 선지식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꾸준히 불교적 깨달음의 열매를 숙성시켜 왔다. 그 숙성된 열매들을 108가지 요담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다.

저자 황경환 회장(진양 유조선 대표이사, 초기불전 선임연구원)은 “불교 공부를 한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추상적으로 불교를 과학이라 했지만 분명한 증거와 논리적 설명이 부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여지껏 부족했던 부분이 짤막하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돼 있죠. 특히 중요한 것은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깨달음, 다시 말해 열반을 쟁취하는데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열반은 특정 종교인들만의 몫이 아니라 누구라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태어나고 병들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암담한 삶의 실존적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생로병사가 우리 의식이 빚어낸 ‘전도망상’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과학적 방법을 동원한다면 누구라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이 책 속에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온갖 풍파 자체를 깨달음에 접속키 위한 일종의 화두로 받아들였다. 세상 풍파와 싸우다가 지면 그 사람은 심신이 부패될 뿐이지만, 그 싸움 자체를 나와 너와 세상과 우주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로 삼으면, 그것은 오히려 깨달음의 촉매가 돼 그 사람을 성숙케 하는 계기가 되어준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즉 걸림돌이 오히려 받침돌이 된다는 것이다. 똑같은 물을 마셔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듯이, 그는 인생의 모든 풍파를 숙성 발효시켜서 깨달음을 무르익혀 왔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선 자립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나의 지성(知性)을 성숙시켜 주었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듯 꼬랑꼬랑한 내 사까야(몸)는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항상 가슴에 품고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화두는 더더욱 나로 하여금 불법의 의미에 가깝게 다가가도록 채찍을 가해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무명(無明)의 동아줄로 꽁꽁 묶여 있음을 뼛속 깊이 자각하고는 어떻게든 이 생사의 꿈서 깨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한다. 마음의 중심이 깨어 있는 사람은, 보고 들리는 모든 것을 깨달음을 위한 공부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그의 불교적 살림살이의 바탕은, 부처님의 본래 음성에 가장 가까운 근본불교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 저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초기불전 인용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줄줄 흘러나온다. 그가 근본불교를 내내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는 증거는 이 책의 여기저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명 족쇄 풀어줄 108가지 요담 정리
저자의 해박한 근본 불교 지식 돋보여
불교교리 이해 쉽게 도표와 도식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근본불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2,500여 년 전 부처님 말씀을 현대과학이 어떻게 입증해 내는지를 탐구해 오면서, 그 결실들을 책의 곳곳에 선보인다. 현대과학은 불교가 추상적인 문자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곧이곧대로 작용하는 과학이라는 것을 점점 더 여실하게 증명해 가며 이를 내면화시킴으로써 불교의 현대화를 시도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책에는 한 가지 분명한 장점과 또 한 가지의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만약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나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단 것이죠. 또 장점은 누구라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삶의 어려움, 즉 생로병사와 이별 등을 겪고 ‘나는 왜 지구에 왔으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가져본 사람은 단 번에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단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에 쓰여진 모든 구절들이 무명의 족쇄를 풀수 있는 원군이 되기를 바랍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우리 삶을 바꾸는 기적, 절 수행!

청견 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다스려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절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생생한 경험담!



다르마킹 칼리지
매주 화~토 오후 2시
절 교육 및 수행 점검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 스님의 신작!

전국에 108배 열풍을 일으킨 청견 스님이 그동안 천만 배의 절을 하며 체험한 이야기들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울림들을 담았다.

현대인이 겪는 몸과 마음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절 수행의 기본 동작부터 마음가짐,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첫 책보다 더욱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간중간 그려 넣은 다양한 일러스트는 책을 보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청견 스님 지음 / 신국판 / 328쪽 / 값 15,000원

깨달은 공동체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 전화 010-3487-0035 ● www.법왕정사.net ● 판매총판 : 운주사 02-3672-7181 ● 인터넷서점: 붓다북

中서 부처님 두정골 안치 사리탑 발견

라이브사이언스 "1000년 전 것으로 추정"

부처님 두정골(頭頂骨)을 안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리탑이 발견돼 주목을 받고 있다.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은 6월 30일 "조사팀들이 중국 난징 지역에 있는 불교 사원 지하실에서 10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황금 상자를 발견했다. 황금 상자 안에는 사리탑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사리탑은 높이 117㎝, 너비 45㎝로 중간에는 철제 상자가 보관돼 있다. 재질은 백단향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금 · 은 · 수정 · 청금석 등과 함께 화려한 연꽃무늬와 봉황새 등 장식으로 꾸며졌다. 또한 불사를 위해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새겨져 있다.

상자에는 '더밍'이란 이름의 1000년 전 인물이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도 발견됐다.

더밍은 "히란야바티강가에서 열반에 든 부처님 다비식을 진행했으며 아소카왕은 사리를 8만4000개로 나누었는데 그 중 19개가 중국으로 건너왔다"며 "진종 황제 지시에 따라 19개 부처님 진신사리를 보관해오던 중국 창간사가 1400년 전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파괴, 소실됐다.



중국 난징 지역 한 사원서 사리탑이 들어있는 1000년 전 황금상자가 발견됐다. 연구진은 2008년 발굴된 부처님 두정골 사리가 이 사리탑 안에 보관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밍'이 새긴 문구 토대로
제작년도 · 보관장소 추정
보관된 19개 진신사리 중
"두정골 사리 있었을 것"

하지만 이 사리탑은 잘 모셔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들은 발견된 유물이 중국 북송 진종(997~1022) 황제 때 제작돼 중국 창간사서 보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문구에 따라 밝혀진 제작 년도와 보관 장소를 토대로, 2008년 창간(長干)사 지하궁에서 발굴돼 난징박물관서 보관 중인 두정골이 이 사리탑에 보관돼 있었을 가능성을 나타냈다. 2008년 7월 난징 대보은(大報恩)사 유적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비각에 '북송(北宋) 진종(眞宗) 4년(1011년)에 창간사를 중건하면서 지하궁을 만들어 아소카왕탑을 제작, 안치했으며 이 탑 안에 부처의 두정골 사리와 감응사리, 제성사리 등을 모셨다'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아울러 연구진들은 이 두정골이 북송 초기 3대 고승으로 알려진 시호(施護) 스님이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리탑은 높이 117㎝, 너비 45㎝로, 백단향나무로 만들어졌다.

사진출처=라이브 사이언스 닷컴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은 "당시 두정골이 발견 됐을 때 해외 언론에는 많이 보도되지 않았지만 중국과 불교문화권 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2008년부터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불자가 두정골 사리를 보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미얀마 불교도, 이슬람 사원 불 질러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 갈수록 극심해

전 세계가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테러 공격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반면, 불교도 국가인 미얀마에선 이슬람 사원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7월 2일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1일 북부 카친주(州) 파칸트의 론킨 마을서 불교도 150여 명이 이슬람 사원의 기도실을 파손하고 불을 질렀다. 또 사원 밖에 모인 500여 명의 불교도들은 경비에 나선 경찰관들에게 사원을 파괴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불을 끄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의 진입을 막거나 경찰관을 공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단 한 명도 검거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바고 주(州)에서 불교도들이 이슬람 사원을 습격, 이슬람교도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벌어졌다.

바고주 투에 타 메인 마을에서는 지난 6월 23일 200여 명의 불교도가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 소동을 벌였다. 이 과정서 사원 건물 일부와 공동묘지 울타리 등이 훼손됐지만 당시에도 미얀마 정부는 이 사건을 수수방관했다.

인구의 90%가 불교를 믿는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은 정식 국민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방글라데시계 불법 이민자인 '벵갈리'로 불리며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2012년 불교도와 무슬림 간 집단 폭력사건으로 200여 명이 사망한 후엔 로힝야족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졌다.



미얀마서 불교도 150여 명이 이슬람 사원을 파손하고 불을 질렀다. 사진출처=로이터통신

이 사건 이후 로힝야족은 차별과 폭력을 피해 태국 등 인근 국가로 피난하며 '보트피플' 신세가 되기도 했고, 일부는 난민캠프에 수용돼 기본권을 제약당한 채 살고 있다.

지난해 총선을 통해 집권한 아웅산 수치도 소수민족 간 분쟁 해소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유독 로힝야족 문제만은 외면해왔다. 수치는 최근 로힝야족이라는 명칭 자체가 국가 화합을 저해한다면서, 현지 주재 외국공관 등에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웅산 수치의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첫 현지 인권실태 조사에 나선 이양희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도 미얀마 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양희 보고관은 "이슬람에 대한 탄압을 수수방관하는 정부 태도는 분명 잘못됐다. 정부는 소수민족, 소수종교를 상대로 한 폭력을 조장하거나 실행하는 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형 객원기자

대만 용산사, 3D 기술로 영원히 보존된다

비영리단체 'CyArk'와 손잡고 디지털화… 가상현실 구성

대만 루깡 지역 용산사가 3D 가상현실 공간으로 재구성됐다. 스모그와 지진 피해로 인한 훼손을 우려한 용산사가 최첨단 디지털 스캐닝 기술을 이용, 사원 모습을 3D 기술로 기록한 것이다.

건축 전문 블로그 매체 'Curbed' 7월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용산사는 끝없는 스모그 피해와 함께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탓에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용산사는 수년 간 보존법을 모색해오다 비영리단체 'CyArk'와 손잡고 용산사 전체의 모습을 디지털화해 전례 없는 가상현실을 구성했다.

CyArk는 지난 3월 (주)Iron Mountain 후원을 받아 3D 디지털화 작업에 착수했다. 13년간 개발해 온 최첨단 스캐닝 기술을 활용, 중국과학기술대학과 협업해 약 893㎡ 규모의 사찰을 3D로 재구성했다.

현재 이 3D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됨에 따라 전 세계인들은 온라인상에서 용산사 투어가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Curbed'는 "이 디지털 기록은 후손들이 사찰을 유지 · 복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로스 데이비손(Ross Davison) CyArk 매니저는 "앞으로는 사찰에 어

최첨단 스캐닝 기술 이용
사원 전체 3D로 만들어
온라인상 투어 가능해져

떤 재난이 닥쳐도 3D 환경을 통해 용산사 모습을 볼 수 있다"며 "22세기 후손들에겐 말 그대로 용산사의 과거 모습으로 여행이 가능하게 된 셈"이라 설명했다.



대만 용산사와 비영리단체 CyArk는 지난 3월부터 용산사 3D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완성된 '디지털 용산사' 모습은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 사진출처=Curbed

루깡 용산사는 5,000㎡ 규모로, 18세기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름다운 건축 양식과 조형물 등으로 인해 대만 불교도들에게 관음성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천장 장식과 용 조각상 등으로 매우 유명하다. 1983년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한편 CyArk는 2003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서 바미얀 불상을 파괴한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비영리단체다. 3D 레이저 스캐닝 기술, 사진측정지도 제작술 등을 이용해 전 세계 유산들을 디지털로 저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마지막 펑라이 목조불상, 대여 중단"

대만 청수조사 사원, 7월 4일부터 시행

1937년부터 지역 사찰들에 목조불상을 대여해줬던 청수조사(淸水祖師) 사원이 대여정책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TAIPEI TIMES'는 "단수이 지역과 완화 지역 2곳의 청수조사 사원이 대만서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으로 추정되는 '펑라이 목조불상'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불상 대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며 "이 방침은 7월 4일부터 시행됐다"고 보도했다.

리 짠쭝(Lee Tsung-tsan) 청수조사 사원 부운영위원장은 "펑라이 목조불상 대여일수가 한 달에 20일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 사원 신도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특히 지난 3월엔 다른 사찰로 옮겨지는 도중 불상에 금이 갔다. 이후 불상보호에 더욱 신중해야 함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부위원장에 따르면 펑라이 목조불상은 100여년 전 중국서 약 7~8개 제작됐다. 그 중 몇 개가 대만으로 옮겨졌지만 청수조사 사원서 보관하고 있는 것 외엔 행적이 불분명하다. 중국에 남아있던 나머지 불상마저 문화혁명 기간 동안 모두 파괴돼 펑라이 목조불상의 희소성과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리 짠쭝 부위원장은 "현재 이 곳서 보관 중인 불상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우리 사원이 이 목조불상을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할 의무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펑라이 목조불상. 사진출처 kashmirhuang.blogspot

박아름 기자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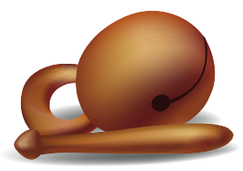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자고로 사람들은 말이 많아도, 말이 적어도, 말이 없어도 비방을 하고 비방을 받았다. 비방하거나 비방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비방만 받고, 칭찬만 받는 사람은 지난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정암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529-1076
010-9944-1075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암, 질병, 재판, 묘터, 교통사고 운을 얼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 성명학+사주+백초귀장술
– 수강후 자격증 수여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강의)
010-4014-8822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구궁성명학
23기 모집을 위한
무료 공개강의
7월9일(토)11시
본 수업 당일 14시부터
좋은이름연구원
02-383-8860
010-770-2248

파동명상요법
병원에서 병명이 안 나오는 분. 빙의, 영가장애로 고통받는 분, 우울증 등 심인성 질환자
041-555-0374
주지스님 찾으세요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범패작법 전문교육 수강생모집
(6개월과정 / 수시접수)
교육내용 : 조석예불,새벽종송,사시불공,천도재, 사십구재,점안의식,구병시식,각종불공
바라무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관욕바라,화의재바라,명바라
나비무 : 도량게,다게,운심게,오공양, 삼귀의,육법공양,향화게,법고무
* 범패작법 전문스님들이 사찰 각종행사 대행하여 드립니다 *
* 전생체험 및 빙의환자 퇴마치유 전문*
010-5269-4168
(연화사 범패작법교육원)

법당 철거전문
(재활용 센터)
퇴불, 철거, 견적, 불교용품, 매입, 판매 정성을 다해 퇴불, 철거 깨끗하게 해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기업
(주)다사팜
010-2395-33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동구 불로동)
010-2515-066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60대 이상)
010-3524-8930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3499-3721

수행처 마땅하지 않은
비구니스님 전화주세요
개인방사드림. 큰방사 서재 및 다실, 욕실, 거실, 주방 (20평)
(양산 통도사 부근 산사도량)
010-4640-4747

절에서 일하실 처사님 모십니다
(경북 안동)
010-8576-4450

사찰 처사 (운전가능)님 모십니다
(숙식 필수 / 50세 이상, 경기도)
010-5264-8312

보통기도가 아니고 아주 독특한 비법기도를 스님에게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
공간내 행동이 자유롭고 흡입력이 좋은 마이크를 만들겠습니다. 이정도면 잘 나온다며 종교인의 심리를 이용하지 않고 재공사로 마음에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제10-1317539호)
010-4440-8687

漢文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漢文 / 한글(겸용) 불교상용의식집"은
漢文念佛 한글염불 경전공부까지 스님들과 불자님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불교 상용의식집입니다!



● 제1권 (예경/각청) ● 제2권 (천도/시식) ● 제3권 (수계/방생)
● 제4권 (장의) ● 제5권 (점안) ● 제6권 (독송집)
● 제7권 (토속의식 모음집)
각권 20,000원
(스님과 신도가 함께하는 법당용 책 사찰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묵 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 (장엄사)
010-7144-7339 (총 무)
010-5277-8024 (스 님)
계좌번호 : 농협 735091-52-058288 박명덕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한국불교전체 종단 · 단체 법인연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을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대개의 작명서(作名書)들이 한결같이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에만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다. 좋은 이름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은 물론이고, 주역팔괘(周易八卦)에 맞추어 지어야 비로소 좋은 이름을 얻을 수 있다.

주역(周易)을 전혀 모르는 일반 독자들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 책을 만나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또한 측자, 파자의 법칙상 이름에 쓰면 절대로 안되는 불용한자(不用漢字)를 모두 수록하였기 때문에 작명(作名)과 개명(改名)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리라 확신한다.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 선정 인명용한자(人名用漢字) 8,142자 전부를 수록하였다.

易理作名法 (503쪽) 판매특가 : 30,000원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즉시 발송해 드립니다.
■ 기업은행 530-002326-01-014 (예금주 : 손상용)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324-2468 / 010-9391-5699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비록 조금이라도 욕심을 맛보는 것을 괴로움으로 안다.

- 법구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도심 속의 땅넓은 사찰◀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총부지 : 4,000여평 ※일부 주거지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
- 조망권 : 먼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전망

▶ 백두대간 격조높은 사찰◀
- 위치 : 강릉
- 총부지 : 2,000여평(100% 가용), 버스 진입 가능
- 건물 : 목조건물 5동(대웅전 25평) 산좋고, 물좋은 고장(계곡물 철철)
- 가액 : 5억 3천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이박사 추천 정선카지노 부근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한옥황토 법당 70㎡, 황토요사채 110㎡, 주차장 있음
- 토지 500㎡, 교통편리함
- 접근성 좋으며 주변산이며 위치좋음
- 시설깨끗하며 대로변 사찰
- 가액 : 3억 3천만원. 조정가능(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위치 : 서울
◎ 부지 : 1400평 ◎ 대지 : 60평
◎ 법당 : 50평,목조 외 ◎ 법당 : 30평
◎ 요사 : 50 외 ◎ 요사 : 60평
◎ 양도 : 38억8천 ◎ 양도 : 9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바다조망 전통사찰

- 위치: 부산 신항만 거가대교 입구
- 총부지:240여평(대단지아파트)
- 건물: 목조법당 25여평, 목조 산신각
- 가액 : 6억 5천만원(전,연세 가능)

직통 010-9906-3631 혜관
제 26320-2015-00027호
연산중개사(김의순)
부산 북구 만덕 2로 17번길 1, (다산타워)504호

면목동(급)포교원

- 3천만원에 월 170만원 시설비 4천만원
- 5층 법당 약 200㎡ 역세권, 대로변 건물
- 완벽한 시설완비, 즉시법회 가능함 전철역에서 5분이내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아늑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6평, 노천불
- 목조건물, 전통법당
- 요사채 40평, 식당 40평, 창고 60평
- 대지 1,250평(종교부지)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6억 5천만원

010-4028-889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200평,건평1층,요사채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황토방2개,화장실,주방,욕실
- 삼존불, 탱화, 인등, 영가단, 법륜대, 집기 일절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 : 3억8천(융자1억3천만원)
- 급 양도, 방문요, 즉시법회 가능

010-3186-036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요지
- 1층 공양간 35평 2층 법당 50평
- 가액 : 전1,500만, 월 80만 시설비 2,500만원 (절충가능)

010-3112-0480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마을버스 018번 정류장 옆
- 평수60평, 법당25평, 방3개, 공양간
- 삼전불, 삼성각, 용왕전, 후불탱화
- 에어컨5, 화장실 2칸, 도시가스
- 영가단4층 중 3층 법화 가능, 소임 관계
- 가액 : 2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795-1566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관음전,종각
- 요사채,공양간 외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3억 4천(절충) (스님건강문제로)

010-4628-5699

도심속의아담한암자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단독 주택
- 가액 : 대출 ~7500만원~ + ~1억 3천5백만원 합 가액 : 2억 1천만원 (절충가능함)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010-7188-772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3,000만원(답사후 조정 가능)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송천동 311-30호 2층
- 미아역 5분거리 약 30평
- 가액: 2,000만원 월 40만원

010-8887-9894
02-986-5134

암 자 안 내

- 위치 :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 內
- 장군봉, 임금봉, 신선봉, 천왕봉, 문필봉 동학사를 바라보며 앞쪽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좌측에는 신도안의 기운이 뻗치는 위치에 자리한 백만불의 조용한 암자
- 인연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곳
- 가액 : 13억

010-9228-674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 잔디. 조경전망 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 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 2억7천안고 양도 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9004-889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 면적 : 1000평
- 법당 : 30평, 산신각5평
- 요사 : 60평
- 대형차량 진입
- 산속, 남향, 계곡
- 가액 : 6억 8천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 법당 1, 요사채 1
- 대지 341㎡, 건물 72㎡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050-263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옆)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소재 김천시 황금시장교통 10분대 김천혁신도시 15분대
- 건물:단층독채,벽돌조104.54㎡(32평) 자기소유등기필(소유권이전),사찰등재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
- 내용 : 법당(넓음),거실주방,방2개,세면장 면중심가 2차선 큰길변 남향(교통좋음)
- 가액 : 6,400만원(절충가)

010-7295-1259
054)43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부지 157평, 법당 25평(목조)
- 요사채 1, 공양간 1
- 가액 : 3억

010-3508-771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주시 충효동 야척길 28 구미산. 대지 64평
- 아담하고 깨끗한 절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불, 지장보살, 신중(산신)
- 법사님, 보살님 인연맺기 원합니다
- 가액 : 6천5백만원(조정가능)

폰 010-4040-3588
집 054-742-8780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173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8평
- 가액 : 2억 2천만원

010-2376-5411
041-557-7786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 건물 3층 전체
- 가액 : 500만원, 월세50만
- 시설비 500만원
- 법회 즉시 가능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010-7589-960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 (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현재 법회 중,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천호동 8호선 암사역 5분거리 대로변
- 시설 : 삼존불, 약사여래, 신중, 후불, 탱화 등
- 2층 전체 48평,법당,방2칸, 주방, 화장실, 욕실, 베란다 (몸만 와도 언제든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80만원
- 꼭 하실분 시설비 1300만원

010-2282-888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남산로
- 법당 원목 조성 (90평)
- 요사채2, 서재1, 공양간1, 종무소1
- 가액 : 3천만원 월 100만원

010-5292-1090

대형포교원(도심사찰) 안내

새로운 신도 포교하기 제일 쉬운 곳
- 위치 : 울산 중구 학성동 432-206
- 규모 : 3층 건물 2,3층(약 130평) 옥상활용 가능
- 2층 : 공양실, 종무소, 대중방 3, 스님 친견실, 스님 처소, 화장실 2
- 3층 : 대법당, 지장특별기도실,산신각, 화장실
- 가액 : 5천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일부 조정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6429-5076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233-23
- 조용하고 아담한 단독주택 40평
- 현재 시설 그대로 양도 총 8천8백만원
- 몸만오면 언제나 즉시 법회가능
- 스님들 노후 수행지로 안성맞춤
- 스님 사용하던 비품 일체를 보시함

010-5458-29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앞산 아래 고암선 도로 근처
- 3층건물 : 1층 30평, 2층 30평
- 1층:법당,부엌,화장실,세면장, 방1
- 2층:법당,부엌,화장실,방2,사무실
- 가액 : 1층 천만원 월 60만원 2층 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1층5백,2층5백/한층만 인수 가능
- 20년째 운영하고 있음

010-2537-0541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전철에서 5분
- 몽땅 2억(조정가능)

010-8861-1785

토 굴 안 내 (암자)

- 위치 : 청양군 청양 IC 5분 거리
- 전 월세 모두가능 (상담후 결정)
- 법당1, 요사 2 (현대식)

010-3977-2123

(급)암자 같은 포교원 안내

- 경북 고령군 시설특 A급 몸만 오시면됨
- 법당1,삼존불 완비, 스님방1,거실1, 주방1,옥실1,창고1,원두막1, 보일러실 별도, 마당 넓고 조용한 한옥단독주택 약 25평이며 주변 주차공간 많음
- 비구니스님 오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 가액 : 200만, 월25만원 시설비 1,350만원. 조정가능
- 외국유학 관계로 급 양도

010-5807-2452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영암
- 토지 : 580평+1500평(국유지 년 20만원)
- 건물 : 목조 대웅전(50평), 요사채(40평), 산신각, 숙소 (숙식가능한 굿당)4채
- 사찰 주변 전망이 좋고 주차장 넓음, 국유지 경작가능,즉시 입주가능
- 가액 : 2억 7천만원(절충가능)

문의:010-9214-462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근교(지하철 1Km 부근)
- 총부지 320평
- 법당 : 목조건물(외 7포 내 11포) 32평
- 삼존불(목불), 원불(목불), 삼성각, 저온창고, 실내 외 주차장
- 요사채 : 목조건물 1,2층 100평
- 평생 사용가능한 땅 1,000평
- 가액 : 22억 5천만원

010-3561-433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 산사 새벽시장 뒤 (서감초등 부근)
- 4층 건물에 2층
- 건 60평 포교원
- 법당 완전 구비, 즉시 입주
- 가액 : 1,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800만원

010-7570-2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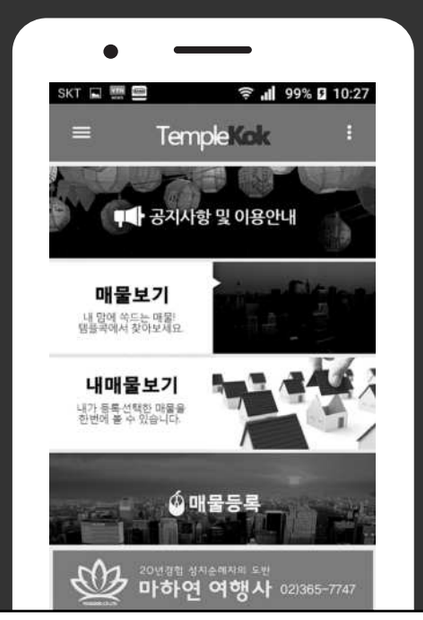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10분거리
- 대지80평, 2층법당 15평
- 1층 요사채 27평 창고 20평, 방1칸
- 대중교통시내버스
- 가액 : 1억 6천 5백 대출 4천만원 안고 1억 2천 5백만원

010-8794-1257

사찰, 포교원 정보를 내 스마트폰에서...

Temple Kok



템플콕

출시기념! 무료이용 이벤트 ~ 9월 30일 까지

전국의 사찰, 포교원, 암자, 기도터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 매물도 올리고..
(매물의 상태를 직접 사진으로 확인하고 지도검색을 통해 정확한 위치도 확인)

필요한 매물을 스마트폰에서 한 눈에 검색하고 바로 확인하고,
내 매물을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올려서 직거래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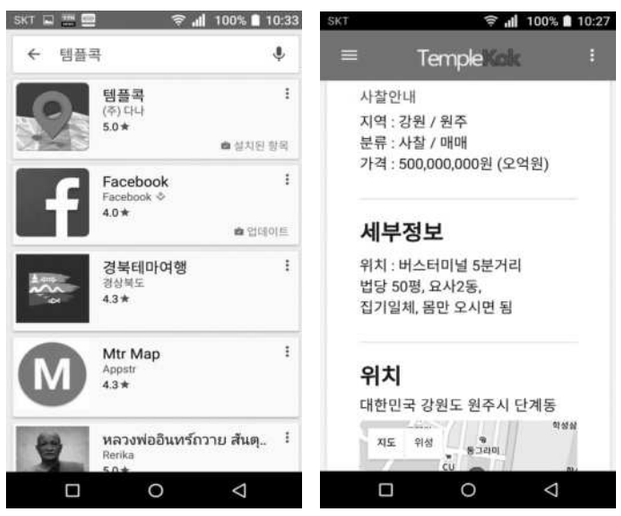
▶ 지역별, 항목별(사찰, 포교원, 암자, 토지임야, 납골당 등), 가격별로 검색 가능 합니다.
▶ 매물 담당자와 직접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이용안내

1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템플콕'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2 간단한 회원가입 후 본인의 매물 등록
3 게시 기간에 맞는 요금 결제
4 입력한 매물 게시(시작)일 - 오후 7시 등록(관리자)

※매물등록은 매물보기에서 다른 매물 입력내용 확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문의 02)2004-8214



주의 : 템플콕은 사찰 및 포교원 등 수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상호 직거래하는 방식이므로 거래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

쵸 Cㅌ룽파 린포체

〈3〉 바람의 말을 타다 ㊥

'신뢰의 불꽃'을 터트려라



고갈되지 않는 '당신'

진정한 전사와 아마추어 전사는 다릅니다. 진정한 전사는 몸과 마음, 세속 세계와 영적 세계가 하나가 된 수행자입니다. 세속 세계와 영적 세계는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종교적 관점에 상관없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현존,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직접 찾는 것이 세속적 접근입니다. 우리는 뭔가 훼손된 것으로서 세속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의 자원과 현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발견되는 순간 단순히 껴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 경험을 붓다의 길 위에서 영적인 발견들과 동시에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챙김의 훈련을 하고 우리 자신에게 마음을 여는 자연스런 노력을 기울이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미묘한 방식으로, 우리는 세속이 매우 신성해지고 매우 실제적이며 매우 진실되어감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세속이 신성해지는 참됨의 지점에서 우리는 흉내쟁이 또는 아마추어 전사와 반대되는 존재로서 진정한 전사, 참된 전사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해야 할지, 그리고 그들이 깨어나도록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해 의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훈련을 발전시키고 두려움 없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은유적으로 말해,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데는 극단적인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소리 지르기, 찬물을 끼얹기. 모두가 사람들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애써왔습니다. 머리를 두드리기도 하고 그들을 압박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권위와 존재감을 갖추지 않고서 지나친 힘을 행사할 때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전사는 절대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전사가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개인적인 이해를 통해서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당신은 그들의 삶에 진실이 없다는 빈곤의 논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깨어나게 하십시오.

진정한 전사는 자신 안에 많은 자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디어가 고갈되었다고 느낄지라도,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고갈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공격당했던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넘어서 갈 수 있고 자신 안에서 더 많은 자원들을 발견합니다. 영감의 창고는 계속 흘러넘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

룽타 또는 바람의 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마법적인 속임수를 훈련합니다. 당신은 끔찍한 하루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샴발라 수행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로 마음을 바꿀 때, 당신은 룽타에 당신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당신은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을 느끼며 만반의 준비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특히 우리는 공중을 상대로 설명을 해야 할 경우 거짓 바람의 말 흉내를 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결혼이나 이혼을 요구하거나 상사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당신은 거짓으로 자신을 부풀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흉내내기는 당신 자신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속이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든 말든, 난 이걸 할 거야." 당신은 가장 간단한 논리 한 조각에 대한 이해와 한 조각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데 그러한 속임수를 사용하려 합니다. 흉내내기는 진정한 훈련이나 기법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강압적이고 매우 둔감하며 엄격합니다. 사람들은 강하게 압박하는 데에서 영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말의 불꽃과 조율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어느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어납니다. 그것은 매우 건강한 메시지를 가진 갑작스런 불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전에 최소한 5초에서 1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의자에 앉거나 명상 방석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건강성의 대양과 조율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신뢰의 불꽃이 일어날 때, 그것이 퍼져 나가도록 놔둡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신뢰의 불꽃과 조율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깨어 있음과 힘의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 모든 원리가 이 찰나의 섬광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 안에 있는 이것은 세속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잡아끕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의 방황하는 생각들과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그치게 됩니다.

두려움의 본질 이해하기

전사의 길을 가다 보면, 격렬한 두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자주 툭 튀어나옵니다. 두려움은 그저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의문을 일으키게 할지도 모릅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공부하고 배우며 이해한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위대한 동쪽의 태양을 만나 무조건적인 신뢰의 원리를 이해한 후에도 엄습합니다. 한 점 얼룩도 없이 완벽히 이해했을 때에도 이러한 두려움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가 더 발전되어 나가는 단계에서 옵니다. 당신은 막 더 큰 신뢰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전사가 가는 길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그것은 길을 가는 여정에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전사가 성장하는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가 배운 바를 적용하는 우리의 능력 사이에 모순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발견을 이루기 시작하거나 전사정신에 도전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신뢰가 좀 더 막 자라기 시작하는 순간, 더 큰 두려움의 뒤를 따라 돌파력이 진행됩니다.

자신 안에 자원은 무수해
'흉내 내기' 아닌 신뢰 쌓아
타인과 진정한 소통 이뤄야
영적 힘으로 관심 잡아끌어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떠오를 때, 당신은 두려움의 본질을 탐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왜 두려워하지?" "무엇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걸까?" 하고 두려움에 대해 논리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또는 공포의 상태를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논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대해 어마어마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타당성을 증명할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갖가지 좋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두려움에 대해 분석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두려움으로 뛰어드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다음에 경험할 일은 완전히 털썩 주저앉는 느낌입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은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해왔던 슬픔의 색채를 느낄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당분간 지속되는 고립감과 불확실성을 느낄지 모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남긴 잔여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축된 두려움의 정도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다소 이성적이 되고 다룰 만해집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 큰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과 함께하는 여정은 길을 가는 동안 느리게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진정성의 전체 개념을 다시 경험하고 다시 연결됩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삶에서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다가감으로써 두려움을 벗어나는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우리 자신을 덫에 걸린 존재로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열쇠가 되는 태도입니다. 당신은 큰 두려움을 경험하더라도 두려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왕적인 태도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면, 두려움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이 두려움을 알아차릴 때,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을 단순한 현실로 대할 것인가 엄청난 함정에 걸려든 것으로 대할 것인가에 답이 있습니다. 당신이 공황 상태로 빠질수록, 겁을 키우는 것입니다. 겁을 내지 않으면, 당신은 그저 두려움을 경험할 뿐입니다. 겁내지 않음으로써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바람의 말을 불러내는 문제입니다. 만일 진정한 신뢰를 가지고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성과 합류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반대쪽으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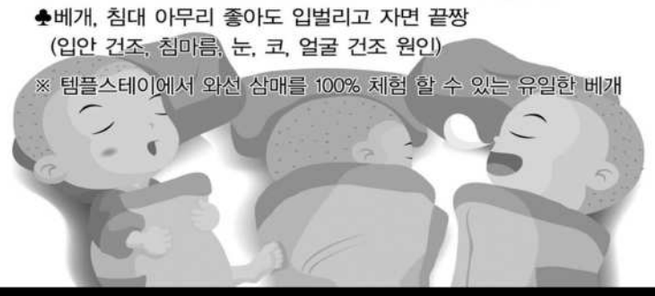
당신 안의 동전의 양면을 다루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사의 길과 삶에서 향상된 연결감을 가지고 더 전념합니다. 그 점에서 당신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됨을 실제로 증거합니다. 하늘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또는 좋음과 직접적 이해를 말합니다. 땅은 실현 가능성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현실 가능성과 온전함 또는 지혜가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찾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늘은 나 자신이며 땅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온전함 안에서 함께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은 우주와 함께하는 데 뭔가 잃어버린 고리가 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마침내 온전함을 경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건강성, 강함,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환히 빛납니다. 그런 다음에야 당신은 실제로 우주를 손 안에 쥘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뜩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배종훈의
명상카툰

나를 닮은 물고기

나는 절집에 가면 늘 곳곳에서 물고기를 찾는 습관이 있다. 법당의 벽면이나 창살에 그려져 있기도 하고, 처마에 매달려 있기도 하고, 법당 안 천정에서 헤엄을 치고 있다. 그들의 모습이 어눌하고 비율에 맞지 않은 친근한 모습일수록 더욱 눈길이 가는 것은 아마 내 삶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이리라.

눈을 감지 않고 잠드는 그들의 삶처럼 내 마음도 언제나 깨어 있고 싶다.

지장전 천장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바다를 듣고 있을까?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작고 까만 조약돌

조약돌에 속삭이는 무서운 이야기

"화장실에 괴물 사는 거 아니?"

"거짓말!"

민준이는 누나에게 말려들지 않기로 결심했다. 누나는 민준이를 놀리는 걸 좋아했다. 지난번엔 냉장고 괴물 얘기를 해서 민준이는 한 달 동안이나 혼자서 냉장고를 열지 못했다. 그릇 사이에 숨어있던 괴물이 손을 덥석 물어버릴 것 같았다. 엄마가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꺼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나서야 민준이는 안심할 수 있었다.

"밤에 화장실에서 꾸륵꾸륵 소리가 나는 건 괴물이 변기 물통 속의 물을 마시기 때문이래."

"본 적 있어?"

"화장실 괴물은 아주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

"역시 거짓말이구나."

민준이는 더는 듣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누나는 괴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누나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마디 던지면 민준이는 거기에 살을 더하고 옷을 입혀서 점점 구체적인 괴물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괴물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언제나 그랬다. 머릿속의 괴물 때문에 오래도록 무서움에 떠는 건 민준이의 몫이었다.

"하지만 물을 먹으면 엄청나게 커지지."

"젤리처럼?"

"그래. 젤리처럼."

"초록색이야?"

"아마도."

"물을 마셔서 커진 거라면 투명하고 미끈거리고 축축하겠네?"

"그렇지."

화장실 괴물은 물을 어떻게 마실까? 민준이의 머릿속은 이미 투명한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물컹물컹한 초록 괴물로 가득 찼다. 코끼리처럼 긴 코로 물을 쭉 빨아들일 거야.

"전혀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 그렇지?"

"어쩌면. 하지만 귀엽게 생겼다고 우습게보면 안 돼. 화장실 괴물에 닿으면 금세 빨려 들어가 버린다고.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어. 질식해서 죽을 때까지."

"민지야!"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소리쳤다.

"민준이를 놀리지 않기로 엄마랑 약속하지 않았니?"

"민준이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씩씩한 열한 살 청소년이라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컴퓨터 못 쓰게 할 거야."

누나는 입을 삐죽이다가 민준이를 향해 혀를 쏙 내밀어 보였다.

"누나는 괴물이 무섭지 않아?"

"그런 게 왜 무서워? 나타나면 돌려차기를 날려버리면 되지."

누나는 태권도 선수였다. 초등학교 때 취미로 시작한 운동이었는데, 대회에 나가서 여러 번 우승을 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선수 생활을 하게 되었다.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경호학과에 가서 경호원이 될 거라고 했다.



그림 · 강병호

누나와 민준이는 거의 모든 면에서 달랐다. 누나는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활발하고 씩씩했다. 민준이는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집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고, 무엇보다 겁이 많았다.

어른들은 남매가 성격이 서로 바뀌면 딱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민준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내아이가 소심하고 겁이 많다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아 괜히 움츠러들었다.

엄마는 그런 민준이에게 다정했다. 침대 밑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서, 베란다의 빨래 건조대에 누군가 빨래를 입고 걸려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움에 떨면 엄마는 불을 켜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주었다.

"괴물은 그렇게 나쁜 존재가 아닐지도 몰라. 토토로나 슈렉도 좋은 친구들이잖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혹시 괴물과 마주치면 인사를 해보는 거야. 안녕? 하고 말이야. 어쩌면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엄마의 말은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지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머리털이 쭈뼛 서는 것을 참아가며 '안녕'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다.

언젠가 무서운 꿈을 꾸고 소리를 지르며 깨어난 밤에 아빠는 달려와서 민준이를 꼭 안아 주었다.

"아빠가 늘 민준이 곁에 있을 거야. 민준이가 위험해질 때면 아빠가 곁에서 민준이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안심하렴."

아빠는 언제나 든든했다. 문제는 그런 아빠가 늘 민준이 곁에 있어 줄 수 없다는 데에 있었다.

화장실 괴물 이야기를 들은 후로 민준이는 자기 전에 물을 마시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화장실 괴물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난 것 같았다. 할머니 집에 가기 전까지는.

수박이 문제였다. 달고 시원한 줄만 알았지 수박을 많이 먹으면 오줌이 자주 마려울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게다가 할머니 집의 화장실은 집 밖에 있었다. 다리를 꼬고 몸을 비틀며 아침이 될 때까지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지만, 오줌통은 점점 차올랐다. 도대체 밤은 왜 이렇게 긴 걸까.

"할머니, 화장실에 좀 같이 가주세요."

민준이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에게 부탁했다. 시원하게 오줌을 누고 나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화장실 괴물 이야기를 했다.

"제가 바보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아. 넌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상상력이 풍부한 거란다. 이 할미도 그랬단다. 온갖 것을 다 생각해내서 무서워하고, 걱정이 많았지."

할머니는 화장대 서랍에서 작은 조약돌 하나를 가져와 민준이에게 주었다.

"이 돌은 할머니의 할머니가 준 거란다. 무서운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돌에게 이야기를 하렴. 무서운 생각의 씨앗들이 이 돌 속에 담긴단다. 생각의 씨앗들이 너무 많이 담겨 무거워지면 잠시 물속에 담가두려무나. 그러면 말끔히 씻어져 다시 가벼워진단다."

"이걸 저한테 주시면 할머니는요? 무서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아.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 돌이 알려주었거든."

조약돌은 민준이의 손안에 쏙 들어왔다. 작고 까맣고 반질반질 윤이 나는 조약돌을 보며 민준이는 속삭였다.

"앞으로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

〈계속〉





대행 스님

이 세상엔 크고 작고, 높고 낮은 게 없이 전부 홀로 높다

(지난 호에 이어서)

이렇듯이 사람도 오늘 이렇게 사람으로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올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영이란 본래 체가 없는 거라, 즉 말하자면 원자에서 입자가 수만 개로 퍼지듯이, 또 하나로 뭉쳐지듯이, 벌어지고 뭉쳐지고 이렇게 작용을 무수히 하면서 지금 우주 전체가 돌아가고 있듯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 아까도 암흑 얘기 했지만, 그렇게 진화돼서 해 나온 그 과정을 증명하려면 모두 여러분의 몸속을 보십시오. 그게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업 선업이라는 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입력이 돼서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이 한마음, 이 도리를 공부한다면, 이 마음이 '야, 네 몸인데 네 몸을 건강하게 끌고 다녀야지.'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입력이 된다면 그대로 그 마음이 전체에 입력이 되는 것이죠, 의식들이. 그래서 '아, 나를 몰랐는데 이게 내 집이고 내 몸이래.' 하고선 모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두뇌입니다. 마음이 바로 한 찰나에 두뇌로 올라가서 즉 누진…, 바른쪽 왼쪽의 그 작용의 핵심이 바로 누진입니다. 누진이 바로 사대로 통신을 합니다. 이 두뇌로 올라가서 통신을 해서 한마음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그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파워를 일으켜서 잘못하면 살이 굳어지고 세포가 굳어지는데, 제 집이 없어지거든요. 제 집 망하는 거를 누가 좋아합니까. 제 집이 망그러지는데 누가 좋아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또 그 의식들이 들고 나면서 영계성이든지 세균성이든지 업보성이든지 유전성이든지 다 끌어들여서 파워를 일으키는데, 좋은 것도 끌어들이고 나쁜 것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이 주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의 주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놓고 돌아가는 것을 만약에 주인공의 그 주장자를 완벽하게 세우고 공부를 한다면 모든 게 그냥 삽시간에, 그 모두가 바깥으로는 털구멍을 통해서 보살의 행으로서 화하게 되고, 안으로는 안대로 보살의 행으로서 화하게 되니까 천백억화신으로서 화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모두가 이렇게 작용이 엄청난데, 하나도 작용 안 하는 것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 지구의 모든 것도, 물과 산도, 이 들도 움죽거리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 인간의 수명은 70년 80년이지만, 그것들은 이천, 만, 십만 이렇게 수명이 길 뿐이죠. 이러한 법의 도리를 부처님께서는 49년을 설했고 여러분 앞에 그 길을 인도하면서 "절름발이로 살지 말아라. 또는 눈먼 장님으로 살지 말아라. 귀먹은 귀머거리로 살지 말아라." 이럭하고서 모든 것을 가르치셨는데, 단군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농사짓는 법이라든가 모든 걸 가르치셨고, 부처님도 그러하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게 홀로 높으니라. 홀로 높으니라. 천상천하에 유아독존."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크고 작고 높고 낮은 게 없이 전부 홀로 높으니라. 대장간 일 하는 사람은 대장간 하는 데서는 제일 높고, 또는 뱃사공 일 하는 데서는 뱃사공이 제일 높고 모두가, 농사짓는 일 하는 데서는 농사짓는 농부가 제일 높고, 아이, 모두 홀로 높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거 하는 사람이 저거 못하고 저거 못하는 사람이 이거 못하니까 모두가 제가끔들 해 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림 · 최주현

그리고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 이런다면 그냥 믿는 것만이 믿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가 행동, 말, 뜻 이 모두를 다 갖추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속이 상한다, 뭐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 이러더라도 말로 하고 몸뚱일 잡아 가지고 때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해와 바람이 싸운 얘기도 아시죠? 이 마음을 붙잡아야 몸뚱이도 오지, 마음을 붙잡지 않고 자꾸 욕을 하고 "너, 아이고, 요놈의 새끼! 너는 배울 시기에 못 배우면 깡통밖엔 못 차." 이러면서 갖은 욕을 하면서 불안을 격화시키고, 온통 집안 식구들을 다 그냥 북북북북 긁으면 화를 내고 인제 이런 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입력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말한 대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아주.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누구를 막론해 놓고 자꾸 달아나갑니다, 추우니까. 보금자리가 너무 쌀쌀하고 추우니까 말입니다. 따뜻한 데로 찾아가느라고 자꾸 달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라 하면 그래도, 가정에서도 어떠한 것이든 모든 거를 다 거기 맡겨 놓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어떠한 조건이라도 거기다 맡겨 놓을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한다면 같이 밝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밝게 살 수 있어요. 그건 스스로 경험해 본 사람들이 다 말을 할 겁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사람이 자식이 하도 그냥 나가서 깡패들하고 같이 어울려서는 그저 보름 정도 안 들어오기 예사고 열흘 안 들어오기 예사고, 학교 가지 않는 것이 그냥 뭐 다반사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부모를 자꾸 부르고 이렇게 되니까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뭘 자꾸 훔쳐 내간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도 뭘 훔쳐서 경찰서에서 자꾸 부르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학교도 퇴학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부모가 하도 그냥 애쓰다, 버린 자식으로 내놨다가 이 선원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아들의 주인공과,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과 엄마의 생명이 둘이 아니요, 또한 부모다 자식이다 하는 바로 인연줄이 있다. 인연줄이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다 맡겨 놓으면 인연줄에 의해서 거기까지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도리를 알고서 거기다가 그냥 그대로 그렇게 했더니 한 두어 서너 달 되니까 아이, 장독대를 닦고 있는데 들어오더니만 "어머니, 잘못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하면서 "아이, 힘드시죠?" 그러면서 장독대를 듬성듬성 옮기면서 자기가 그냥 물로 닦고, 그렇게 그 어머니의 어려움을 덜어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그 마음이 잦아져 가지고 어머니의 그 아픔을 아들이 알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해 가지곤, 아주 그때서부터 학교에다가 잘못했다고 백배사죄해 가지곤 도로 학교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선 아들이 효자가 됐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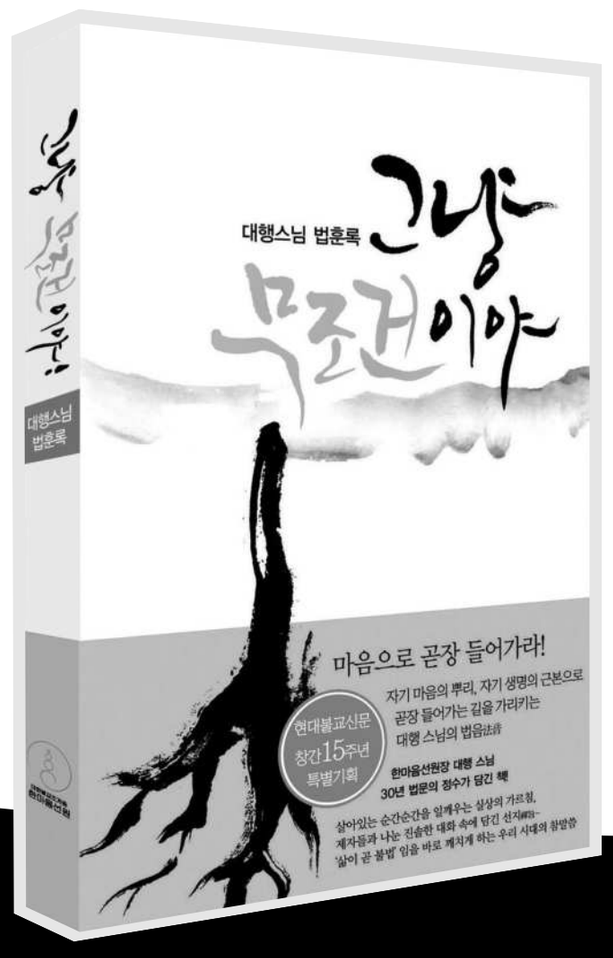
우리는 죽어서 천당에 가고 죽어서 잘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없다면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때 과거에 어떻게 산 거를, 어떻게 했던 거를 알 수 있고, 바로 지금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꼬락서닐 보면 미래에 어떤 게 올 거라는 거를 모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기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법당에 들어오면 법당에 부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법당에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온 대로 거기 있는 자리에 부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당에 들어와서 절을 할 때는 부처님의 이 형상이 내 형상이요,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그 생명의 뜻이 내 뜻이요, 이건 둘이 아닌 고로 그저 삼배를 올릴 것도 급하면 일정례를 올리되 둥글게 해서 그저 내 주인공으로서, 하나로서 절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심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아상이나 아집이나 그런 거를 모두 죽여야 모두 한마음 속으로 들어갈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이 단어 없는 단어, 이것이 바로 우주 만유의 근본이며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해 가지고 나가는 이 작용 자체가 바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자기가 벌여 놓지 않은 거는 자기 앞에 들어오지 않는다

☞ 25면에서 계속

로 불교입니다. 우리들을 떠나서 불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뭐가 있습니까. 무효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흐름이 있고 인연의 법칙이 있고 발전도 있고 창조력도 기를 수 있고 창조를 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놓은 것도 과학이요 밥을 지어 놓고 먹는 것도 과학입니다. 임신을 해서 어린애를 낳는 것도 과학입니다. 이거는 심성과학이며 자동적인 과학입니다. 이 무수하고 광대무변한 이 자동적인 과학을, 심성과학을 물질과학으로만 가서도 아니 됩니다. 모든 것이, 천체물리학도 이것은 심성물리학이라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잘 터득을 하신다면 핵심에서, 천체물리학이니 과학이니 전체 모두가 나갈 겁니다. 천문학이니 하는 모든 게 전체 그 핵심에서만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혼자만 말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말을 했으나 나는 말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들은 게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은 게 없으면서도 바로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활 그 자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창조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인제 질문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죠.

사회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동안 평소에 의심이 들었던 문제라든지, 지금 큰스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실 게 있다든지 그러시면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큰스님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우리 고문님 좀 나오셨으면 좋겠네. 허허허. 아유, 정말 재미있기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튕겨서 듣는 이 양식이야말로 진짜 좋은 법이죠.

질문자1(여) 마음을 제가 관한다는 것이요….

큰스님 (절을 하는 질문자에게) 한 번만 하세요. 그거는 당신의 아집을 꺾기 위해서 당신이 당신한테 하는 겁니다.

질문자1(여) 마음공부를 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불경 책을 봐도 그때 잠깐이지, 제 스스로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떠나오면 잊어버리고 그게 제대로 되지를 않거든요.

큰스님 아, 잊어버리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걸요. 잊어버리는 것도 거기서 나오고 먹자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고 기르자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한군데서 일체 만법이 나오는 거지 다른 데서 나오는 구멍은 없습니다.

질문자1(여) 그걸 다스리는 방법이 없나요? 나가면 또 금방 한 이틀이면 또 잊어버려요.

큰스님 잊어버린 것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딴 데서는, 딴 데서 나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니까 거기다가 맡겨라 이 소립니다. 거기다 맡기고….

질문자1(여) 맡기면 제멋대로거든요. 이게 생각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고 나면 어떨 때는 '아유, 이거 실수였구나!' 이미 저지르고 난 다음에….

큰스님 당신이 모르기 때문이야.

질문자1(여) 그렇죠, 저는 모르기 때문에.

큰스님 당신이 아주 백지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해 봐라 이거야. 무조건, 무조건 믿고 해 봐라, 아는 척하지 말고. 아는 것도 거기 놓고. 지식이나 학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질문자1(여) 항상 마음을 붙들고 다녀야 되는데….

큰스님 아, 뭘 붙들고 다녀요? 본래 가지고 있는데. 하하하…. 하이고 아, 붙들 게 있어야 붙들죠? 마음이라는 게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빛깔도 없는 거예요. 허공을 쥘 수도 없고 그렇지만 허공이 있지 않아요? 마음도 쥘 수도 없지만 있지 않아요? 아, 지금 그 말을 하잖아요! 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질문자1(여) 실천이 안되죠.

큰스님 하이고 참! 저 봐. 실천이 안된다는 소리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전체를, 전체를 믿어요. '내가 지금 일상생활을 전체 하고 가는 것이 그놈이 하는 거다.' 하고요. 전체 믿어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선 그러네. 하하하.

질문자2(여) 사무 사유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 사무 사유라는 건 물질세계의 사, 무의 세계 사, 이게 팔정도를 이렇게 뚱그렇게 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 놨죠. 그러면 사, 사가 한꺼번에 그냥 한데 합쳐져서 수레바퀴 돌아가듯이 똥그랗게 해 놨죠. 이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무 사유가 한데 합쳐서 바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바로 이거를, 대의적인 일에 사유 사무가 되고, 한 혹성으로서 작게 돌아간다면 지금 정신계 물질계, 요거, 지금 요것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항상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모두가, 즉 말하자면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가 같이 작용을 하고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얼른 쉽게 이렇게도 비유가 될 수 있죠. 이 세상 모든 게 천차만별로 사생, 즉 말하자면 태로 낳는 거, 알로 낳는 거, 질척한 데서 낳는 거, 또는 화해서 낳는 거,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로 나오고 유에서 무로 들고 하니까 이것이 바로 사무 사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세상만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 마디 가지고 열 가지가 벌어지고 열 가지가 한 가지로 귀결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질문자3(남) 스님께서는 한마음이 우주의 본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한마음이라고 그러면 너와 나의 어떤 본체, 같은 마음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기(氣)로서 이원화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마음은 하난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너와 나의 개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법당에 들어오면 법당에 부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법당에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온 대로
거기 있는 자리에 부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체에서는 마음은 한마음이지만 두 가지 어떤 형체랄까 그래서 일기이원론이 되는 건지, 아니면….

큰스님 물질로 생각을 한다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이 한마음이라는 건 물질로 생각을 해도 그 뜻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뜻을 생각합니다. 지금 비유를 하자면 사장과 직원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사장과 직원이? 이것은 직원과 사장이 이 하나로 귀결된, 먹고살기 위한 그 하나로 인해서 한마음으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세상 이치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즉 말하자면 저런 나무들, 울창한 나무들도 공기를 보유했다가 바로 사람들한테 모두가 나눠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에게서 또 자동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벌써 나무한테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공심 공용 공체 공생, 이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마음이지 두 마음입니까? 모두가 같이 돌아갑니다. 같이 돌아가는데 용도에 따라서 즉,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프면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돌아가는 동시에 내가 아프면 의사가 필요하고, 가난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가 있고 '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질문자4(여)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벙어리로 어떤 사람은 귀머거리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정상인으로 나오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지체부자유나 정박아나, 그러니까 똑같지 못한 그런 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큰스님 자기가 한 대로요.

질문자4(여) 그럼 전생의 업 때문인가요?

큰스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에도 자기가 한 대로 지금 자기가 받고 가죠. 남의 따귀를 때렸으면 따귀가 오고요. 그런 거죠. 남을 기껏 두들겨패 놓고 왔다면 그쪽에서도 앙심을 먹고 또 두들겨패러 여럿을 끌고 또 오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린애 둘이 놀다가 한 애가 불집게에 정수리가 찔려서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후로다가 그게 논란이 됐어요. 생각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불집게로다가 그렇게 찔려서 죽었겠느냐? 그래서 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알고 짓는 죄는 알고 받게 마련이고 모르고 짓는 죄는 모르고 받게 마련이다라는 얘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농촌에서 사는데, 깻벌레하고 거미가 옛날에는 무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 통에다가 오줌을 받아 가지고는 씩씩거리는 깻벌레를 집게로다가 집어서 그냥 연방 넣어서 죽였습니다. 깻벌레하고 거미하고 수년을, 수십 년을 그렇게 죽이다 보니까 그 의식들이 아주 그냥 똘똘 뭉쳐서 그만 인간으로 화한 겁니다. 그 집이 어린애를 못 낳았는데 어린애로 화한 겁니다. 형제가 됐어요. 그 형제가 인제 글방을 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스님이 난데없이 오시더니, 오늘 저녁이면 그 어린애가 당신들에게 원수를 갚을 테니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일러 주더랍니다. 겻불을 두 군데다가 켜 놓는데, 병아리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철망으로다가 이렇게 쳐 놓고 공석을 덮어 놓고 이렇게 겻불을 피우고, 자식들이 올 때쯤 되면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뚜껑을 아주 덮고선 아무리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인기척을 하지 말고, 그 인기척이 다 끊어진 뒤에도 한 시간 후에 나가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본 거예요, 정식으로. 아닌 게 아니라 아, 얼마 있더니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배고파!" 이러고 들어오더니 아, 나중에는 그냥 찾다 찾다 없으니까 "이 연놈들 어디 갔어?" 하하하,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니면 원수를 갚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시간이 넘어 가면 우린 다 그냥 원수를 갚지 못하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하고 그냥 팔팔 뛰고 울면서 그냥 뭐 거산을 하고 찾더라는 겁니다. "이 연놈들에 대한 마음이 수십 년 동안 응고가 돼서 내가 이 시간을 타서 원수 갚으려고 한 것이 세상에,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이 연놈들을 어떻게, 어떻게 씹어 삼켜야만 원수를 다 갚느냐?" 그러면서. 아, 그럭하고서는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고, 너무나 무서워서 세 시간이 지난 뒤에 나와 보니까 한쪽에는 깻벌레가 싹 붙어서 전부 그냥 꿈틀거리고 한쪽에는 거미가 붙어서 그 안으로 그냥 잔뜩 들었더라는 겁니다. 죽고 그냥 꿈틀거리고, 그 겻불에 죽은 거라. 그러니 그 스님께서 얼마나 그 참, 그 노인네들을 건져 주셨습니까. 그러고서는 그 스님은 그 깻벌레와 그 거미를 정식으로 화하게 해서 인간으로 탄생을 하게 해 주셨다는 그런 이치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자기가 벌여 놓지 않은 거는 자기 앞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벙어리로 태어난다든가 불구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보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동시에 같은 그 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도 죽겠지만 보는 사람도 정말 그 못지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지 말라고. "그 모두가 이 세상천지에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네 앞에 닥치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흑인이 백인 낳을 수가 없다고요. 뭐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이건. 요만한 거 하나도 거저가 없고 요만한 거 하나도 에누리가 없습니다. 참 철두철미합니다. 여북하면 악업을 짓지 말고 선덕을 쌓아라, 선업을 지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나쁜 일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한다면 악업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면서 좋은 공덕을 쌓아야죠. 그리고 또 그런 업장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마음공부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고 거기다가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공부를 한다면 아주 그게 무너집니다.

※위 법문은 1992년 7월 26일 모건힐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불자 세상보기

초심을 잃지 않는 삶이란



법현 스님
열린선원장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셋 있다고 한다.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다. 난 사람은 이름이 '난 사람(famous man)'이다. 이른바 유명한 사람이다. 든 사람은 알 거리가 머리에 '든 사람(knowledge man)'이다. 지식인이다. 된 사람은 인격이 완성 '된 사람(enlighten man)'이다. 인격자이다. 불교에서는 깨달은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 셋은 나눠서도 하나하나 그 자질이 좋게 느껴진다. 그런데 합쳐진다면 더 좋을 것이다.

물론 셋이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대개는 든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남들 앞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잘하고 매체에 글을 써서 설득을 하고 환호를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기에 이해가 된다.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된 사람이 나는 것이다. 인격이 좋아도 이름나지 않을 수 있고 이름은 났는데 인격을 살피면 고개를 갸웃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된 사람이 난다면 참 좋겠는데 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요사이 난 사람에 해당하는 배우, 가수 등 연예인들이 이런 저런 일들로 사람들의 입살에 오르내리며 눈총을 맞고 있다. 흔히 말하는 한류를 선도하던 아이돌 가수로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재판을 기다리는 이, 남의 사람과 사랑하는 배우, 도박중독에 빠져 해외를 넘나들며 엄청난 돈을 해외에 버리다시피 한 사람 등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서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좋아하거나 따르는 이들에게마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도 활발한 작품 활동에 더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 벌어들인 돈을 좋은 곳에 쓰게 하는 연예인들도 매우 많다는 사실이 우리를 조금은 안심하게 한다. 그들 가운데 우리와 가까운 불자 연예인들이 많은 것도 기쁨이다.

예능 치트키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불자가수회장을 역임한 영원한 해병, 영원한 불자인 59년 왕십리의 김흥국 거사는 20여년 가까이 수많은 어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격려하고 있다. 그의 학생 사랑, 불교 사랑, 축구 사랑, 해병대 사랑은 이미 이름이 널리 나 있다. 필자도 몇 차례 장학금 수여행사에 참석해 축하하고 장학 대상을 소개한 적이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

의리맨으로 알려진 불자 배우 김보성은 자신이 출전하는 격투기 대회 대전료를 모두 소아암 환우를 위해 기부하고 있다. 알다시피 격투기 대회는 대회 때마다 다치고 잘못하면 심각한 부

불자 연예인 잇단 선행 '귀감'

모든 이가 나의 형제임을 알라

상을 당할 위험도 있는 경기인데 그 경기의 수익금을 남에게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칭찬해 마땅하다.

독실한 불자로 잘 알려진 가수이자 배우 김민종도 오는 8월에 개봉하는 불교 다큐 영화 '브링 홈:아버지의 고향'에서 나레이터로 참여했다. 자신의 개런티 전부를 티베트 난민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티베트이야기는 만나는 이들마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울컥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저 나 좋아하는 일 하고, 나 잘하는 일 하면서 내 삶을 살아갈 뿐인데 유명하다는 이유 하나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슬프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현대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은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요구받고 있다. 자유를 조금 덜 쓰면서 난 사람으로서의 이익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가 하고 생각하면 견뎌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세상 그 어떤 중생도 전생에 너(나)의 형제 아닌 이가 없었다"고 하는 〈앙굴마라경〉의 가르침과 똥꾼 니다이에게 서슴치 않고 다가섰던 부처님 따라 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선행을 하는 불자연예인들의 선행은 그야말로 '마음을 맑히는 보배 거울(明心寶鑑)'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자리에 걸 맞는 마음, 말, 행동 즉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삶이다. 더 많은 유명한 이들이 유명해지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좋은 일에 나서서 그를 바라보는 팬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그들도 따라하면서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기를 바란다.

기자 칼럼

'풍전등화' 수행환경… 종단·사찰 힘 모아야



박아름
취재부 기자

요즘 사찰 수행환경이 '바람 앞의 등불' 처럼 위태롭다. 난개발로 인한 수행환경 침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개발공사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걸려오는 스님과 신도들의 제보 전화가 봇물 터지듯 이어진다.

부산 해운정사는 경내 앞 바로 10m 거리에 40층 고층 아파트가 건설 중이다.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로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지만, 완공 후 사찰의 조망권 침해도 큰 문제다. 그러나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민의 입장도 배제할 수 없어 해운정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재개발'을 촉구하는 선에서 도량 수호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한 부산 청량사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시행-한국수자원공사 · 부산도시공사 · 부산시)'으로 인해 사찰 전체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일주문 · 지장전 · 해우소 및 경내 앞마당까지 공사 부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청량사는 '수행환경수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 중단 운동이라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본지로 걸려온 제보전화 중에는 약 18년 간 국가기관에 의해 사찰 부지를 무단점유 당한 충격적인 사례가 있었다. 대전 극락정사 종교부지에 설치된 대전소년원의 12m 장벽이다. 대부분의 수행환경 침해 사례처럼 개발공사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큰 장벽 앞에 주지스님의 고민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스님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시한 안전평가서 장벽 상태가 위험하단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주지 지운 스님은 "대전소년원이 경내 부지를 침범해 12m 장벽을 설치했다. 18여 년 전부터 법무부, 청와대 할 것 없이 민원을 넣고 있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며 본지에 호소해왔다. 대전소년원 측에 확인해보니 "18년 전 장벽을 설치한 공사업체 측이 측량 조사를 잘못해 벌어진 일이다. 담장을 다시 옮겨 설치하려해도 지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내년 예산 배정 결과에 따라 재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 밝혔다. 하지만 대전소년원 측의 이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쉽사리 마음을 놓을 수 없다. 18년 동안 수차례 같은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삼척 안정사, 성남 봉국사 등 전국 곳곳 사찰이 개발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몇 달 새 드러난 사찰 수행환경 침해 건만 해도 한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다.

조계종단에선 사회부 환경위원회가 수행환경 침해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그러나 각 지역별 개발계획 마다 이해관계와 특수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자문 · 관련기관 항의 공문발송 등에 역할이 한정된다.

조계종 사회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구본사별 사회노동환경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이다. 사회 · 노동 · 환경 현안에 대해 각 지역마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별 전문기구를 구성, 전문 ·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단 취지다. 지난달 설악산 신흥사가 처음으로 사회노동환경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올 하반기 내 월정사 · 해인사 · 법주사 · 직지사 총 5개 사찰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사실 과거에도 몇몇 교구본사에 '환경위원회'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직접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이 전무했고 명맥만 유지됐다.

사찰 수행환경 침해가 '남의 절' 일이란 안일함서 벗어나야 한다. 내 절 앞마당에 내일이라도 당장 도로가 들어설 수 있다. 사찰 수행환경 수호가 불교계 전체의 '공동과제'임을 직시하고, '말사-본사-종단'이란 공동대응시스템이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社說

표심 지원 없이 불심만 호소해서야

20대 국회 정각회가 7월 13일 출범했다. 7월 7일 집계한 바에 따르면 36명의 의원이 입회한 상황이다. 정각회 회원이 40명 아래로 내려온 것은 14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매 기수별로 줄고 있다.

원인을 살펴보면 명쾌하다. 지난 19대 정각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채 20명이 되지 않는다. 불자의원 수가 6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초선의원들의 가입이 저조한 것이다. 문제는 무엇일까.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역구 상황을 고려해서라고 한다. 여기서 지역구 상황은 다른 종교를 가진 유권자들로 인한 것이다. 불자의원들이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동안 기독교계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조찬기도회는 100명을 넘어서고, 가톨릭신도회까지 합치면 150명을 넘는다.

불교계 인사들은 이런 상황에도 자발적인 신행단체이고, 종교편향 논란이 일기에 불교계에서 지원하기란 어렵다고 말한다.

해답은 무엇일까. 유권자인 불자들이 불자의원들을 챙기는 수 밖에 없다. 18대 정각회 당시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활동이 그것이다. 당선인 축하연을 비롯해 고문과 부회장 위촉 등으로 16대 이후 평균인 40명을 훌쩍 넘는 59명이 가입을 하고 활동했다. 최근에는 불교포럼을 비롯한 불자네트워크 모임도 만들어진 만큼 이에 대한 관심도 불자들이 가져야 한다.

국회 정각회는 불교관련 법령을 입안하고 제 · 개정하는데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에서 불교세가 유지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선거에서 불자의원들을 후원하지 못했더라도 이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헌국회에서 불교계는 120여명의 불자의원을 배출한 최대 종교였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불교는 3등 종교로 전락했다.

국회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불교세를 높이는 일은 바로 우리 불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달라이라마 방한, 불자 마음모으자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가 7월 2일 공식 출범했다. 2013년 12월 달라이라마방한 준비위원회 발족 후 2년만이다.

중국의 탄압을 피해 1959년 인도로 피신한 달라이라마는 반세기 넘게 세계를 다니면서 불교의 자비와 평화사상을 전했다.

탁월한 식견을 통한 가르침에 서구인들은 곧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에 매료됐고, 1989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과 유럽, 동남아 등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방문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에는 30여 차례나 다녀갔고, 법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달라이라마는 한국에 방문하지 못했다. 2000년부터 방한이 추진됐지만 성사 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한국정부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의식해 비자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달라이라마의 이번 방한의 성공여부도 모두 정부의 입장에 달렸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정치지도자가 아니라 수행자로서, 평화와 화합의 길을 실천해온 종교인으로서 불자들에게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종교인의 사적 방문을 우리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제라도 정부가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전격적으로 허용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위해 전 불자와 종단이 나서서 방한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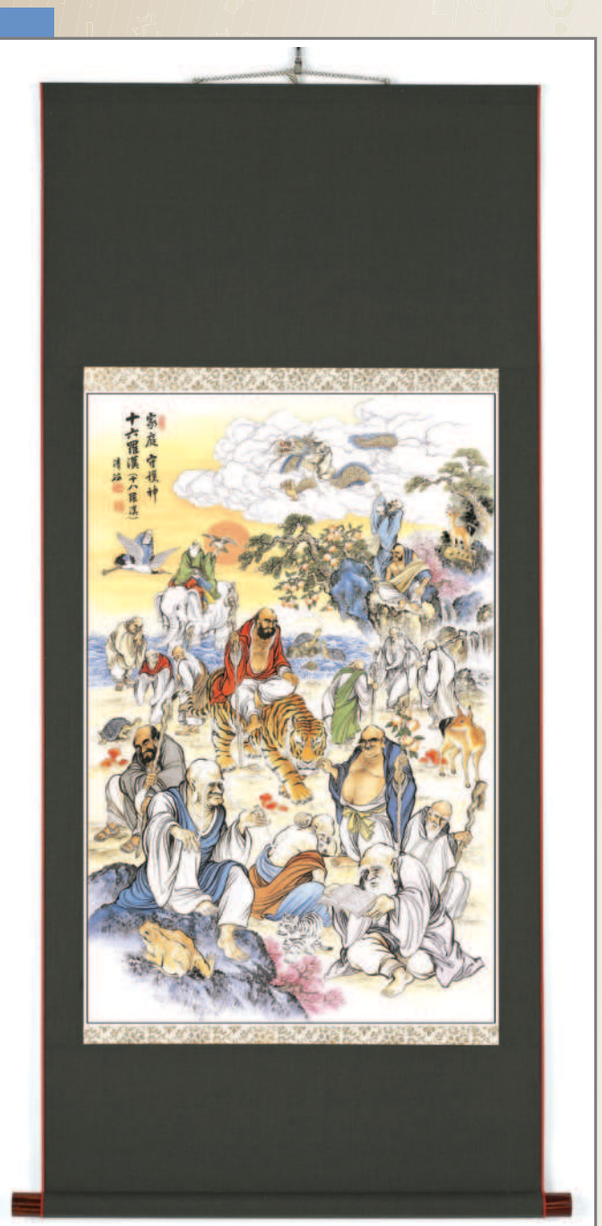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16나한도(18나한), 포대화상도, 달마도

이상 작품들은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 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불교카렌다를 통해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직접 세가지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한도(18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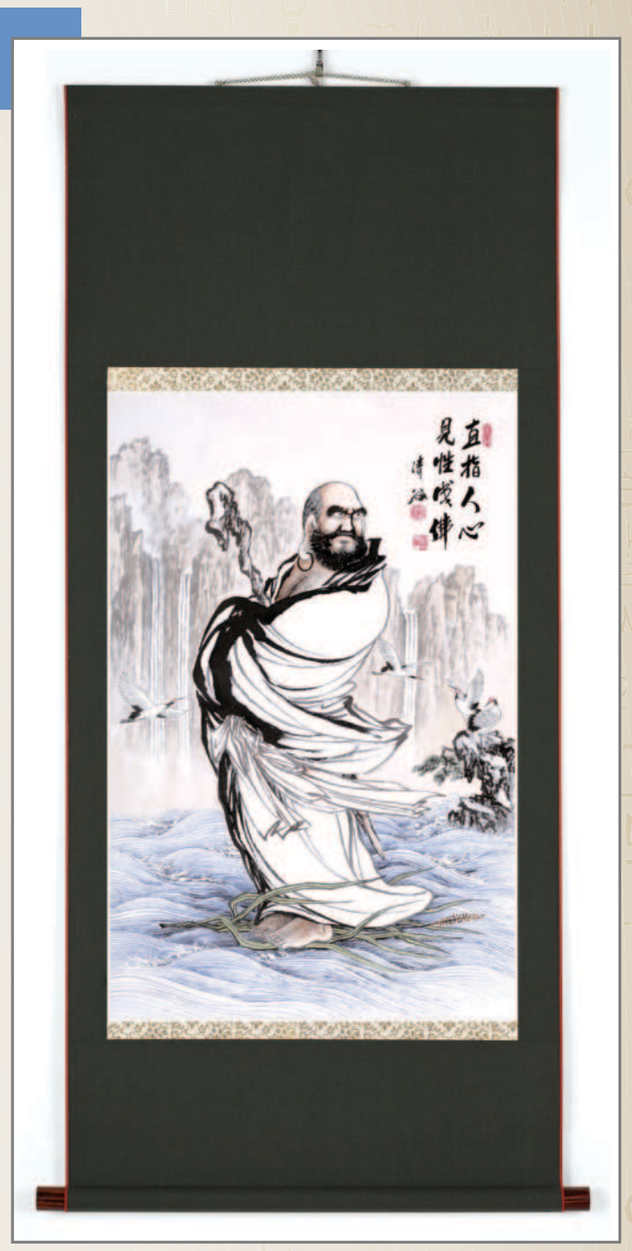
나한(아라한의 준말)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이들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현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 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한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분 한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영원한 수호신으로 모셔 주기를 바랍니다.

포대화상



커다란 포대자루을 메고 다닌다고 하여 포대화상이라고 하며 포대자루 속에는 모든게 다 들어있어서 중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꺼내어 준다고 합니다. 천하을 다 포용할 수 있을것 같은 커다란 배와 언제나 활짝웃는 모습의 포대화상은 미륵불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생에게 복을 나누어 준다고 하여 복달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복을 상징하는 대표되는 모습입니다.

달마도



달마대사 께서는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유명한 소림사의 9년동안의 면벽 참선은 달마대사께서 부처님- 다음으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감히 법접을 할수 없을것 같은 강직한 모습의 달마대사의 모습은 발산하는 강력한 기로 인해 잡귀가 물러나고 삼재가 소멸되어 가정이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 길이 120㎝ × 폭 54㎝ • 가격 : 100,000원

16나한도을 구입하시는 분에겐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보내 드립니다.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